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2020. 12.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를 발간하며

4 월 30 일 석가탄신일부터 5 월 5 일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었다. 코로나 19 대구·경북지역 확진자 증가로 위기감이 높아지던 2 월 이후, 당국의 적극적인 방역관리와 전 국민적 노력으로 4 월 29 일 신규 확진자가 한자리수로 줄면서 이른바 ‘K-방역’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던 시점이었다. 모처럼의 긴 연휴가 찾아오면서 시민들은 교외를 나가고 외부활동을 재개했다. 당국은 긴장을 하면서도 K-방역을 자축하는 분위기에 고무된 듯도 보였다.

문제는 연휴 이후였다. 서울 이태원 지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 지자체에서는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 이름을 공개했고, 평소 성소수자 혐오 여론을 선동했던 국민일보 등의 보수 언론은 클럽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올린 게시물을 퍼다가 악의적으로 ‘게이클럽’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알리기 시작했다. 언론들이 유난을 떠는 동안 지역 보건소는 검진을 받으러 찾아온 이태원 방문자에게 HIV/AIDS 검사를 했냐는 질문을 맥락 없이 던지기까지 했다. 나아가 이태원 방문 여부와 상관없이 성소수자에 대한 토끼사냥이 자행되었다. 이들의 신상을 파헤치고 가십거리로 소모하는 일은 당사자들의 생존을 위협했다. 게이 클럽을 표적하고 이태원 방문자에게 HIV/AIDS 를 특정해서 질문한 것은 예방에 어떤 연관도 없는 전형적인 낙인찍기였다. 찜질방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동선이 잡힌 이후에는 해당 업소가 게이들이 드나들고 성관계를 갖는 공간이라는 폭로가 나오고 그에 대한 가십몰이와 낙인찍기의 수위가 여느 때보다 높아졌다. 연휴 직후 주말에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만 하루에 60 통에 달하는 상담전화가 왔다.

재난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잔혹하게 다가온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지 않는다.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은, 외려 그들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도덕적 공격을 받기 일쑤다. 재난은 일상에서 자행되는 혐오와 불평등이

집약적으로 일어난다. 혐오와 차별의 악순환 속에서 사회적 소수자는 생존의 경계로 밀려난다. 당장 신상 공개의 위협으로 많은 성소수자들이 SNS의 계정을 닫는가 하면, 코로나 19로 불황을 몸으로 겪어온 종로와 이태원 등지의 업소들은 이태원 사태 이후 혐오의 낙인까지 받게 되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들은 축을 세우고 긴급 모임을 가졌다. 대구·경북지역 확진자가 폭증할 당시 신천지에 대한 낙인과 여론을 인지하던 상황에서 자칫하면 성소수자들이 질병의 낙인을 받고 혐오의 집중포화를 받을 것이 자명해 보였다. 혐오와 낙인은 검진이 필요한 대상자를 음지화 할 뿐 예방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HIV/AIDS 인권운동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

긴급한 상황인 만큼 핫라인 상담을 운영하면서 차별 상황에 대응해야 했고, 당장 성소수자들이 검진받는 과정에서 혐오발언이나 차별대우가 드러나고 있어서 이를 긴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지자체와도 협력할 필요가 있었다. 더불어 언론의 혐오선동을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었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동료들에게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알리는 작업이 필요했다.

본 백서는 5월 연휴 직후, 이태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들이 긴급하게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출범하고 6월 초까지 활동해온 기록들을 담고 있다. 백서에는 회의기록을 비롯하여 상담기록, 언론모니터링과 성명·논평, 방역당국과의 소통과정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을 담는데 나아가 대중행동과 외부 기고, 발표를 실었다. 긴급 대책본부는 직접적인 대응 외에도 코로나 19 성소수자 차별경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상담과 차별대응을 통해 소통해온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와의 집담회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백서는 이러한 후속작업까지 담아냈다.

이주민과 대림동에 대한 혐오가 퍼졌을때 이주민 운동이 대응을 하고, 이태원 집단감염에 성소수자 운동이 신속하게 대응한 덕분에 정부는 혐오가 예방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성소수자를 향한 질병의 낙인은 쿠팡 물류공장으로 이어졌다. 질병은 불평등한 환경 속에서

취약한 이들에게 보다 노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질병에 대한 혐오의 연쇄고리는 결국 사회의 불평등을 겪는 이들의 차별 경험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백서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뿐 아니라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장소에 낙인을 찍고 음지화하지 말자는 언어를 만들어낸 과정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한다. 나아가 사회에서 취약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평등을 향한 노력이어야 함을 보이고자 한다. 성소수자와 HIV/AIDS 인권운동이 오랜 시간 외쳐온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평등과 인권은 예방의 지름길이다.’

2020. 12. 2.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부산 성소수자 인권 모임 QIP,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트워크,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땃둥,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3 개 단체)

목차

I. 활동 연혁	7
----------	---

II. 주요 활동정리 및 평가

1. 대책본부 조직 및 운영	9
2. 상담 활동	10
3. 언론 대응	20
4. 방역본부·지자체 대응	56
5. 커뮤니티 대상 홍보	68
6. 서울 외 지역 단체와의 소통	97
7. 활동 총평	101

III. 활동 기록

1. 대책본부 출범 기자회견	105
2. 릴레이 기자회견	112
3. 주간 브리핑	153
4. 상황실 및 전체회의	169
5. 형사사건 대응	171
6. 활동 영상	179

IV. 언론 보도·기고 등

1. 관련 기사 및 인터뷰	181
2. 기고 및 발표문	183
3. 성명·논평	200

V. 부록

1. 성소수자 인권포럼 코로나 19 와 성소수자 세션 자료집	208
2. 성소수자/HIV 인권운동의 경험 조사 결과	239
3. 수다회 / 인터뷰 녹취록	246

I. 활동 연혁

2020. 5. 7. 서울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 사실 알려짐, 게이클럽을 강조하는 언론 보도 이루어짐
2020. 5. 10.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 및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들 초동 미팅,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
2020. 5. 11. 초동대응 단위를 중심으로 서울시 방역당국과 미팅 진행
2020. 5. 12.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출범(이하 ‘대책본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7 개 단체)
2020. 5. 14. 성소수자 커뮤니티 대상 검진독려 광고 게시(~5. 27. 총 6 개 커뮤니티 대상)
2020. 5. 15. 경기도 방역당국과 미팅 진행
2020. 5. 16. 대책본부 1 차 전체회의 진행(총 19 개 단체) (이후 개별 회의 진행은 생략)
1 차 활동브리핑 배포
2020. 5. 19.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미팅 진행
대책본부 홈페이지 개설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
2020. 5. 23. 2 차 활동브리핑 배포
2020. 5. 29. 혐오언론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진행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뉴시스)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혐오선동 기사 시정권고 청원
2020. 6. 4. 3 차 활동브리핑 배포
2020. 8. 11. 대책본부 6 차 전체회의 진행(총 23 개 단체)
2020. 8. 22. 제 12 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코로나 19 와 성소수자’ 세션 진행
2020. 9. - 11. 관련 형사사건 대응 및 서울시와 지속적인 소통
2020. 12. 백서 발간

II. 주요 활동정리 및 평가

1. 대책본부 조직 및 운영

○ 총 23 개 단체로 구성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부산 성소수자 인권 모임 QIP,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웍스,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땃똥,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상황실을 설치, 매일 관련 상황 점검 및 실무진행. 상황실은 총 8 개 단체로 구성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부산 성소수자 인권 모임 QI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2. 상담활동

1) 상담창구 운영

- 각 단체별로 아래와 같이 상담창구를 운영. 주요 상담 건에 대해서는 상황실을 통해 공유 및 필요시 공공기관에 연계함.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09~18 시)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13-20 시)
 -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010-2164-1201 (11-19 시/월 휴무)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땡동 02-924-1227 (11-21 시/일, 월 휴무)
- 총 90 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됨. 자가격리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 직장 등에서의 아우팅 우려, 검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
- 서울시에서는 5. 12.부터 코로나 19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을 운영. 상담 건 중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서울시 인권담당관실에 연계하였음
- 서울시 인권담당관실 연계 3 건에 대해서는 관련된 시정조치가 이루어짐
 - (1) 용산구 보건소 검진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 : 문제점 전달 및 담당자 교육
 - (2) 은평구 보건소 검진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익명검사 지침 재전달
 - (3) 서울시청 공무원의 혐오선동 기고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2) 주요 상담 사례 정리

상담 단체	일시/ 건수	주요 내용
친구사이 (대책본부 활동 이전 상담)	5/7 : 2 건	확진자 2 인 상담 진행: 심리 불안에 대한 상담. 검진 및 확진 후 과정에서 인권침해. 고용상황 관련 상담
	5/9~15: 65 건	전화/온라인 상담 : 65 건 자가격리 조치에 대한 문의와 피해 호소 - 41 건 검진 후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불안, 두려움 호소 - 7 건 직장 내 아우팅 관련 상담 (예상 될 상황에 대한 우려 중심) - 10 건 HIV 관련 - 2 건 , SNS 상 괴롭힘 - 1 건 파트너 관련 -1 건, 언론보도 -1 건 개인정보노출,동선공개-2
대책본부 (땡동, 알, 친구사이, 행성인 통합)	5/15~6/11 : 약 30 건	상담유형 1. 코로나 19 확진자의 주거지, 직장명 등이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건
		상담유형 2. 코로나 19 검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요청 (익명검사, 안전하게 검진이 가능한지 등)
		상담유형 3. 다니는 학교(유학생 포함)나 일터에서 코로나 19 및 이태원 클럽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지나친 질문을 하는 상황에 대한 건
		상담유형 4.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이의 가족이 걱정이 되어,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건

		상담유형 5.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할 때, 일터나 학교, 혹은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되는 상황에 대한 건
		상담유형 6. 자가격리 조치의 기준이나 고지가 시시때때로 변하고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건
		상담유형 7. DUR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상황)이 동의 없이 공개되는 상황에 대한 건
		상담유형 8. 코로나 19 치료와 무관한 HIV 감염사실이 아우팅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건
		상담유형 9. 코로나 19 로 일부 국가의 출입국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해외에서 진행하던 HIV 치료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건
		상담유형 10. 코로나 19 로 해외 일부 국가의 출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HIV 치료가 어려워진 미등록 이주민의 상담 건
		상담유형 11. 다른 진료/치료가 필요해서 찾아가던 병원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했던 건
		상담유형 12. 성소수자 업소가 입은 피해상황에 대한 상담 건
		상담유형 13. 클럽에 계란 투척, 라커칠 등 손괴, 증오범죄 대응에 대한 상담 건

3) 인권침해 설문조사

- 5 월 3 주차가 지나며 긴급대응을 요하는 상담 사례는 줄어 들음. 대신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이 직장 등에 복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아우팅,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가 우려됨. 이에 다음과 같이 코로나 19 로 인해 인권침해를 겪은 성소수자들의 사례를 조사하고 대응을 논의하였음.

[설문] 코로나 19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례 설문 -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코로나 19 로 우리의 일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코로나 상황 초기 일부 언론 보도는 자발적 검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와 동선을 노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치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일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는 코로나 19 로 인권침해를 겪은 성소수자 여러분들의 사례를 모으고자 합니다. 취합된 경험은 향후 인권침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역당국 및 지자체 대응에 활용하고, 언론 등에 알리는 대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설문 기간 : 2020-05-22~2020-06-07

▶ 설문 링크: <https://bit.ly/covid19queerreport>

▶문의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

코로나19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례설문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설문 기간
2020년 5월 22일(금)
~ 2020년 6월 7일(일)

설문 링크
bit.ly/covid19queerreport

문의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코로나 상황 초기 일부 언론 보도는 자발적 검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와 동선을 노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치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동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권침해를 겪은 성소수자 여러분의 사례를 모으고자 합니다. 수집된 경험은 향후 인권침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역당국 및 지자체 대응에 활용하고, 언론 등에 알리는 데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Survey on the Violations of Queer People's Rights During COVID-19

Please Share
Your Story!

Timeline
2020-05-22
~ 2020-06-07

Survey Link
bit.ly/covid19queerreport

Contact
Queer Action Against COVID-19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

The negative media coverage of the Itaewon case made voluntary testing difficult for queer people. The local government's response to contain the virus resulted in the inappropriate disclosure of the private information and movements of the confirmed patients and their contacts. The infringement on personal privacy created barriers for the queer communities to take actions to ensure their health and safety.

Queer Action Against COVID-19 will collect stories of queer people in Korea who experienced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COVID-19. We will create a report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 of queer people after compiling the stories from the survey. This report will allow us to take proper measures against the quarantine authorities and the local government while raising awareness on the experience of queer people in the media.

We hope that many of you will participate in the survey!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Queer Action Against COVID-19

■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사례유형 1	- 학교 내 커밍아웃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과 조롱, 괴롭힘 경험
성소수자가 커밍아웃한 공간 안에서 겪은 비난과 조롱 경험	‘이태원 잘 다녀왔니?, 너도 수면방, 클럽다니니?’ ‘동성간 성관계를 하면 에이즈와 코로나가 한 번에 함께 걸린다.’는 비과학적인 말들
사례유형 2	- 대학생 앱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 글
온라인 커뮤니티, 성소수자 커뮤니티 등에서 비난, 혐오표현	- SNS 상이나 일반인들의 대화 등에서 지속되는 비난에 대한 스트레스 - 성소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호모포비아들이 들어와 욕을 하거나 ‘FUCK LGBT COMMUNITY’, ‘동성애 정신병’ 이라는

	표현을 씀.
사례유형 3	- 검진 과정에서 보건소 담당 직원이 클럽 방문자로 바로 얘기하는 것이 불편했음. 접촉자 혹은 다른 명칭도 가능했음에도, 클럽 방문자라는 낙인을 씌우는 듯 했음 - 검진 후 음성이 나왔음. 그렇지만 이후 치과나 피부과 등 모든 병원에 내원 후 접수를 하면 코로나인데 괜찮냐는 질문이 지속되었음. 2 주 자가격리 이후 였는데도 코로나로 인한 기록이 연결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정신적 스트레스 존재 - 음성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회사에 검진 상황을 통보한 경우. - 음성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조치와 함께 HIV 감염여부 질문 받음 - 역학조사 과정에서 보건소에서는 검진 방문자의 성적지향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배려나 주의가 없었음
선별 검사 과정 및 검진 이후 상황	
사례유형 4	- 국민일보의 게이 클럽으로 명명된 최초 보도로 인해 클럽 방문자들이 검진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후 직장과 가족 등에 커밍아웃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너무 컸음.
언론보도	

	- 주요 언론보도가 단순 클럽에서의 확산이 아닌 게이클럽에서의 확산이라는 점에 너무 초점이 맞추어져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분위기인데 더 가중되는 것으로 보임 - 머니투데이, 뉴시스, 뉴스 1, 국민일보 보도가 가장 문제. 개인정보를 과하게 파헤쳐서 자극적인 기사제목으로 대중을 유인하여 동성애 혐오를 부추기는 언론답지 않은 행동을 계속 방관하는 사회와 정책이 문제
사례유형 5	- 당시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해고조치 당함. 가족들에게 거짓말하고 눈치보이고 너무 힘들었음 - 클럽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직장에서 ‘너도 게이냐, 이태원 다니냐’며 직장 내에서 희롱에 가까운 말을 들음 - 클럽 방문 후 검진 사실에 대해 직장 내에서 팀장이 주변 직원들에게 소문 냄. 음성으로 나왔으나 이미 퍼진 소문으로 인해 직장 내 근무가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
직장 및 단기 근무지	
사례유형 6	- 개인적인 일로 불안증세가 있었고 1년 동안 병원을 다니며 약을 복용하여 불안증세가 개선되었으나 이태원 클럽 발 언론보도로 인한 혐오와 비난 발언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더 해짐
정신건강	

4) 수다회

- 인권침해사례 조사에 더해 확진자,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검진, 치료, 격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을 듣는 수다회 자리를 마련함
- 일시 /장소 : 2020. 7. 24.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실
- 참석자 : 기진, 다니주누, 소주, 웅, 종걸, 타리 (이상 긴급 대책본부), 슈수, 터울
- 내용 : 부록 수다회 녹취록 참조

5) 상담활동 평가

- 평시 상담활동을 진행하는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 관련 상담창구로 홍보하여 상담 진행. 4 개 단체 (땡동, 친구사이, 커뮤니티 알, 행성인) 에서 코로나 관련 전반을 다루는 상담 접수. 접수된 코로나 관련 상담 건 중 실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대책본부 상황실에 연계 받아 대응 진행.
- 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소통하는 대책본부 내 상황실의 역할로 실제 사례에 대한 대응으로 이어짐.
- 실제 대응이 필요한 사례나 사연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상담 활동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성소수자들이 겪은 다양한 고민,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던 계기로 작용
- 상담 경로나 시간의 한계. 전국 지역의 사례 접수의 어려움도 존재함
- 인권침해 상담과 별개로 필요한 상담에 대한 연계는 가능했으나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함

※ 별첨 : 상담 시 참고자료 - 법률적 쟁점

1. 확진자의 주소, 직장명 등 상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문제 없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 3. 14.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에서 직장명, 세부주소 등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함. 다만 직장 내 불특정 다수 전파 가능성 있을 때는 직장명 공개 가능. 이후 4. 20. 개정된 안내에 따라 14 일이 지난 정보는 삭제처리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 제 2 호는 개인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외에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함
=> 언론사가 공개되지 않은 주소, 직장명 등을 보도하거나 다른 정보를 통해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 조 제 5 호에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한 행위
=> 지자체, 방역당국이 누설한 경우라면 감염병예방법 제 73 조 비밀누설금지 위반에도 해당함(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타인이 동의 없이 나의 성적지향 및 기타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위법한가?

- 동의없이 개인의 성적지향을 누설하는 아우팅은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대법원 2007 도 5077 판결 참조)
- 그 외 개인정보 누설 역시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
- 만일 누설자가 공무원, 회사 임직원 등 개인정보처리자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 71 조 제 5 호 위반(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도 성립함
- 한편 개인의 구체적인 신상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주어진 정보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함

3.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방법은?

- 언론중재위원회 신고할 수 있음. 허위, 왜곡, 과장 보도,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 조정/중재 신청 가능. 가능한 구제방법으로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등 방법이 있음
- 방송이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음

4. 회사에서 코로나 19 감염 내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한다면?

- 코로나 19 감염이나 성소수자인 것은 해고 사유가 되지 않음. 따라서 사직 권고에 응할 의무는 없음. 만일 자진해서 사직서를 쓸 경우 추후에 다투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응하지 않는 것이 좋음
- 권고사직을 안 따른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른 부당해고임.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5. 집합금지, 대면접촉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받는지

- 행정명령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 47 조 제 3 호(입원 또는 격리)위반으로 1 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제 46 조(건강진단의무), 제 49 조(집합금지) 위반으로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6. 역학 조사 시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일부 동선을 비공개해도 되는지

- 감염병예방법 제 18 조는 역학조사에서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 만일 이를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 79 조에 의해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3. 언론대응

1) 인터뷰 대응

■ 인터뷰 요청에 대한 대응

-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인터뷰 요청을 일원화.
- 무지개행동 소속단체에 관련 인터뷰가 들어올 경우 대책본부로 인터뷰 요청 전달
- 대책본부 상황실 회의마다 인터뷰 요청을 확인하고, 담당자 배정 및 어떤 내용과 톤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 논의.
- 사후 인터뷰 기사 링크 등을 취합해서 정리.

■ 인터뷰 기사들에 대해서는<IV. 언론 보도·기고 등> 참조

■ 인터뷰 진행에 대한 평가

- 이태원 집단 감염 직후 대책본부에서 인터뷰 요청에 빠르게 대응해서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혐오와 낙인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었음.

2) 언론모니터링

가) 모니터링 취지

- 이태원 집단 감염 이후 게이 클럽에 언론들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언론의 성소수자 혐오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
- 더불어 코로나 19 에 대한 낙인이 질병에 대한 혐오에 취약한 커뮤니티의 불안을 높이고 여론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 언론의 혐오선동 비판에서 나아가 커뮤니티 차원의 적극적인 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나) 모니터링 방식

- 국민일보, 크리스찬투데이 등 의도부터 반동성애와 반인권을 표방해온 언론은 모니터링 매체에서 제외함.
- 특정 키워드(업소명 노출, 짬방 등)에 다량의 기사들이 나올 경우 해당 키워드와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관점을 논평의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메이저 언론을 대상으로 언론비평.
- 기사와 뉴스의 혐오적 표현이 심하고 차별적인 내용을 적나라하게 다뤄 인권침해의 소지가 클 경우 언론사에 항의하거나 삭제를 요청하는 등 개입의 수위를 높임.
- 짬방과 같이 커뮤니티에서도 논쟁이 있고 적극적인 반박이 쉽지 않을 경우, 커뮤니티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
- 메시지를 표명할 뿐 아니라 문제 있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에도 항의를 진행함. 항의 방식과 결과를 모니터링 내용에 넣음.
- 활동가들의 언론 기고나 인권친화적 관점의 기사들을 소개하면서 혐오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님을, 예방과 인권의 방향을 환기시킴.
- 대책본부 결성 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 주 동안 거의 매일 언론 모니터링을 진행함. 이후 이태원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면서 빈도를 느슨하게 하며 모니터링을 진행.
- 모니터링 기록을 바탕으로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 언론위에 악의적 기사들을 진정 청원할 수 있었음.

다) 모니터링 진행 내용

[언론모니터링] 매일경제 기사에 대한 의견

13 일 매일경제 인터넷뉴스에 게재된 기사 '[단독] 이태원 이어 종로 男성소수자 모임 장소' 서 확진자 급증...정부 집합금지명령 `구멍' 관련한 의견입니다.

해당 기사는 단독취재를 표기하면서 확진자들이 다녀간 업소를 남성 성소수자 모임장소로 열거하는데, 어떤 취지로 그렇게 정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사는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자가 종로를 방문했다고 밝힙니다. 더불어 확진자들이 다녀간 업소명을 밝히고, 이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미팅을 갖는 것들이 감염에 취약하다고 방역에 중점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사는 일차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아지는 상황이 클럽 외에도 소주방과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명령조치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하지만 문제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최근 확진자들이 다녀간 장소들이 성소수자 업소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일반적인 유흥의 방식을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로 좁힘으로써 기사는 코로나 19 의 전파가 성소수자의 만남 장소를 운영했던 것에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호도합니다.

3. 이 과정에 기사는 업소들을 나란히 병기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업계’의 이야기를 수차례 전합니다.(‘종로, 이태원 성소수자 업소들은 정부의 단속이 심해지자 신촌으로 옮겨 모임을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4. 그 결과 일차적인 기사의 문제의식은 성소수자 모임이 이뤄지는 장소에 방역에 중점을 뒤야 한다는(집합금지명령) 주장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 19 예방에 있어 특정 집단을 표적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진 받고 예방하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성소수자의 만남 장소와 문화에 대한 정보전달을 염두에 두더라도 아직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소명에 성소수자 업소인지의 여부를 병기하는 것은 오히려 질병에 대한 우려를 성소수자에 대한 가십으로 전락시키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해당 기사를 ‘단독’으로 붙여 메인 화면에 올린 것은 코로나를 빌미로 성소수자를 가십화하고 낙인찍는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12 일 기자회견장은 2 차 긴급호소문에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보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에 부응하지 않을뿐더러 한국기자협회 인권언론보도준칙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밝히고 있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키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적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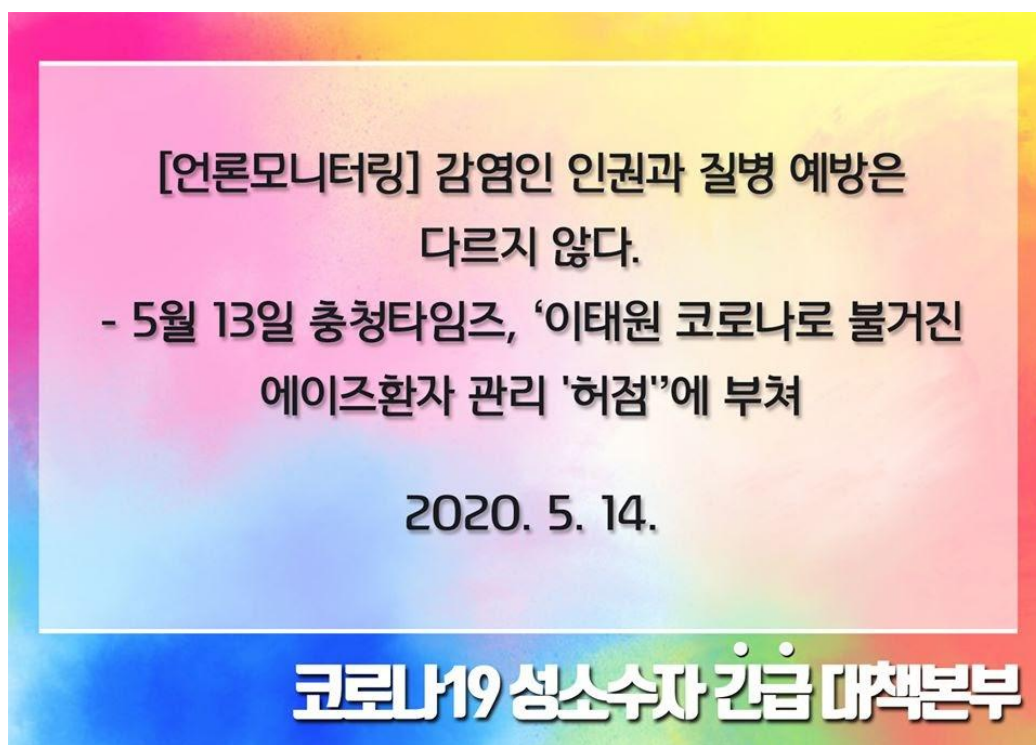
하여 해당 기사에 대한 삭제를 요청합니다.

향후에 차별과 혐오 없는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13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해당 내용은 매일경제 대표메일과 기자 메일로도 송부했습니다.



[언론모니터링] 감염인 인권과 질병 예방은 다르지 않다.

- 5 월 13 일 충청타임즈, '이태원 코로나로 불거진 에이즈환자 관리 '허점''에 부쳐

충청타임즈가 5 월 13 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 '이태원 코로나로 불거진 에이즈환자 관리 '허점''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사는 충북도내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검사자 중 한명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고 밝힙니다. 결론적으로 기사는 지자체 HIV 감염인에 관리에 대한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기사 워딩을 바로잡으면 HIV 와 AIDS 는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HIV 는 후천성면역결핍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이름이고, AIDS 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증상이 나타나거나 특정한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여 검사자에게 이러한 증상과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AIDS 환자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HIV 감염인이든 AIDS 환자이든 치료를 받고 사회에 살아가는데 본인의 개인권을 보장받고 사회적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의 논지는 아래의 문제가 있습니다.

1. 기사는 보건당국이 코로나 검사를 했던 보건당국이 검사자가 HIV 감염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음을 의료체계의 구멍이라고 판단합니다.

2. 물론 검사 현장에서 의료진은 피검사자에게 기저질환을 묻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답하는 것은 피검사자의 의사와 자율성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확진자의 경우 구체적인 질환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치료에 참고를 위해 질문하는 것이지만, 질병에 따른 어떤 차별도 해선 안 됩니다.)

3. 기사는 HIV/AIDS 관련 제도와 질병관리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1) 전파예방보다 감염인의 상담 위주로 이뤄지는 점, 2) 검진기록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점, 3) 환자의 치료나 지역사회 전파보다 환자의 신분을 보호하는데 급급해한다는 점.

위의 관점은 HIV/AIDS 를 바라보는 전제가 초기 HIV/AIDS 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관점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의학적으로 HIV/AIDS 는 코로나와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없습니다. 먼저 치료제의 개발로 치료약을 꾸준히 먹은 감염인은 바이러스가 거의 검출되지 않으며, 비감염인과 비슷한 예상수명을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PrEP 과 같은 HIV 예방법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도 특정 대상과 행위로 묶어내서 공격하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질병을 음지화하고 사회구성원을 단속하고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익명검사와 치료는 감염인을 관리와 감시대상으로 포획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점에서도 가장 과학적인 예방법으로 인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본 기사는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전무할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가장 문제적인 부분은 환자의 신분 보호 및 비밀보장 vs 전파예방이 서로 반대되는 항처럼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질병도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질병당사자를 낙인찍는다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을 숨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이들이 능동적으로 예방과 치료를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중앙보건당국들이 입을 모아 ‘혐오와 차별은 방역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는 위의 기사가 비과학적 관점으로 질병을 접근할 뿐 아니라, 그 태도 또한 차별적이라는 점에 기사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언론사 항의와 제소 등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질병을 차별의 도구로 만들지 말기를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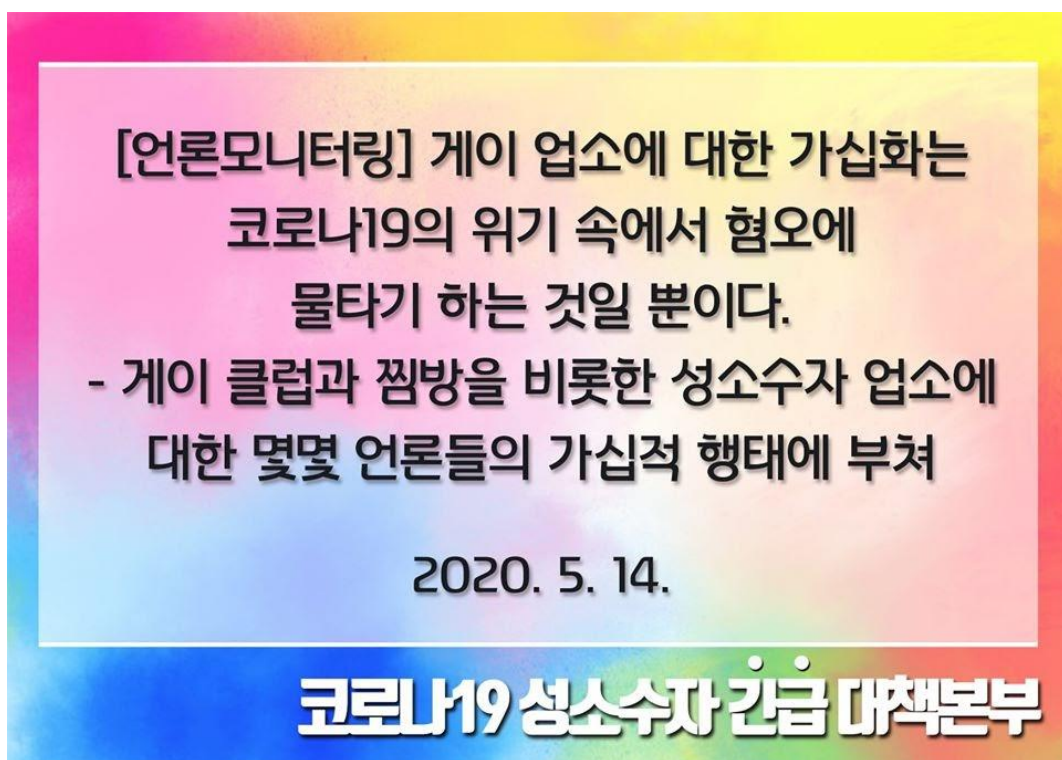
무엇을 질병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사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질병을 가십으로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있을지,

언론의 해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2020. 5. 14.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언론모니터링] 게이 업소에 대한 가십화는 코로나 19 의 위기 속에서 혐오에 몰타기 하는 것일 뿐이다.

- 게이 클럽과 찜방을 비롯한 성소수자 업소에 대한 몇몇 언론들의 가십적 행태에 부쳐

최근 코로나 19 를 키워드 삼아 성소수자 업소를 전시하는데 급급한 기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나 국민일보와 같이 대놓고 성소수자를 반대하고 혐오하는 매체들 뿐 아니라, 뉴스 1(김학진기자, "45 세 이상 똥보 오지 말라"...'찜방' 블랙수면방 주말엔 바글바글, 5 월 10 일), 서울신문(이보희기자, “똥보 출입금지” 블랙수면방 ‘찜방’의 실체, 5 월 10 일), 머니투데이(이동우, 김사무엘 기자, 커튼만 쳐진 컴컴한 방, 5 년전 차마 못쓴 블랙수면방 취재기, 5 월 12 일) 등 많은 주류언론들이 성소수자 업소를 자극적인 가십거리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매우 문제적이며 우려스럽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19 의 전파방식을 이야기하며 성소수자들이 만나는 공간의 열악함과 혐오함을

언급합니다. 익명으로 만나고 성적으로 빈번히 접촉하는 만남의 형식도 말합니다. 나아가 성소수자들이 만나는 공간이 생활공간의 내부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암시하며 위협을 더합니다.

이는 오래전 성소수자를 웃음거리로 대상화하고 전시했던 황색언론과 찌라시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인터넷 언론이 보다 노출에 용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업소명과 행태 등을 극단적이고 자극적으로 설명하는 점일 것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19 위기는 저들이 저열한 기사를 낼 수 있는 명분으로 쓰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들은 게이남성들의 주요 동선과 방문 업소를 나열하고 이들이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 굳이 묘사합니다.

여기에 ‘언론’이라는 매체는 저들의 이야기를 코로나 19 위기에 필요한 정보인 양 포장합니다. 외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과 장면들은 르포와 단독취재 등의 그럴싸한 조명을 받아 버젓이 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이는 기자들이 경쟁적으로 질병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경계하고 밀어내도록 하는 동력이 됩니다.

이들의 태도는 질병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혐오를 집어넣고 여론 선동의 자극적 내용들을 집어넣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질병에 대한 의식은 제쳐두고 불안과 분노를 소수자를 향한 비난의 불쏘시개로 소모합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은 성소수자들의 만남이 이뤄지는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소거한 채 이들을 단지 가십거리로 증발시킵니다. 그것은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성소수자를 배척하고 고립시킵니다.

이에 우리는 질병에 대한 불안을 사회적 소수자 차별과 배척으로 전가하는 언론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코로나 19의 위기에 대처하는 언론의 사명을 자각하길 바랍니다.

언론의 품격을 지키기 바랍니다.

당장 황색 선전을 멈추십시오.

추신: 커뮤니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성소수자가 경찰력에 의해 연행되고 처벌대상이 되었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성소수자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환경 속에서 만남이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뤄졌으리라 유추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크루징 문화라고 부르는 일회적 만남, 욕구를 풀기 위한 익명의 만남에 대한 비난의 이면에는 그러한 만남과 장소를 강제하다시피 했던 조건과 환경이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만남이 음지화되는 가운데 장소는 위생적으로 관리되기 어렵고, 질병에 취약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성소수자의 만남과 장소를 ‘치부’로 바라보는 관점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음지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다양한 만남의 모델과 장소의 질서를 만들며 공동체의 역사를 일궈왔습니다. 아직 그것은 완결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많은 논쟁들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만남의 환경과 스킨십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클럽과 찜방과 같은 우리의 장소들은 그저 가십으로 소모하거나 법의 잣대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외부의 단속과 비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성소수자임을 자각하고 사람을 만나고자 고립을 깨고 외로움을 나누기 위해 밖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는 내가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구축하고 만들고 요청해야 할까요? 어떤 이야기를 더 해야 할까요?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서 성소수자로서 우리의 복잡하고 입체적인 마음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치부를 그저 치부로 남겨두며 부끄러워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것이 왜 치부일 수밖에 없었는지, 왜 치부로 지목되고 낙인찍혀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시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2020. 5. 14.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언론 브리핑]

5 월 11 일 디지털뉴스제작팀 엠빅뉴스 째방 관련 영상 관련 항의공문 보냈습니다. 자극적인 편집을 인지함을 확인했으며, 해당 영상을 모든 플랫폼에서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MBC 로부터 성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인권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하며, 겸허히 여론을 수용하고, 더욱 발전적인 뉴스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5 월 13 일 매일경제 인터넷뉴스 '[단독] 이태원 이어 종로 男성소수자모임장소서 확진자 급증...'
항의메일 보내고 사과메일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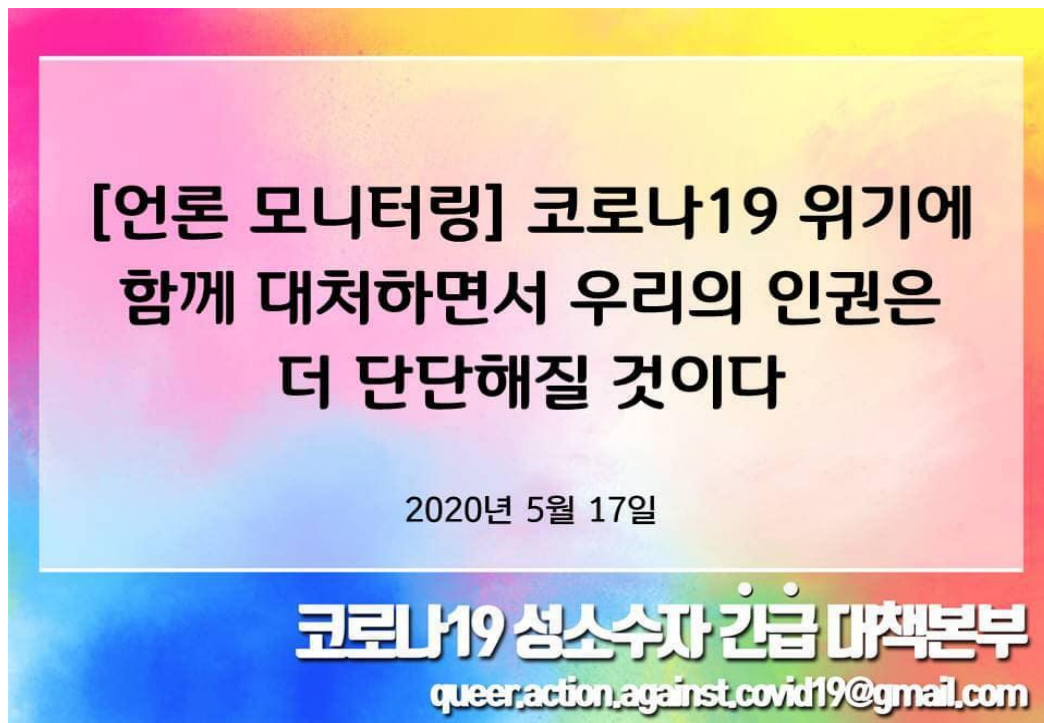
5 월 13 일 mbc 뉴스외전 권순표 앵커는 이태원 방문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성애자를 가리켜 '성적 취향이 정상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설령 은연 중에 나온 표현이라도 '정상'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공영방송 앵커로서 적절치 않은 언사입니다.

5 월 14 일 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 계정은 이태원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재확산과 관련하여 검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가운데 '혐오와 비난을 잠시 미뤄두고'라는 어구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뤄두고'는 '멈추고'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표현상 무의식적으로 나온 실수라고 할지라도 미뤄두는 것과 멈추는 것은 너무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단일여당으로서 혐오와 차별 등에 대한 태도를 기술했다는 것은 사소한 문장일지라도 절대로 가볍게 대중들에게 닿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평상시에는 혐오와 차별을 용인한다는 원치 않는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향후에도 입장표명시 단어와 표현에 신경쓰길 바랍니다.

5 월 14 일 강경화 외교부장은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의 대담프로그램에서 '정체성에 차별과 편견을 갖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한국사회는)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합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게 성소수자의 위상은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것과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 사이 어디쯤에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차별과 혐오를 어떻게 반대하고 있나요? 성소수자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한 자리에 모든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 5. 15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언론모니터링] 코로나 19 위기에 함께 대처하면서 우리의 인권은 더 단단해질 것이다.

오늘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아이다호)입니다. 이 날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목록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하며 제정되었습니다. 아이다호 30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어둠을 견디고 함께 길을 더듬어가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 모니터링 활동은 코로나 19의 확산 상황에서 성소수자를 표적 삼고 자극적으로 가십화하며 혐오여론을 선동하는 언론들에 대한 항의와 시정 요청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대항논리를 제공하여 누구라도 혐오논리에 위축되고 고립되지 않기를 바라기에 활동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자체적인 메세지 외에도 언론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혐오와 차별이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막을 뿐 아니라, 질병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한 많은 기사와 논평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미디어오늘이 발빠르게 제작한 ‘인권 짓밟고 방역 도움 안되는 인사이트 위키텐트리’(5.10)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문 방송 모니터 보고서 ‘국민일보의 강제아우팅, 누구를 위한 보도인가’(5.12) 는 언론이 잘못된 관점과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혐오를 선동하는가를 상세하게 보도해주었습니다.

한겨레 칼럼 ‘[세상읽기] 코로나 19: ‘미등록’과 ‘커뮤니티’의 탄생’(5.14)은 지금의 상황이 가져온 변화와 그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정부가 ‘불법 체류자’ 대신 ‘미등록’과 ‘비정규’의 위당을 사용하고, ‘커뮤니티’를 사용하여 성소수자 공동체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점은 재난 상황 속에서 예방에 총력하는 보건당국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익명검사를 전국 단위로 실시한 것은 강제적인 감시와 관리보다 인권이 예방의 지름길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HIV/AIDS 운동이 외쳐온 구호 ‘인권이 예방의 지름길’의 늦은 성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등 인권기본제도들을 미루지 않고 마련했다라면 검진대상자들이 불안과 차별 속에 고립되는 가운데 국가가 혐오와 차별에 자제하자고 호소하는 풍경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국가 전체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혐오를 멈추자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은 오로지 ‘안전’과 ‘방역’을 위해서만 접근된다는 점에 아쉬움이 크기도 합니다. 성소수자 공동체가 호출된 배경은 위험의 감축을 위한 수세적인 상황이 작동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공동의 시련을 함께 지나오면서 이후에 어떻게 시민권을 말하고 요청할 수 있는지, 시민권의 기준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과제를 남깁니다. 제도화와 권리 요구는 성소수자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쾌락을 향유하는지와 같은 세부적인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게재된 소설가 김비의 칼럼 ‘김비의 달려라, 오십호(好)- 코로나시대, ‘등록되지 못한 자’의 슬픔을 나누다’는 대책본부뿐 아니라 성소수자인권운동이,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은 커뮤니티가 공존을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많은 영감을 줍니다. 지금 우리의 활동들은 단지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검진 참여만을 위해서, 성소수자들의 권리만을 위해 이뤄지지 않습니다. 질병예방 속에서 우리는 누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누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더 위축되고 고립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우리의 노력들은 (미등록)이주민과 난민, 장애인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2020. 5. 17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코로나 19 마저 악용...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

<http://www.ccdm.or.kr/xe/watch/295143>

[미디어오늘] 인권 짓밟고 방역 도움 안되는 인사이트 위키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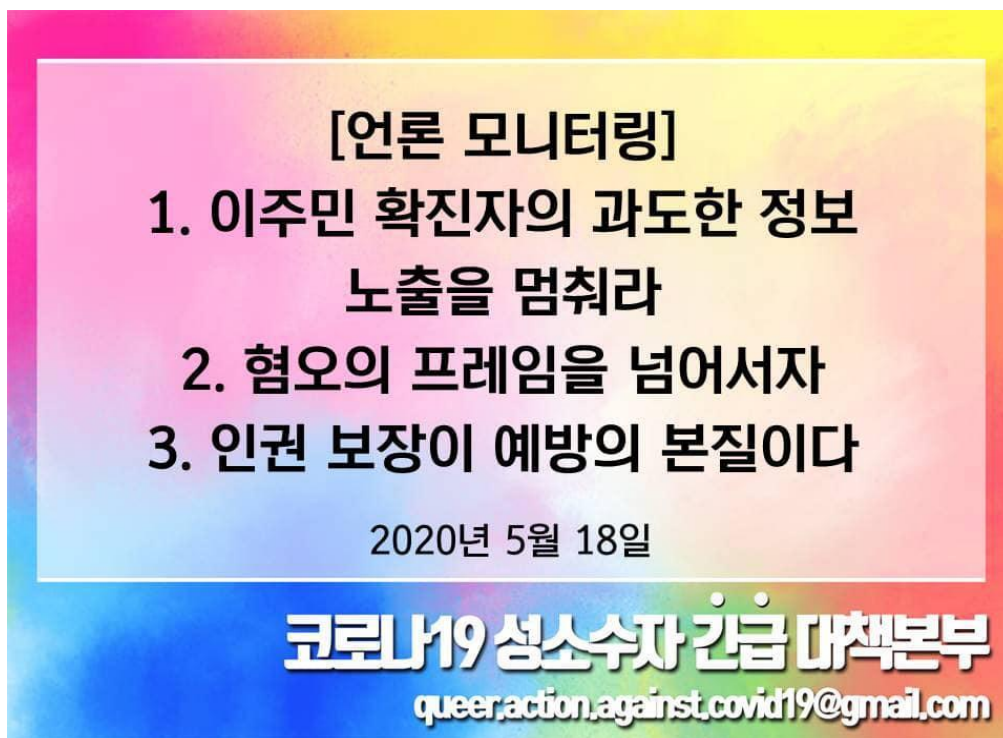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

[세상읽기] 코로나 19: '미등록'과 '커뮤니티'의 탄생 / 황필규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4978.html>

[한겨레]코로나 시대, '등록되지 못한 자'의 슬픔을 나누다 / 김비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945211.html



[2020. 5. 18 언론모니터링]

1. 이주민 확진자의 과도한 정보 노출을 멈춰라

코로나 19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증가한 이후 최근에는 이태원 방문 외국인의 외국인 국적, 나이, 직장지역 등 세부적인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이 특별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지한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4.12 자)에 따르면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한다고 밝힙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몇몇 지자체의 경우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면서 그것을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 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는 지역주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을 당사자의 정보로 봉합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공개된 정보가 예방에 필요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지목된 이들이 추적되고 고립되기 쉬우며, 질병과

관련한 낙인의 타깃으로 지목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 속에서 확진자는 자국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일터에서의 불이익에 쉽게 노출됩니다.

우리는 확진자의 안녕과 건강을 빌며, 질병에 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점에 대해 지역당국에 항의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지역와 언론의 과도한 정보노출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2. 혐오의 프레임을 넘어서자

5 월 17 일 SBS 8 시 뉴스의 기획취재 '성소수자 행사 대폭 취소..."혐오가 코로나 키운다"'는 혐오가 사회적 소수자의 일상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그것의 해악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태원 사태 이후 늘어난 혐오여론 때문에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서 기획한 아이다호데이 행사가 축소되었다는 내용은 잘못된 진단입니다. 기존 기획한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 캠페인과 광고로 전환한 것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함이지, 혐오에 밀린 차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외려 이번 아이다호데이의 계획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혐오에 맞서 인권을 이야기하겠다는 무지개행동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기획 취재를 준비하던 당시부터 SBS 뉴스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관점으로 기획에 접근한다고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우리는 SBS 의 선한 의도와 노고를 불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혐오 때문에 성소수자의 신변이 위축된다고 설명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관점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 프레임에 반복적으로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 수 년 동안 성소수자 운동이 외쳐온 혐오 반대는 그 자체로 중요한 구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와 행동은 혐오반대의 수세적인 외침을 넘어섭니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나아가 시민과 비시민, 정상과 비정상,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고 줄 세우는 기준을 거스르며 질문합니다. 우리의 운동은 아래에서부터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나갑니다.

성소수자 지지의 메시지는 혐오 반대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요청하건대 취약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인권의 방향을

전달하고 제시할 수 있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인권 보장이 예방의 본질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태원 클럽 코로나 19 집단감염사태가 폭발적·대규모 유행으로 번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체 평가들이 속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 일 SNS 를 통해 방역당국이 집중한 노력으로 코로나 19 전파가 크게 번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엄중식교수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유지한 것으로 전파 방지를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발 빠른 대처로 이번 코로나 19 대응은 여느 정권보다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에서 과도하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고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질병에 많은 이들이 불이익의 우려를 감수하면서도 자발적인 검사에 응하는 것은 나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과 동료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가는 누구도 질병을 이유로, 장애와 노동유형을 이유로, 성적 지향과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의 질서를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권보장과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의 변화가 재난 예방의 본질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2020. 5. 18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대책본부 중간 모니터링]
[성명] 그것은 예방도 뉴스도
아니다.**

2020년 5월 20일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

[대책본부 중간 모니터링] [성명]그것은 예방도 뉴스도 아니다.

이태원 코로나 19 사태 이후 혐오가 지역사회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연휴 이후 많은 언론들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공식발표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업소 명을 공개를 하는가 하면, ‘게이 업소’라는 식으로 성적지향을 명기하여 질병을 표적했다. 너나없이 이태원 클럽과 연관되는 뉴스 앞에 ‘속보’와 ‘단독취재’를 붙이고 경쟁하는가 하면, 성적 보수주의의 프레임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뤄지는 만남과 관계를 조명한답시고 문란함의 주홍글씨를 새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예방에 대한 노력 없이 그저 코로나 19의 사회적 위기를 성소수자 혐오로 동기부여하며 계속해서 성소수자를 가십화하고 있다. 질병 앞에서 누가 취약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는커녕 사회적 소수자를 노출시키고 이들을 극단적으로 대상화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당신들의 태도는 예방도 정보도 아니다.

이는 지자체와 의료기관 또한 마찬가지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해달라는 중앙보건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자체들은 확진자의 동선을 노골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업소에 ‘게이’를 붙이거나 확진자의 구체적인 직장정보와 국적을 명기하여 보란 듯 전시했다. 확진자라는 이유로

지역사회 주민의 정보를 개인 계정에 게시하고 호응을 구하는 지자체 단체장의 태도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주민을 모독하는 것이며 지역공동체 내부에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언론과 지자체의 과도한 가십화와 낙인찍기는 여론을 악화시킨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 이후 온라인에서는 성소수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포털사이트와 SNS 에는 확진자의 정보가 공공연히 유포되는가 하면, 성소수자 문화를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가짜뉴스들이 범람하기도 했다. 추적 가능한 정보를 자랑이랍시고 게시하는 언론과 지자체의 쌍끌이 속에 정보 유포의 증가는 혐오의 악순환을 부채질한다. 그것은 질병에 대한 분노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분노로, 이들에 대한 언어적·물리적 폭력의 싹을 틔운다.

일련의 혐오선동은 이미 혐오를 민원으로 받아들이고 정치 세력화 되도록 방기해온 한국사회의 오랜 뿌리 위에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와 질병 당사자를 향한 혐오가 어떤 경우에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많은 이들이 체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혐오의 관성은 질병에 낙인을 찍고 사회적 소수자를 엮어 혐오의 시너지를 낸다. 여기에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찬반 문제로 가르고 미뤄온 역사가 바탕한다.

하지만 변화는 있다. 끊임 없는 의견 제시와 협력을 통해 우리는 적어도 보건당국을 통해 개인을 향한 비난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선동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나아가 지금의 노력들이 단순히 방역과 예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회복 이후 사회에 복귀하는 시점에도 차별과 불이익이 용납될 수 없다는 공감대를 만들었다. 그것은 오랜시간 외쳐온 평등과 인권의 요구에 연결되어 있다.

성소수자들에게 자신의 정보를 의도치 않게 노출하는 것은 불이익당할 수 있다는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뉴스도 예방도 아닌 혐오일 뿐이다. 당장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는 혐오를 단호하게 반대해야한다. 혐오와 차별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성소수자의 인권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진단하는 것은 사방으로 변주해나가는 혐오와 차별을 방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태원 클럽 코로나 19 사태가 수습되어간다고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의 근간에 인권의 가치가 작동함을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인권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2020. 5. 20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추신: 커뮤니티를 향한 문장들 2

자금심의 언저리에서

대책본부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자발적 검진을 독려하며 혐오는 어떤 식으로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독려하는 입장에서 온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저항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에게 용기를 내라고 요청 해야만 할까요. 질병 위기 속에 성소수자라는 이름이 바깥에 노출되면 불이익을 받으리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기는 책임의 무게를 달고 사회적 소수자의 몫으로 부여됩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인권운동은 오랫동안 자금심을 주문처럼 외쳤지만 실상 나를 설명하는 언어는 삶의 리스크로 작동하기 쉬웠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드러내기보다 숨기는 편이 편하다고 배웠습니다. 성소수자로서 나를 긍정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결된 드라마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젠더이분법을 거스르고 시민권의 기준을 거부하며 한편으로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토양은 공동체 안에서도 끝나지 않을 불화와 적대의 대상이 되고, 더러는 숨겨야 하는 또 다른 사각지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들의 만남 장소가 표적이 되고 가십이 되는 건 우리가 만나고 관계 맺는 일상이 위험한 정보값으로 휘발되고 쉽게 부정당할 수 있다고 풀이되기도 합니다. 나의 이름은 단어뿐인 공백으로 존재하고 그마저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소문과 가십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누구에게라도 호출되어 조리돌림 당하고 모욕당하기 쉽습니다. 성소수자는 줄곧 부정되고 미뤄져온 합의 대상의 존재로 그려집니다. 사회의 위기를 부추기는 불쏘시개로 전락하여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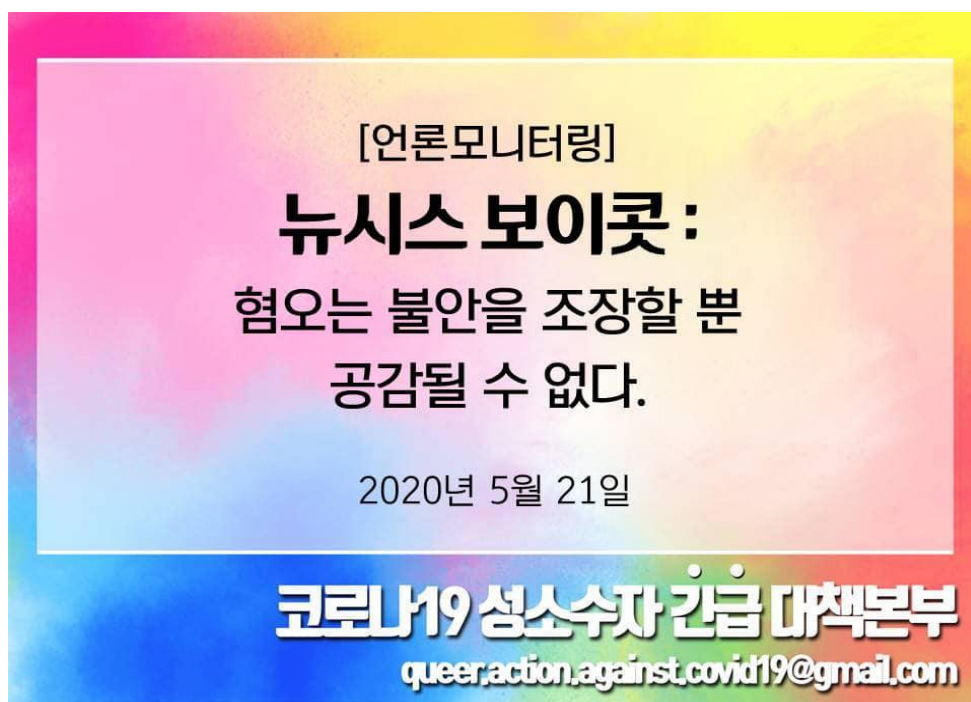
사회구성원으로서 위치는 불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이 부당함이 당장 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용기의 무게를 나 혼자 짊어져야 하는 건 누구라도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자극적인 확진자 동선과 뉴스 속에서 우리는 클럽을 찾은 이들이 가지고 있을 삶의 지층들을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자극적으로 잘려나간 단어들 속에는 오랜만에 안부를 나누는 친구들이 있고, 몇 년 만에 한국을 찾은 이의 새로운 감회도 있을 것입니다. 입원과 입대를 앞둔 이가 있었고, 외로움을 끝내 채우지 못해 밤새 만남을 전전한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서사들은 그동안 학문과 운동의 언어로만 근근히 전해오거나 도시전설처럼 타임라인과 썰로 미끄러지고 줄곧 잊혀져온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게시판과 SNS 에는 클럽 입구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여전히 잠겨 있는 문은 계란세례로 얼룩이 가득하지만, 응원의 문장들도 단단하게 붙어있었습니다. 증오의 얼룩과 응원이 나란히 붙은채 침묵하는 문은 지금의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을 지나면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지만, 겨우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영토는 애시당초 취약함 위에 구축되어 왔다는 것 또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련은 공동체에게 떨치기 어려운 아픔을 남기지만, 깊은 침묵은 그간 납작해지기를 강요하는 규범과 질서들을 거스르며 성소수자로서 살아온 삶의 지층을, 우리를 연결시켜 온 공동체의 무게를 가늠케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무엇이 우리의 연결을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재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강렬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중요한 지지대가 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취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감정과 손길들이 여전히 반짝이며 지금의 어둠을 밝히고 있음을 곳곳에서 목도합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때는 좋았다는 향수만이 남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분노와 절망, 외로움과 체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피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서로의 곁을 지킵시다. 우리는 더 많이 떠돌고, 더 많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언론모니터링] 뉴시스 보이콧 : 혐오는 불안을 조장할 뿐 공감될 수 없다.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는 향후 뉴시스와의 인터뷰 요청 및 기타 협력에 대해 보이콧하고, 다른 방식의 대응을 강구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출범 당시부터 국민일보와 크리스찬투데이 및 종편 언론들에 대해 보이콧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는 대책본부의 자체적인 결정이기에 앞서 오랜 시간동안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커뮤니티가 심각하게 인지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해당 언론들은 인권 지향적인 정보전달에 앞서 혐오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방향성을 노골적으로 전시해왔습니다. 이들이 작성한 기사들은 혐오 선동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의도가 다분했으며, 그것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공분을 사기 충분했습니다.

최근에는 머니투데이와 뉴스원 등의 미디어들까지 성소수자가 위기를 전파하는 집단이라는 논리에 공을 들이며 시민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이들은 혐오가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조의 기사까지 게재하면서 일관된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질병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기삿거리로 소모시킨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머니투데이 계열에 있는 뉴시스의 보도 행태는 심각하게 문제적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태원 확진자 증가시점 이후 기사들을 살펴보면 뉴시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기사 카피로 삼으며 이웃으로서 성소수자 장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가 하면(‘성소수자 전용 헬스장도 휴업...주변 상인들“불안해”’(5.14)), 검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고안한 익명검사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수치만을 가져다가 평가 절하하기도 했습니다.(‘이태원발 코로나 19 확산에도 익명검사 이용 미미’(5.17))

5 월 14 일 천영준기자의 기사 ‘이태원발 코로나 19 검사자 에이즈환자 소문 ‘뒤송송’...충북도 “확인 안돼”’는 코로나 19 방역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HIV 감염인이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갔습니다. 해당 기사는 단지 HIV 감염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낙인찍는데 나아가 지역사회에 질병 혐오를 조장한다는 점에 악질적입니다.

5 월 20 일 박민기기자의 ‘성소수자 커뮤니티, 여전한 즉석 만남...“자제해야” 우려’는 코로나 19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빌어 성소수자들의 만남 자체를 문제 삼고 도덕적 해이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코로나 19 가 성소수자가 확산시키는 것인 양 호도하는 방향으로 은연중에 연결짓는데, 이는 성소수자를 표적해서 질병의 공포를 가중시킨다는 점에 심각한 혐오 선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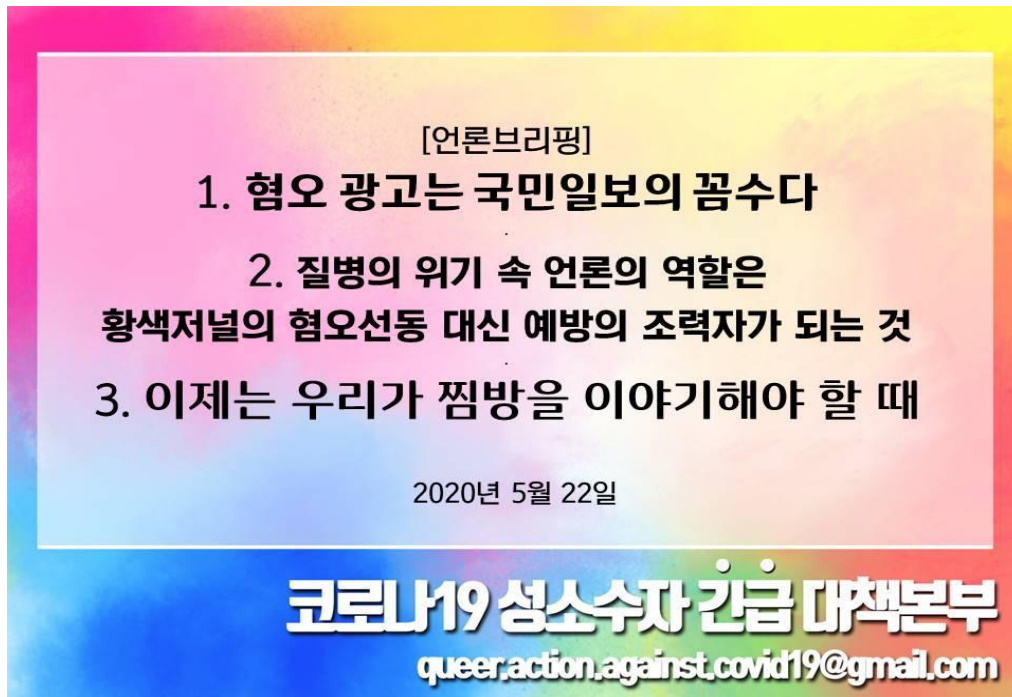
이러한 기사들의 해악은 그것이 일관되게 유지하는 관점에만 있지 않습니다. 해당 기사들에는 보건당국과 성소수자 당사자,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은 찬반양론의 구도 속에 일방적으로 잘라 붙여졌습니다. 이는 인권 지향적 정보전달을 당부하며 인터뷰에 응한 이들의 선의를 모욕하는 것이며 예방에 대한 적극적 협력과 제안을 거스른 채 혐오성 가십에만 집중하겠다는 언론의 의지를 보인 것이기도 합니다.

뉴시스는 홈페이지에 ‘정확하고 깊은 뉴스로 독자와의 공감을 추구합니다’ 라고 의지를 밝힙니다. 하지만 지금 뉴시스가 보이는 행태는 정확하지도 깊지도 않으며, 독자와의 공감은커녕 잘못된 정보와 관점으로 독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합니다. 이에 대책본부는 뉴시스의 성소수자 혐오적인 태도와 예방에 역행하는 태도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 뉴시스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뉴시스는 사과와 함께 해당 기사를 모두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2020. 5. 21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해당 텍스트는 뉴시스 대표메일로 송부했습니다.



[언론브리핑]

1. 혐오 광고는 국민일보의 꿈수다

코로나 19 이태원 확진자가 나온 직후 국민일보의 유명대기자는 단독보도를 전면에 달며 ‘게이’업소를 명기하고 동성애자들이 만나는 공간에 집중했습니다. 백상현기자는 한 술 더 떠 게이 포털사이트 게시판의 글들을 그대로 옮겨 붙여 기사로 내면서 남성 동성애자의 활동 패턴을 알아야 코로나 19 를 막는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일보 노조의 규탄성명이 올라온 직후 해당 언론사의 노골적인 성소수자 혐오선동은 다소 주춤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이후에도 차별금지법 반대 기사를 싣는가 하면, 성소수자 혐오를 멈추라는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식의 논지를 수차례 퍼내며 혐오의

야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기자들의 선동이 내부적으로 견제 받는 동안 염안섭과 소강석 목사, 한휘진 서울시청 공무원등 혐오 인사들의 칼럼을 싣는 등 이들은 동성애 반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일보는 급기야 광고를 활용하여 혐오 여론을 전파합니다. 21 일 뉴스앤조이 기사 ‘돈 되면 어떤 광고든 다 받아 주는 <국민일보>?...'광고는 영업,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건가'”는 국민일보가 싣고 있는 광고 뿐 아니라 이러한 광고들을 싣고 있는 언론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성소수자 반대광고 뿐 아니라 문제적인 목사를 지지하는 광고를 싣는 국민일보의 행태는 지면 낭비일 뿐입니다. 기사 속에서 인터뷰 내용이 언급된 최진봉교수(성공회대)는 ‘이 언론은 돈이면 다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좀 더 정확한 지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일보가 좇는 돈이 해악이라 지탄받는 것은 해당 광고비가 비리와 혐오선동의 온상인 교회와 폭력적인 목사,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에게서 나오는 자본을 바탕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늦게나마 혐오여론을 조장하는 방향성에 반기를 드는 내부 견제집단이 있음을 확인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본부는 혐오선동의 나팔수 역할을 놓지 않는 국민일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동시에 안팎에서 국민일보의 방향에 반기를 들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언론노동자들을 지지합니다.

2. 질병의 위기 속 언론의 역할은 황색저널의 혐오선동 대신 예방의 조력자가 되는 것

코로나 19 이태원 확진자 증가 이후 언론들은 기존에 집중했던 성소수자 인권과 문화를 둘러싼 찬반 프레임을 넘어 게이 남성들의 행태와 이들이 모이는 장소의 특성들을 다루는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접근이 피상적일 뿐 아니라, 전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성소수자 문화를 지목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성소수자들이 만나는 장소와 문화를 버젓이 전시하는 기사는 결국 질병 예방을 위해 환자의 동선과 신상을 대중에게 낱알이 공개함을 미덕으로 삼으며 성소수자들의 집단적인 사회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성소수자 문화가 한국사회의 제도와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는 성소수자의 위상 속에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유흥문화의 구조 위에 발생하는 것임을 무시한 채 성소수자 문화만을 대상화하고 성급하게 갈라냅니다. 이들의 논조는 성적 보수주의와 인종주의 등 정상성의 규범을 강화하고 그 속에서 질병을 단속과 처벌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합니다. 질병에 대한 낙인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주민을 배제하도록 조장하고 방기하는 태도는 사회적 소수자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며 배제하도록 압박하게 된다는 점에 사회적 해악이기도 합니다.

한겨레신문에 기고된 한채운 활동가의 5월 21일자 칼럼 ‘언론은 방역의 방해자인가’는 언론의 접근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가 질병예방 뿐 아니라 사회 공익차원에서도 어떻게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조목조목 분석합니다. 나아가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서 저널은 어떠한 태도와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성적 지향을 구분하지 않으며, 자발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을 낙인찍기보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언론은 동선을 경쟁적으로 공개하는 지자체들을 경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22일자 경향신문 기사 ‘아우팅 막는다더니…일부 지자체, 확진자 특정 가능한 ‘동선 공개’는 예의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질병의 방역 속에서 정보 노출로 피해 받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는 것 또한 언론의 중요할 역할일 것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예방을 위한 저널리즘의 방향을 애써 외면하면서 성소수자와 이주민의 정보를 노골화하고 이들을 도덕적 해이의 프레임으로 속아내는 것을 정의 구현인 양 생각하는 태도가 너무도 아쉬운 요점입니다. 우리는 공익을 위한 언론의 저널리즘 실천을 요구합니다.

3. 이제는 우리가 짊방을 이야기해야 할 때

코로나 19는 전파 특성상 신체 간 밀접한 접촉을 경계하도록 만듭니다. 이는 예방에 있어 물리적 거리두기 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요청하는 근거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또한 거리두기에 소홀한 타인을 경계하는 경향으로 연장됩니다. 질병을 바탕으로 특정 집단과 장소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선동의 먹잇감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태원 확진자 증가 이후 많은 언론들은 게이 사우나, 소위 짬방이라 불리는 장소에 주목했습니다. 게이들이 서로 만나고 모인다는 사실조차 낯설어하는 여론 속에서 성관계를 갖는 구체적인 장소가 가까이 실존한다는 것은 놀라움과 동시에 비난하고 낙인찍기 너무도 쉬운 조건을 형성합니다.

하여 많은 언론들은 앞 다튀 르포와 단독 취재의 소재로 짬방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휴게실과 다르지 않은 공간, 콘돔과 젤이 있어 세이프섹스가 장려되는 공간, 가벼운 터치와 눈길을 주고받으며 반응이 있으면 관계를 하고 거부하면 다른 방으로 가는’ 공간은 새로울 것도, 문란할 것도 없었습니다. 단적으로 최현숙 구술생애사 작가의 22 일 경향신문 칼럼 ‘방역당국은 섹스를 금하라’는 머니투데이의 르포를 살피며 결국 짬방은 ‘문란은 고사하고 착해 빠졌’다고 평합니다. 5 년 묵은 르포를 보면서 드는 ‘실망감’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문장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짬방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과열된 것은 단지 밀접접촉이 빈번한 장소의 성격상 감염병 예방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쉬쉬해온 짬방은 외부의 많은 언론들로 하여금 황색저널리즘의 저열한 논점을 들이대기 용이한 조건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온갖 허무맹랑한 판타지와 망상들이 남발합니다. 그리고 성적 보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단속과 금지의 가치판단이 금세 차고 들어옵니다. 저들의 문장으로 오염된 성소수자의 문화는 부정적으로 평가절하되고 편견에 사로잡히면서 성적 낙인의 순환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여 저들의 입을 통해 낙인과 오욕의 대상이 되어버린 짬방을 우리의 언어로 다시 가져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짬방이 일부 성소수자들만이 가는 공간, 성소수자 당사자들도 싫어하는 공간이라고 방어하는 것은 결국 정상과 비정상,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위계를 인정해온 구조를 내부에서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짬방은 흔한 인상비평처럼 무법지대가 아니며, 무조건 자유로운 관계가 이뤄지는 공간도 아닙니다. 익명성과 일시적인 만남이 빈번하게 이뤄지지만 꼭 그런 관계만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짬방은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장치와 약속들이 배치된 동시에 나이와 체형, 질병유무 등의 위계와 기준이 여전히 작동합니다. 폐쇄적 공간임에도 여기에는 사회의 복잡한 위계와 관계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음지화된 공간이라고 무조건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음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침묵에 부쳐진 채 단속되고 노출되기만을 기다리며 숨는 것 또한 옳은 방향은

아닙니다. 일련의 긴장 속에서 찼방의 이야기는 시작될 것입니다. 어플로 사람을 만나면서도 찼방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는 어떤 취약함이 있으며 그로부터 어떤 쾌락이 실천되는지, 이러한 쾌락은 어떤 위계 속에 구속되거나 일탈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성적 권리와 실천들을 제공할 것인지, 나아가 코로나 19 이후에 찼방과 같은 공간들은 어떤 변화를 겪을지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성적 보수주의의 함정을 경계하며 우리가 그토록 호명해온 한국사회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다시 읽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2020.05.22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기사 링크

[뉴스앤조이] 돈 되면 어떤 광고든 다 받아 주는 <국민일보>?... "광고는 영업,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건가"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96>

[한채윤의 비온 뒤 무지개] 언론은 방역의 방해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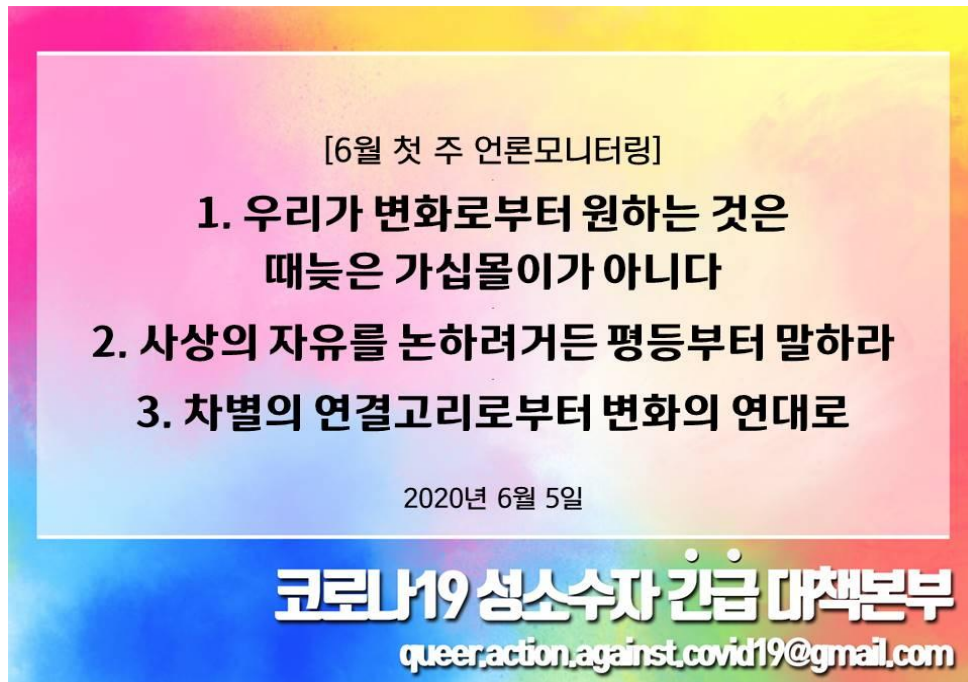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5950.html#csidx9880fe5034d659c8c55234bae1eb0bb>

[경향신문] 아우팅 막는다더니... 일부 지자체, 확진자 특정 가능한 '동선 공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202159025#csidx17b27e8ce7b5636b113fcc279cfef22

[경향신문] 방역당국은 섹스를 금하라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5220300025&code=990100#c2b



[6 월 첫주 언론모니터링]

1. 우리가 변화로부터 원하는 것은 때늦은 가십몰이가 아니다

코로나 19 이태원 확진자 증가 이후 많은 언론들은 게이들의 만남 행태와 장소를 경쟁적으로 노출해 왔습니다. 대책본부의 언론 모니터링이 진행되는동안 언론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그저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기술했던 보수 언론들에도 긴장과 더불어 변화의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5 월 29 일 여성조선이 다룬 게이클럽과 수면방에 대한 기사는 일견 기존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입니다. 업소 공지문을 그대로 옮기거나 익명게시판의 글들을 당사자 입장이랍시고 독자에게 내보이며 게이 남성들의 만남과 공간을 그려내는 모양새는 이전의 것과 크게 차별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중반을 넘어 곧바로 태세전환합니다. 이태원발 코로나가 ‘성소수자 혐오’를 키웠으며 성소수자 편견지수를 인용하는가 하면, 낙인과 혐오성 짙은 가십화와 여론선동에 반대하는

성소수자 인권활동가의 인터뷰를 상세하게 기술하며 앞서 기술한 외설적 내용들에 대립합니다.

그간 조희수를 얻기 위한 자극적 보도의 관성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소수자 혐오와 편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인식한 결과물로 볼 수 있을까요? 냉탕과 온탕의 낙차를 극단적으로 펼쳐내는 기사는 자가당착적 혼종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향후 변화의 과도기적 기사모델로 이어질지, 보수 언론의 새로운 프레임으로 정착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질수록 공론장의 언어들 또한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2. 사상의 자유를 논하려거든 평등부터 말하라

대책본부 언론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주목할만한 변화가 있다면 단연 국민일보 내 자성의 목소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에 이어 ‘국민일보의 건강한 소통을 바라는 차장단’ 역시 지난달 27 일 반성과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입장문들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겠다는 직접적인 위딩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혐오선동에 침묵해온 과거를 반성하고 독자의 비판에 겸허해질 것을 다짐합니다. 다소 소극적이지만 자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태도는 변화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종교국 기자들이 혐오선동을 남발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일보의 내부 구조를 지적합니다. 종교국은 편집국과 달리 다른 일간지와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다보니 검증 시스템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는 종교국이 얼마나 오만하게 혐오선동에 앞장섰을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기존 독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지요.

흥미롭게 뉴스앤조이의 기사 ‘내·외부에서 쏟아지는 <국민일보> 성소수자 혐오 보도 비판…보도 당사자들 "우린 잘못 없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종교국 기자들의 입장을 전합니다. 백상현 기자는 자신의 기사가 무작정 혐오로 몰아세워지는데 대해 불만을 표하면서 ‘혐오는 역사적으로 극심한 탄압을 받고 절대 변하지 않는 속성을 비판했을 때 해당된다’는 나름의 설명을 붙입니다. 유명대기자는 앞의 설명을 보충합니다. ‘나는 혐오하지 않았다. 성경에 입각하면 죄니까, 죄라고 이야기 하는 것… 비판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대면 좋겠다’

따져봅시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혐오의 대상은 절대적인 타자로 수렴합니다. 논리대로라면 혐오라 부를 수 있는 대상은 탄압과 강제 속에 움직일 수 없고 자신의 의사도 표현할 수도 없으며 어떤 욕구나 욕망도 가져서는 안 되는 별거벗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일보는 오랫동안 성소수자를 별거벗겨 적나라하게 들춰 공론장 위에 전시하고 조리돌림 해왔겠지요.

이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성소수자 혐오선동기자라는 타이틀을 못마땅해하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무조건 혐오 딱지를 붙이는 것 아니냐고 되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비판이란 성소수자를 비시민의 위치로 끌어내리고 공론장에서 평등하게 논쟁할 수 있는 자격을 끝없이 박탈시키려는 시도에 다름아닙니다. 그간 써낸 기사들은 혐오하기 위해 성소수자를 모욕하고 비난하며 드러나지 말라고 이야기해온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뒤이은 주장은 성경에 입각해 기사를 쓴 것이지 혐오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밝힙니다. 비판할 수 없고 논쟁할 수 없으며 설득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시장’ 속에서 어떤 것도 나누고 거래하지 않겠다는 모순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혐오 선동이 사회적 소수자를 고립시킨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립을 자처한 이들은 사상의 자유시장 운운하면서 어떤 견제도 받지 않으며 절대적인 가치를 들이밀어 사회적 소수자들을 절대적인 타자로 발가벗기려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성소수자에게 말하고 싶으면 숨지 말고 나오라고 비아냥대지만, 정작 스스로 고립무원을 자처하며 성소수자를 숨은 타자로만 대한 것은 다름아닌 혐오선동의 나팔수들입니다. 공론장에서 제대로 논쟁하고 싶다면 성경 문자주의에 의존하여 기독교계 주류언론이라는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성소수자를 동등한 시민이자 이웃으로 인정하고 논의 테이블에 임하는 성숙함을 보이십시오.

안으로부터 올리는 변화의 신호는 오랜 시간 불신의 벽을 높여온 언론의 윤리를 다시 세우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권운동과 시민사회는 국민일보의 변화를 열망하는 언론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오랜 시간 혐오선동의 주류 언론으로 자리매김했던 국민일보가 ‘사랑·진실·인간’의 가치를 성찰하는 저널리즘의 선두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차별의 연결고리로부터 변화의 연대로

이태원 확진자 증가 이후 확진 장소는 소규모 모임과 일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집단감염 이후 우리는 물류노동자들의 취약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소비자들을 향해 안전한 배송만을 약속하는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6 월 2 일 한겨레모바일 기사 “‘세균 보듯 따가운 시선에 숨도 참아요’ 쿠팡맨의 눈물’은 쿠팡노동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다룹니다. 이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하고 위험할 뿐 아니라 위기와 불황에 가장 먼저 잘려나갈 수 있는 약한고리입니다. 더구나 주민들과도 밀접하게 접촉하는 환경에 있기에 직접적인 혐오와 비난에 가장 많이 노출됩니다.

재난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에 대한 증오로 선동되기 쉽습니다. 대개 그 표적이 되는 이들은 일상속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던 외부자들, 재난 이전에도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회적 소수자들, 언제라도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책본부 활동을 하면서 성소수자 커뮤니티 위기대처만으로 활동의 방향을 국한하지 않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질병은 차별의 구조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취약했던 이들의 삶은 노골적으로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것은 혐오와 낙인 속에 일상의 관계들을 단절시키며 생존을 위협합니다.

그런 점에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일본 미에 현의 소식은 고무적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 성소수자가 아우팅당하고 괴롭힘과 불이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지자체가 보인 결의는 예방의 본질이 평등과 인권임을 간파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견뎌내며 질병의 혐오에 맞서는 이들과 연대하며, 차별의 구조를 걷어내라는 외침에 함께할 것입니다. 변화는 시민사회의 노력 뿐 아니라 보건당국의 의지와 협력이 있어야 도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 속에서 변화를 외치는 우리의 투쟁은 불평등한 제도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한국기자협회, 혐오에 갇힌 국민일보의 성소수자 보도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7767&fbclid=IwAR3Zk3KEmbOTuX5gUuwngl9VlyQWC7KrbRa-BfIQiUkQukkW3OZ6d_FnA

뉴스앤조이 내·외부에서 쏟아지는 <국민일보> 성소수자 혐오 보도 비판…보도 당사자들 "우린 잘못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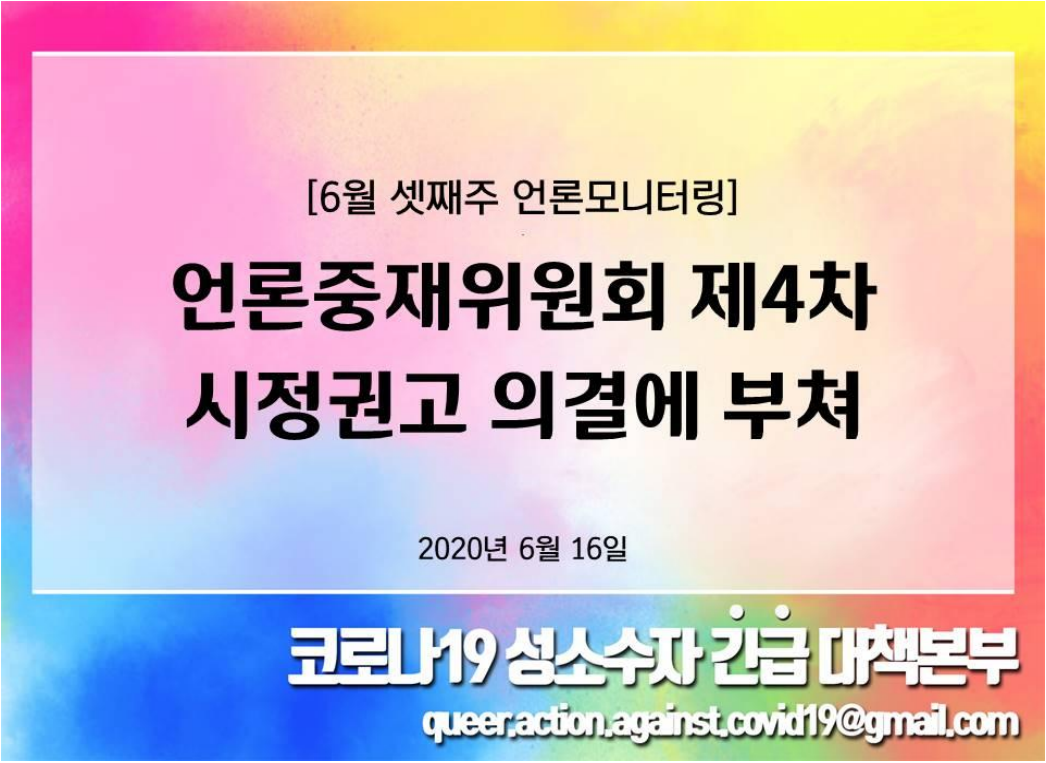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55&fbclid=IwAR3pP2mbaYmz_vcpWV3WgjXjCwFB8H1X-VCQSL5QByFsS5TkP5k9BYmL-jQ

한겨레 “세균 보듯 따가운 시선에 숨도 참아요” 쿠팡맨의 눈물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462.html

중앙일보 “성정체성 들키자 극단선택...코로나가 만든 '아우팅 금지조례'”

<https://news.join.com/article/23793103>



[6월 셋째주 언론모니터링]

**언론중재위원회 제4차
시정권고 의결에 부쳐**

2020년 6월 16일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

[6 월 셋째주 언론모니터링] 언론중재위원회 제 4 차 시정권고 의결에 부쳐

언론중재위원회는 6 월 8 일 제 4 차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3 월부터 5 월 11 일까지 기사들을 심의하고 시정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94 건의 기사들 중에서 73 건이 5 월 연휴 직후 늘어난 코로나 19 확진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이태원을 방문한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 속에서 게이 업소를 강조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가 하면, 환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과도하게 환자의 정보를 노출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시정권고 심의 기준 중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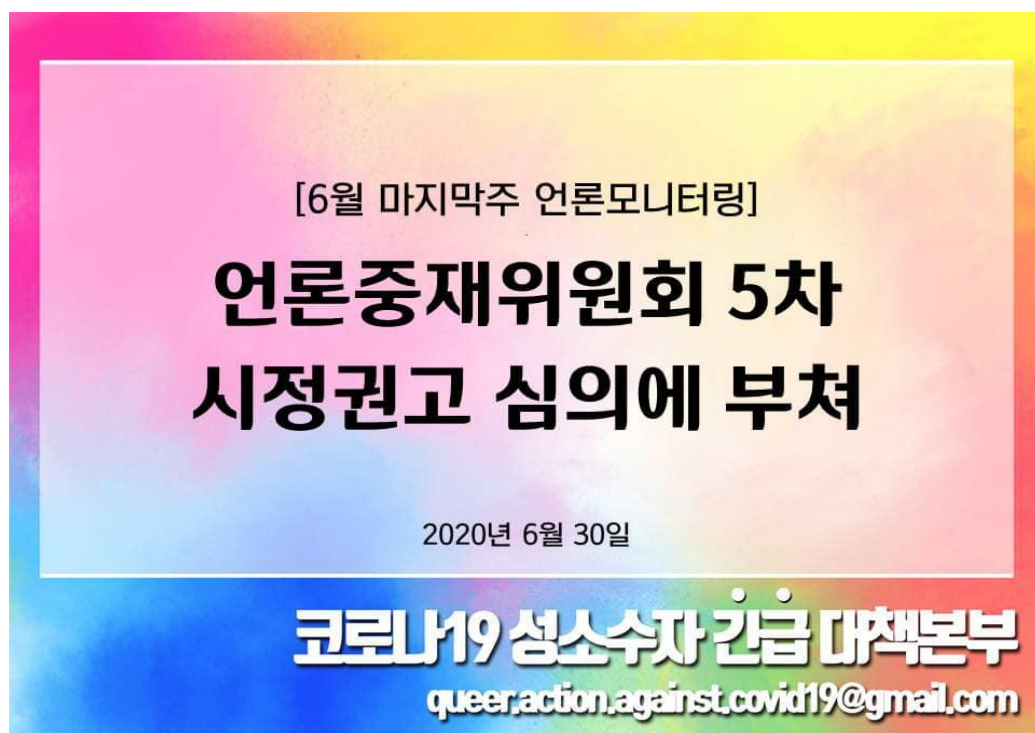
이번 결과는 이태원 확진자 증가 직후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틈타 혐오여론선동을 해왔는가를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언론의 문제적 태도들이 질병예방뿐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까지도 망가뜨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는 5 월 29 일 진행한 릴레이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혐오기사들에 대한 시정권고를 청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이전의 기사들을 대상으로 삼지만, 차기 위원회에서는 차별을 조장하는 더 많은 기사들이 안건에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책본부는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과를 공유하며, 언론사와 기자들이 언론의 역할이 갖는 무게를 자각할 수 있기를 엄중히 요구합니다.

2020. 6. 12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언론중재위원회 제 4 차 시정권고소위원회 심의안건 의결현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ac.or.kr/kor/pages/?p=69&b=B_1_6&cate=PD03



[6 월 마지막주 언론모니터링] 언론중재위원회 5 차 시정권고 심의에 부쳐

6 월 17 일 언론중재위원회는 5 차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의 언론모니터링 활동이 시작된 이후 진행한 심의였습니다.

심의 결과 세 개의 기사가 차별 금지 및 성관련 보도 등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들 중 인터넷 국민일보와 머니투데이는 앞서 대책본부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판단하고 규탄 기자회견과 언중위 시정권고를 청원한 바 있습니다.

언중위의 짧고 굵은 결정은 그간 대책본부가 코로나 19 를 둘러싼 언론의 성소수자 침해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강력하게 비판해오면서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대한 언론의 경각심이 높아진 배경이 작동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대책본부가 꾸준히 진행해온 모니터링이 보여줬듯이 심의결과는 언급된 기사들 외에 다른 기사들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독자들은 언론이 어떻게 사건사고를 다루며 그 속에서 여론을 만들고 선동하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언론은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기사를 작성하는데 경계하고 공익과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0. 6. 30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언론중재위원회의 5 차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www.pac.or.kr/kor/pages/?p=69&b=B_1_6&cate=PD03&bn=2695&m=read

라) 모니터링 평가

- 이태원 확진자증가 초반부터 언론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언론의 혐오선동 폭증 가능성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었음.
- 커뮤니티의 짬방과 업소 문화 등 논의하기 쉽지 않은 키워드들을 운동의 입장에서 풀어내면서 이를 커뮤니티 안팎으로 환기할 수 있었음.
- 상황실에서 기사를 공유하고 그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대책본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음.
- 대책본부 체제 너머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언론 모니터링 활동이 필요하다고 체감함.
이 경우 어떤 방식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후속적으로 논의해보면 좋겠음.

4. 방역본부 및 지자체 대응

1) 각 단위 별 대응 내용

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 5 월 19 일 미팅 진행(오송 질병관리본부)
- 박옥 질병예방센터장, 심은혜 결핵에이즈관리과장, 차정옥 보건연구사, 정윤희, 오은정, 대책본부 나영정, 남웅, 소성욱

주요 내용:

대책본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전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각 자체에 재난문자, 동선공개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내지 않도록 재차 요구하였음. 방대본은 지침을 재차 전달하기로 함.

코로나 19 로 인해서 검진, 치료가 더욱더 어려워진 미등록이주민 대책과 HIV/AIDS 감염인 요양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질본은 HIV 감염인 인권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배포 시기 조정중이라고 상황을 공유하였음.

- 5 월 21 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당부 나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의 동선공개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전파 차단을 위한 목적 외 불필요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확진자 동선공개 시 방역적인 목적과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를 모두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고, ‘반복 대량 노출’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일괄 공개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와 관련해서는 확진자별 동선 공개 시 포함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방안을 보완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성별, 나이, 거주지, 직장정보와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방역목적 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지자체에 공개원칙 준수를 재차 당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이후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와 함께 인권 사안에 대한 논의(동선공개, 개인정보, 자가격리 등)를 위해서 면담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함. 서울시 인권담당관실과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가이드라인 또한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임.
- 2020. 7. 1. 방대본에서 동선공개 지침 3 판(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공개하지 않음)이 나옴.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 지침과 다르게 동선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

나) 서울시

- 5 월 7 일경 에이즈예방협회 서울지회를 통해서 성소수자 연락처를 수소문.
- 5 월 9 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감염병관리과장 만나서 현재 상황을 듣고 성소수자들이 신속하고 차별없이 검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요구함.
- 5 월 10 일 서울시장과 젠더특보가 각각 유선으로 협력요청함.
- 5 월 11 일 서울시청 임순영 젠더특보 주재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김정일 질병관리과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김병기 인권담당관, 유재명 소통담당관 등 관계당국과 대책본부, 서울시 한상희 인권위원장, 김승섭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림. 대책본부에서 나영정, 남웅, 이종걸 참석.

주요내용:

이태원 지역 방문자 검진 시 HIV 를 특정해서 기저질환 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시정지침 내려짐
동선공개 관련 기초단체에 방대본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광역시 차원에서 모니터

진행.

시장 브리핑 등 통해 혐오차별 반대하는 재난 문자 발송, 익명검사 가능,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 강조하여 입장 내고 홍보하는 것의 중요성 강조

소통담당관과 공동사업으로 검진안내, 검사관련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사업 진행 제안함.

성소수자인 것을 이유로 인권침해 발생 시 서울시 인권담당관실에 즉각 연계하기로 함

- 5 월 12 일 시민소통담당관과 홍보기획 회의를 통해서 공동홍보사업 논의
- 5 월 14 일 인권담당관과 회의를 통해서 인권침해 상담 핫라인 개설(*이후 진정 처리 결과 별첨 1)
- 5 월 23 일 서울시 민관협력반에서 코로나 19 대응 시민사회 집담회를 개최하였음. 대책본부 참여하여 인권 이슈 발표함. (별첨 2)

다) 경기도

- 5 월 15 일 미팅 진행. 임승관(경기도 코로나 19 긴급대책단장), 박진(경기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허선행(경기도 인권센터장), 윤덕희(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 선지영(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대책본부 정민석, 나영정

주요내용:

진료 시 성적지향, HIV 감염 여부 등 불필요한 질문 묻지 않도록 지침 발송,

재난문자에 과도한 정보를 담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 발송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신속히 경기도 인권센터 등과 공유하도록 함

- 5 월 20 일 대책단장 브리핑을 통해서 대책본부와의 간담회와 협력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음.

“도는 지난 15 일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와 도 인권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발적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검사와 역학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아우팅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심리치료 지원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라) 인천시

- 5 월 12 일 인천시 인권위원장 통해서 성소수자 대책본부와의 면담자리를 제안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이후 진행되지 못함

마) 국가인권위원회

- 6 월 2 일 열린 좌담회 참석하여 성소수자 대책본부 활동과 과제 발언.
- 참석: 위원장, 사무총장, 상임위원(박찬운), 인권정책과장, 대책본부(나영정, 박한희),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랄라, 서채완), 코로나 19 시민사회대책위, 이성훈(한국인권학회), 홍성수(숙명여대), 김영택(충남대 예방의학과), 김기중 변호사

주요내용:

코로나 19 TFT 가 6 월 2 일 꾸려져서 3 개월 운영될 전망이다. 인권위 차원에서 방대본과 시민사회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제안하였으나, 인권위 차원에서도 면담하기 어려워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함. 시민사회 요구를 모아서 방대본에게 전달하는 역할 하겠다고 하였음. 동선공개 개선 한 것 또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음. 지자체 차원의 인권 이슈 또한 인권위에서 취합하여 방대본에게 전달하는 역할 주문하였음.

바) 기타

- 서울시 교육청 : 고 3 학생 전수조사 보도 관련 서울시 학생인권위 문의, 학생 대상 전수조사는 시행되지 않음. 외국인 강사 대상 조사 공문 내려짐.
- 청주시 흥덕보건소: 확진자 정보(성별, 나이, 근무지)에 대한 정보 삭제 요구, 이후 동선에 여전히 근무지가 표기 되어 있어 동선공개를 통해 접촉자를 찾아야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없다면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여 삭제 조치 되었음.
-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부천 베트남 국적 확진자의 직장동료 확진자를 공개하면서 부천 확진자의 정보가 자세히 나와있음.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 지적했을때 “역학조사 협조 안된다. 불법체류자라서 검사를 안받는다”고 하면서 계속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2) 평가

- 서울시와는 검진 관련 핫라인, 인권침해관련 전담창구를 마련하였음. 또한 서울시청 선교회장의 국민일보 기고글을 서울시인권기본조례 위반으로 서울시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음. 서울시 산하기관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발표 제안. 또한 가정불화,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가격리 어려운 성소수자들이 갈 수 있는 쉼터의 필요성 제기. 사안이 발생하면 협의하기로 하였음. 서울시와 공동으로 홍보사업을 진행한 것은 새로운 성과임.
- 경기도 방역당국과의 협력을 조직하고 인천시와의 소통 창구 마련 추진하였음.
- 수도권을 제외한 상황은 방대본을 통해서 듣는 최소한의 지침 수준임. 대책본부에 결합한 지역 단체와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해당지자체와의 소통 창구, 협력 체계 마련을 추진할 필요. 이렇게 마련된 소통창구,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가져나가면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올바른 인식들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견인해나갈 필요가 확인되었음.
- 5 월 초 서울시, 인천시, 일본으로부터 서울시에이즈예방협회, 인권재단사람, 민변이 유선, 이메일로 연락을 받았음. 방역당국이 성소수자 단체 목록, 성소수자들의 연락처에 대해

문의했음. 이러한 문의를 통해서 단체들의 긴급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감각을 가지게 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이미 HIV 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확진자 동선 공개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환자를 범죄화하는지에 대해서 경험했던 바였기 때문임. 또한 현재 성소수자 ‘관련된’ 제도, 정책, 예산은 ‘에이즈예방’을 통해서 거의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위기를 인식하는 태도가 한편으로 억압을 가져오며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과 예산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음. 대책본부를 통해서 이번에도 ‘에이즈 위기’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성소수자 운동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주도성을 가지고 협상과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였음.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다 정확한 평가가 필요함.

- 익명검사 도입과 ‘차별과 혐오 반대’ 메시지를 이끌어낸 것은 대책본부의 활동과 요구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치가 검진과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이고 실무적인 판단도 크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됨. 지금의 과제는 소수자의 사생활 보호와 차별과 혐오 반대가 검진과 방역을 넘어 소수자 인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가, 운동의 조직화로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번 코로나 19 위기 대응을 통해서 한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노력하는 것임.
- 상당부분 한계적으로 진행되어온 ‘인권의 제도화’의 현실과 한계에 대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정이었음. 지자체 별로 대응 의지나 시민사회 협력 수준이 다르며, 이에 따라서 지자체 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드러나기도 하였음.

※별첨 1. 서울시 인권담당관실 진정 처리 결과

1. 용산구 보건소 관련 진정 진행

- 5월 11일 접수/ 5월 19일 처리
- 검사 접수 담당자가 “좋은데 다녀오셨네요”라고 발언하여 불쾌감을 느낌
-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5/15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 “코로나 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인권침해 없는 방역체계 운영 당부 공문을 송부하여 방역체계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혐오와 차별을 하지 않도록 특별 당부. 용산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전달하고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방역절차 이행 외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는 처리 결과 받음.

2. 은평구 보건소 관련 진정 진행

- 5월 15일 접수/ 5월 19일 처리
- 익명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서 실명으로 검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한 문의
- 은평구에서는 실명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익명 검사시에도 이태원 방문 여부 및 점포를 조회하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함. 이에 대해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보건의료정책과와 협의를 통하여 1) 본인여부(전화번호) 및 증상 유무만 확인 2) 시간대별 동선 파악 및 성별(인권담당관 추가 요청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을 금함을 재확인. 해당부서가 수정지침으로 재하달하고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장과의 협의 창구에서 재강조하는 조치하였다는 처리 결과 받음.

3. 서울시청선교회장 진정 진행

- 언론기고를 통한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대한 진정. 5월 15일 접수
- 10. 16.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나옴(20 신청-64, 20 신청-65, 20 신청-66(병합)).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에게, 가. 피신청인에 대하여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나. 서울특별시 직원들이 언론

기고, 인터뷰 등을 통해 차별·혐오 표현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4. 확진자 동선공개 관련 진정 진행

- 5월 20일 접수.
- 5월 26일 [확진자 동선 공개 관련 모니터링] 발표
“방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의 정보와 인권을 지키는 최선의 공개방식을 준수하라” -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293>
- 방대본을 통해 동선공개 지침 3판(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공개하지 않음)이 나옴

※별첨 2. 서울시 민관협력반 주최 집담회 발표문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나영정

① 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 19 대응(행정, 시민사회, 거버넌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 행정적 대응

- 격리 및 강제적 행정 조치가 시행되었음. 자가격리 앱과 전자팔찌 부착 등 강제적 조치가 뒤따랐음.
- 역학조사-확진자동선공개-재난문자가 방역목적으로 수집되고 지자체별/방대본 차원에서 공시되었음.
- 집회시위 제한, 농성장 등에 대한 강제철거가 벌어졌음. 집회를 주최한 비정규 노동자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소환하였음.
-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과 경찰 시스템을 연계해 10 분안에 동선 파악 작업을 완료하고 있음.
-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보다 두드러진 대응이 이어졌음. 5 월 2 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이가 확진이 되면서 이후 성소수자 특히 남성동성애자가 검진의 대상으로 부상하였고, 검진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력을 발동하였음. 5 월 7 일, 8 일에는 인천시가 인권재단사람에, 서울시가 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 지회에 연락해서 성소수자들의 연락처를 요청하는 일이 벌어짐. 이후 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지회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5 월초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이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는 이메일을 발송.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법률가 단체에 성소수자 단체의 연락처를 요청함.

2. 시민사회

-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 (3 월 발족): 설문조사,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마련

- 코로나 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4 월 28 일 발족): 정부에 해고 금지 및 고용유지, 차별없는 직접지원, 취약계층 추가지원, 공공의료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을 요구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5 월 11 일 시작):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향한 검진 안내와 지원, 인권침해 상담과 대응, 언론대응, 방역당국과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위해 활동하였음. 행정 관련해서는 역학조사와 확진자동선공개, 재난문자에서 인권침해 모니터링하고 기초 지자체-광역단체에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였음. 부천시의 경우 시장 SNS 를 통해서 외국인의 국적과 동선이 드러나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된 사건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부천시장에게 항의하는 활동을 하였음. 인천시의 시청앞 집회금지통보 등에 대하여 인천지역연대에서 항의 등 대응하였음.

3. 거버넌스

- 중대본, 방대본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어떻게 협력해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적어도 인권을 이슈로 협력적 관계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일본(방대본)에서 이태원 확산 이후 대한에이즈퇴치연맹 동성애자사업부(이하 아이샵)과 여러차례 미팅하면서 검진 홍보, 상담 핫라인 개설등을 논의하였고, 이러한 소식이 성소수자 단체에도 전해졌으나 이미 대한에이즈퇴치연맹은 정부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와의 협력이라고 하기 어려움.
- 인권의 제도화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음. 코로나 19 국면에서 각 지자체별로 인권대응의 역량이나 의지가 상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음.
- 성소수자 대책본부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 방대본과 미팅을 통해서 혐오와 차별 반대 메시지를 방역당국이 강조할 것, 프라이버시 보장과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이후 인권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 마련 필요 등을 제시하였음. 인천시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진행되지 않음.

②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의 발생한 사회적 문제와 쟁점은 무엇인가?

(방역 및 정책의 사각지대와 문제점 등)

- 격리 및 강제적 행정 조치가 있었으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설명, 이의제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였음. 격리 대상자를 특별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역학조사-확진자동선공개-재난문자 사이에 변별력, 목적, 관리 주체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를 이유로 개인의 신상이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나 블로그, 재난문자 등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유포되었음.
- 집회시위 제한, 농성장 등에 대한 강제철거가 벌어졌음. 그러나 야외 집회는 식당이나 유흥업소보다 더 ‘안전함’. 방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전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으로 기본권을 제한하였음.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규칙이 부재하며, 기간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정함이 없음.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과 경찰 시스템을 연계해 10 분안에 동선 파악 작업을 완료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누구의 책임으로 언제까지 유지하고,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함.
- 성소수자에 대한 대응은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성소수자 시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다는 점을 드러내었음. 방역은 시민들의 주체화, 협조 없이 불가능함. 시민권을 부정당해온 신천지 평교도들, 성소수자, 미등록 이주민들이 감염병에 취약한 이유는 방역당국이 어떻게 이들과 관계맺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임.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클럽의 이름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연결될때 이 정보는 삶을 위협하는 정보가 된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었음.(이후 혐오와 차별 반대 메세지, 익명검사 도입 등 조치)

③ 코로나 19 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지역사회 재난대응 거버넌스가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 의제는 무엇인가?

-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화된 인권담당 부서의 역할이나 책임을 강화
- 성소수자, 미등록 이주민,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낙인집단(종교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 철폐를 통해 시민권 확보
- 사생활 등 정보인권, 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하여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방식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감시체계 마련
-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참조.

5. 홍보

1) 커뮤니티 대상 홍보

-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자가검진을 독려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검진관련 정보 안내를 담은 광고, 카드뉴스를 제작하며 배포함

가) 대책본부 SNS,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대책본부 소속 각 단위의 SNS 와 대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
-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번체), 스페인어, 수어 버전을 각각 제작해서 배포

5 월 12 일 대책본부 출범 및 소개 카드뉴스





5 월 15 일 익명검사 시행 및 워크스루/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안내



5 월 17 일 상담전화/익명검사/워크스루 및 드라이브스루 안내 다국어 배포

1) 한국어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20개 단체로 구성(5/17 기준)되어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보건 및 자가격리,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 아웃팅(가족사회, 직장, 학교, 직장내 차별,
직장폭력, HIV/AIDS 관련 상담을 진행합니다.
5/17 일

상담전화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랑 02-745-7942 | 9-18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 13-20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서울) 010-2164-1201 | 11-18시(월~토)
성소수자성소수자지원센터 행동 02-924-1227 | 11-21시(월~토)
* 외국어 상담 문의는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5/17 일

**익명검사
전국확대**

4/24 - 5/6 이태원을 방문한 어택을 입으신 분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반드시 무료匿名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요청시 익명검사를 진행하오니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검사구 드라이브스루 검사는 익명검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5/17 일

**워크스루 및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안내**

1. 워크스루
운영일: 5월 13일-
운영시간: 매일 10:00-17:00
위치: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이태원로 224-19)
2. 드라이브스루
운영일: 5월 15일-
운영시간: 매일 10:00-17:00(검거구는 09:00부터)
위치: 우원 119 안전센터 및 대곡 8구역 공영주차장
5/17 일

2)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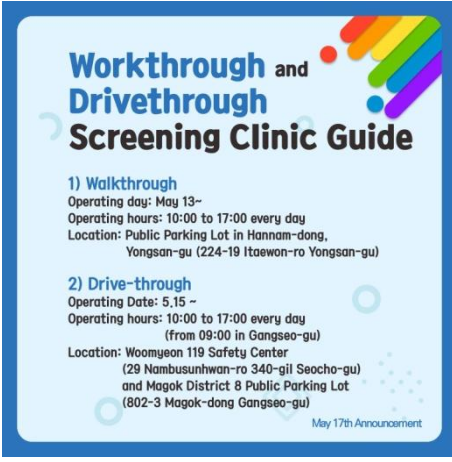
**The Queer
Action Against
Covid19**
(Covid19 LGBTI Emergenc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is composed of 20 organizations (based on 5/17).
The task force conducts consultation on screening,
self-price,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reatment
- 'outing' (local society, home, workplace),
workplace discrimination, domestic violence,
and HIV/AIDS.
May 17th Announcement

Hot line is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
02-745-7942 (09-18:00)
LGBT Human Rights of Korea
02-715-9984 (13-20 o'clock)
South Korean Youth Infection Youth Community of Korea (R)
010-2164-1201 (11-19:00) Monday Closed
LGBTQ Youth Crisis Support Center Ding Dong
02-924-1227 (11-21 p.m.) closed Sunday, Monday closed
* For foreign language Hot line, please contact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
May 17th Announcement

 National Expansion of Anonymous Inspection Anyone with a history of visiting Itaewon from April 24 to May 6 can be examined only by a mobile phone number at a nearby health center. If you request, we will conduct an anonymous test, so please take the COVID19 test. * Gangseo-gu Drive-Through Inspection Center does not conduct anonymous tests. May 17th Announcement	 Workthrough and Drivethrough Screening Clinic Guide 1) Walkthrough Operating day: May 13~ Operating hours: 10:00 to 17:00 every day Location: Public Parking Lot in Hannam-dong, Yongsan-gu (224-19 Itaewon-ro Yongsan-gu) 2) Drive-through Operating Date: 5.15 ~ Operating hours: 10:00 to 17:00 every day (from 09:00 in Gangseo-gu) Location: Woomyeon 119 Safety Center (29 Nambusunhwan-ro 340-gil Seocho-gu) and Magok District 8 Public Parking Lot (802-3 Magok-dong Gangseo-gu) May 17th Announcement
3) 일본어	
 コロナ19 性少数者 緊急対策本部は Covid19 LGBTI Emergenc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20個の団体で構成(5/17)されております。対策本部は検診など自宅待機、治療過程で発生する人権侵害・アウティング(地域社会、家庭、職場)、職場内者別、家庭暴力、HIV/AIDS関連相談を行います。 5/17 お知らせ	 相談電話は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9~18時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13~20時 Youth PLHIV Community of Korea 'R' 한국청소년인권감염안정연구소 알 010-2164-1201 11-19時/月曜日休み LGBTQ Youth Crisis Support Center DDing Dong 청소년성소수자위피지원센터 땃땃 02-924-1227 11-21時/日、月曜日休み * 外国語相談問い合わせは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へ連絡をお願いします。 5/17 お知らせ
 匿名検査 全国に拡大 4/24~5/6の間、梨泰院(イテウォン・이태원)を訪問した方は、最寄りの保健所で携帯電話番号だけで検査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本人の要請時、匿名検査を行いますので、検査をお受けください。 * 江西区カンソグドライブスルー検査所は匿名検査を行いません。 5/17 お知らせ	 ウォークスルー及びドライブスルー 選別診療所のご案内 1) ウォークスルー 運営日: 5/13 ~ 運営時間: 毎日10:00 ~ 17:00 場所: 龍山区漢南洞公營駐車場(ソウル市龍山区漢南洞685-46) ヨンサング ハンナムドン ゴンヨングチャジャン (ソウルシ ヨンサング ハンナムドン ユッベッパルシッオー ダシ サーシッユッ) 685-46 Hannam-dong, Yongsan-gu, Seoul 2) ドライブスルー 運営日: 5/15 ~ 運営時間: 毎日10:00 ~ 17:00 (江西区カンソグは9:00から) 運営場所: 牛眠119安全センター(ソウル市瑞草区瑞草洞393-8) 及び 麻谷8区域公営駐車場(江西区麻谷洞802-3一帯) ウミョンイルイルクアアソジョンセント (ソウルシ ソチョグ ソチョドンサムベックシッサム ダシ ハル) マゴクパルグヨク ゴンヨングチャジャン (カンソグ マゴクドンパルベッイー ダシサン イルウォン) 5/17 お知らせ
4) 중국어 간체	

 新冠肺炎 (COVID-19) 性少数者 紧急对策中心 Covid19 LGBTI Emergenc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是以20个单位组成。对策中心进行关于检测、自我隔离、治疗过程中发生的侵犯人权-被出柜(社区、家庭、职场)、工作单位内歧视、家暴、HIV/AIDS的咨询。 5月 17日 公告	 电话咨询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9~18时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13~20时 Youth PLHIV Community of Korea 'R' 한국청소년성감염인권커뮤니티 알 010-2164-1201 11-19时/周一休息 LGBTQ Youth Crisis Support Center DDing Dong 청소년성소수자위키지원센터 땡땡 02-924-1227 11-21时/周二、一休息 *外语咨询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 用电子邮件联系。 5月 17日 公告
 匿名检测 扩大到全域 4月24日~5月6号之间去过梨泰院的人，在附近保健所只记载手机号也可检测新冠病毒。本人邀请时可接受匿名检测，请去接受检测。 * 江西区免下车诊疗所不做匿名检测 5月 17日 公告	 免下车、 徒步移动型 诊疗所指南 1) 徒步移动型 -运营日: 5月13日~ -运营时间: 每天 10:00~17:00 -地点: 汉南洞公营停车场 (首尔特别市龙山区梨泰院路224-19) 2) 免下车 -运营日: 5月15日~ -运营时间: 每天 10:00~17:00(江西区 9:00开始) -地点: 牛眠119安全中心(瑞草区南部循环路340街57) 麻谷8区域 公营停车场 (首尔特别市江西区麻谷洞 802-3 一带) 5月 17日 公告
5) 중국어 번째	
 新冠肺炎 (COVID-19) 性少数者 紧急对策中心 Covid19 LGBTI Emergenc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是以20个单位组成。对策中心进行关于检测、自我隔离、治疗过程中发生的侵犯人权-被出柜(社区、家庭、职场)、工作单位内歧视、家暴、HIV/AIDS的咨询。 5月 17日 公告	 電話諮詢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9~18时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13~20时 Youth PLHIV Community of Korea 'R' 한국청소년성감염인권커뮤니티 알 010-2164-1201 11-19时/周一休息 LGBTQ Youth Crisis Support Center DDing Dong 청소년성소수자위키지원센터 땡땡 02-924-1227 11-21时/周二、一休息 *外语咨询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 用电子邮件联系。 5月 17日 公告

匿名檢測 擴大到全域 4月24日 ~ 5月6日之間去過梨泰院的人， 在附近保健所只記載手機號也可檢測新冠病毒。 本人邀請時可接受匿名檢測，請去接受檢測。 * 江西區免下車診療所不做匿名檢測 5月 17日 公告	免下車， 徒步移動型 診療所指南 1) 徒步移動型 -運營日：5月19日~ -運營時間：每天 10:00~17:00 -地點：漢南洞公營停車場 (首爾特別市龍山區梨泰院路224-19) 2) 免下車 -運營日：5月15日~ -運營時間：每天 10:00~17:00(江西區 9:00開始) -地點：牛眠119安全中心(瑞草區南部循環路340街57) 麻谷8區域 公營停車場 (首爾特別市江西區麻谷洞 802-3 一帶) 5月 17日 公告
--	---

5 월 19 일 상담시간 및 익명검사 정책 변경으로 카드뉴스 수정 배포

1) 한국어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는  21개 단체로 구성(5/19 기준)되어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잠진 및 자가격리,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 아웃팅(지역사회, 가정, 직장), 직장내 차별, 가정폭력, HIV/AIDS 관련 상담을 진행합니다. 5/19 일임	상담전화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10-19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13-20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커뮤니티 알 010-2164-1201 11-19시 (월 휴무)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 02-924-1227 11-21시 (월-월 휴무) 또는 대책본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 * 외국어 상담 문의는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5/19 일임
익명검사 전국확대 4/24 ~ 5/6 이태원을 방문한 이력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핸드폰 번호만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요청시 익명검사를 진행하오니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강서구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는 익명검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5/19 일임	워크스루 및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안내 1. 워크스루 운영일: 5월 13일~ 운영시간: 매일 10:00~17:00 위치: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이태원로 224-19) 2. 드라이브스루 운영일: 5월 15일~ 운영시간: 매일 10:00~17:00(강서구는 09:00부터) 위치: 우연 119안전센터(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29) 및 마곡8구역 공영주차장(강서구 마곡동 802-3 일원) 5/19 일임

2) 영어



The Queer Action Against Covid19
(Covid19 LGBTI Emergenc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is composed of 21 organizations (based on 5/19).
The task force conducts consultation on screening, self-quarantine,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reatment - 'outing' (local society, home, workplace), workplace discrimination, domestic violence, and HIV/AIDS.

May 19th Announcement



Hot line is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
02-745-7942 (a.m. 10:00 - p.m. 07:00)

LGBT Human Rights of Korea
02-715-9984 (p.m. 1:00 - 8:00)

South Korean Youth Infection Youth Community of Korea (R)
010-2164-1201 (a.m. 11:00 - p.m. 07:00) closed on Mondays

LGBTQ Youth Crisis Support Center Ding Dong
02-824-1227 (a.m. 11:00 - p.m. 09:00) closed on Sundays and Mondays

or Anonymous counseling is available on the following site.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

* For foreign language Hot line, please contact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

May 19th Announc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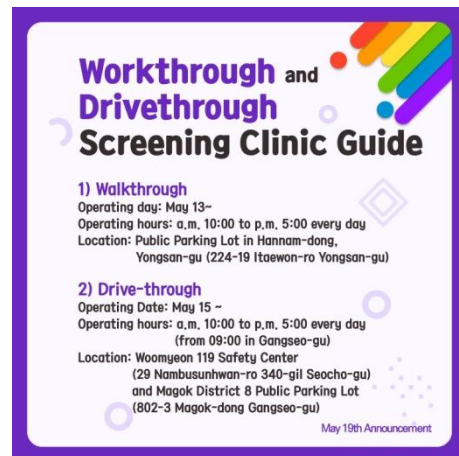


National Expansion of Anonymous Inspection

Anyone with a history of visiting Itaewon from April 24 to May 6 can be examined only by a mobile phone number at a nearby health center. If you request, we will conduct an anonymous test, so please take the COVID19 test.

* Gangseo-gu Drive-Through Inspection Center does not conduct anonymous tests.

May 19th Announcement



Workthrough and Drivethrough Screening Clinic Guide

1) Walkthrough
Operating day: May 13-
Operating hours: a.m. 10:00 to p.m. 5:00 every day
Location: Public Parking Lot in Hannam-dong, Yongsan-gu (224-19 Itaewon-ro Yongsan-gu)

2) Drive-through
Operating Date: May 15 -
Operating hours: a.m. 10:00 to p.m. 5:00 every day (from 09:00 in Gangseo-gu)
Location: Woomyeon 119 Safety Center (29 Nambusunhwan-ro 340-gil Seocho-gu) and Magok District 8 Public Parking Lot (802-3 Magok-dong Gangseo-gu)

May 19th Announcement

5 월 19 일 수어 안내 동영상

- 링크: <https://vimeo.com/420407287>



나) 어플리케이션, 웹페이지 배너광고

-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배너광고를 제작, 배포
-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 기금지원을 받아 진행함(상세 내용은 별첨 참조)
- 총 5 개 어플리케이션(잭디, 그라인더, 딕소/까만봉지, 블루드, 나인몬스터)와 웹페이지(이반시티), 카페에 게시함

[검진 독려 광고 기본안]

4/24~5/6 이태원지역 방문자 익명검사 전국 확대  서울특별시 x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지금 바로

우리 검진받자

나와 커뮤니티를 지켜요!



인권침해 상담 및 대응 문의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9~18시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010-2164-1201 11~19시 (월 휴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13~20시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땀동	02-924-1227 11~21시 (일·월 휴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게시안]

13:35 1 LTE

4/24~5/6 이태원지역 방문자 익명검사 전국 확대

**우리 지금 바로
검진받자**

**나와
커뮤니티를
지켜요!**



인권침해 상담 및 대응 문의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9~18시	한국청소년성년상담인권커뮤니티 알 010-2164-1201 11~19시 (월~일 휴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13~20시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통 02-924-1227 11~21시 (월~일 휴무)

서울특별시 x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코로나19 인권침해 사례설문

4/24~5/6 이태원지역 방문자 익명검사 전국 확대

컨너뛰기

**우리 지금 바로
검진받자**

**나와
커뮤니티를
지켜요!**



인권침해 상담 및 대응 문의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9~18시	한국청소년성년상담인권커뮤니티 알 010-2164-1201 11~19시 (월 휴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13~20시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통 02-924-1227 11~21시 (월~일 휴무)

서울특별시 x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이반시티 웹페이지]



[히즈카페]

The screenshot shows the HIZ Cafe website. On the left is a sidebar with a menu including '카페정보', '공지사항', '등업신청', and '수험생잡금'.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공지사항' (Public Notice) titled '일일 이태원지역 방문자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Expanding daily anonymous testing for visitors to Itaewon area nationwide). Below the notice is a large blue and white poster for the '지금 바로 우리 검진받자' (Let's get tested now) campaign. The poster includes the text '4/24~5/6 이태원지역 방문자 익명검사 전국 확대' and '나와 커뮤니티를 지켜요!' (Protect myself and my community!). At the bottom of the poster, there is a section for '인권침해 상담 및 대응 문의' (Inquiry for human rights violation consultation and respons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organizations.

2) 대책본부 홈페이지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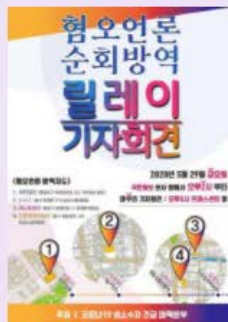
- 대책본부 차원의 캠페인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설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

- 공지사항, FAQ, 활동브리핑, 성명/논평, 상담게시판으로 구성



공지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정보 업데이트)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바로 내일!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

[더 보기](#)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요청으로 게시합니다.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코로나19 ...

[더 보기](#)

홈페이지 게재 FAQ

일부 회사에서 자가격리대상자 혹은 능동감시대상자, 이태원에 출입해서 검사를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동선을 회사에 신고하라는 등의 요구(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응해야 하는가요?

사업장의 종사자는 사업장의 규칙에 따라야 하며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능동감시 또는 자가격리 명령은 사업장의 장이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명령권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명령은 본인에게 직접 통보됩니다.

인권침해 및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Hotlin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guidance)

검진 및 자가격리,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아우팅-지역사회, 가정, 직장 / 직장내 차별 / 가정폭력 / HIV/AIDS)상담전화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09~18 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13-20 시)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010-2164-1201 (11-19 시/월요일 휴무)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통 02-924-1227 (11-21 시/일, 월요일 휴무)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외국어 상담 문의는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Hot line for human rights violations(Outing-local society, home, workplace / workplace discrimination / domestic violence and HIV/AIDS)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82)2-745-7942 (a.m. 09:00-p.m. 06:00)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82)2-715-9984 (p.m. 1:00-8:00)

Youth PLHIV Community of Korea 'R'

(+82)10-2164-1201 (a.m 11:00-p.m. 07:00 /closed on Mondays)

LGBTQ Youth Crisis Support Center DDing Dong

(+82)2-924-1227 (a.m 11:00-p.m. 09:00 / closed on Sundays and Mondays)

For foreign language Hot line , please contact

워크스루 및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어디에 있고 언제 운영하나요?(Workthrough and Drivethrough)

1. 워크스루 (Workthrough)

- 운영일: 5 월 13 일 부터 (May 13th ~)

- 운영시간: 매일 10:00 ~ 17:00 (10:00 AM to 5:00 PM everyday)

- 위치: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이태원로 224-19) (Public Parking lot in Hannam-dong, Yongsan-gu)

2. 드라이브스루 (Drivethrough)

- 운영일: 5 월 15 일 부터 (May 15th ~)

- 운영시간 매일 10:00 ~ 17:00 (강서구는 09:00 부터) (10:00 AM to 5:00 PM everyday, from 9:00 AM in Public Parking lot)

- 위치: 우면 119 안전센터 및 마곡 8 구역 공영주차장 (마곡 8 구역 공영주차장은 익명검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Woomyeon 119 Safty Center and Magok District 8 Public Parking lot)

익명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Anonymous COVID19 test)

현재 전국 보건소에서 핸드폰 번호만으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요청시 익명검사를 진행하오니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5/18 일 기준)

Anyone with a history of visiting Itaewon from April 24 to May 6 can be examined only by a mobile phone number at a nearby health center. If you request, we will conduct an anonymous test, so please take the COVID19 test.

‘능동감시 대상자’로 통보되었다가 추후에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능동감시 대상자로 통보되었으나 확진자와의 접촉력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카드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방문한 이력이 확인된 경우, 또는 학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계층을 상대하는 고위험직종에 종사하시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여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는 음성인데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나요?

네,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는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해당지역을 방문한 날로부터(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와 관련 예방 수칙은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자가격리 :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이면서 고위험군이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대상자의 실거주지 보건소가 격리통지서를 발부하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유무를 1 일 2 회 확인

- 증상 발생 또는 악화 시 보건소에 즉시 연락

▶ 능동감시 : 일상생활이 가능

- 대상자의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유무를 1 일 2 회 확인
- 증상 발생 또는 악화 시 보건소에 즉시 연락

어디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검사 가능한 340 개소의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

이태원 클럽에 4 월 28 일에 다녀왔습니다. 첫 환자는 5 월 2 일에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클럽을 방문 후 확진된 첫 환자 이후 다수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어, 이태원 소재 클럽, 주점 등이 최근 문을 연 시점인 4 월 24 일부터 5 월 6 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 주점 등 방문자께서는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외의 방문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권장하지 않음

3) 평가

- 서울시와 최초의 만남에서 자원과 가용 홍보수단의 활용이 가능하니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검진 독려 홍보를 해달라는 제안을 먼저 받았음. 서울시에서 먼저 제안해 다이렉트로 진행한 성소수자 단체와 진행하는 최초의 공동협력사업이었음. 이전에도 이런 협업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때까지는 비협조적이었는데 지자체 방역에 지장이 있으니 찾는것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음.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지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이 경험을 통해 이후에도 협력사업을 진행해나가면 좋겠음.
- 데이팅 어플에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대책본부의 판단으로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데이팅 어플에 검진독려 광고를 할 수 있었음. 이는 최초로 5 개 어플에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광고였음. 잭디 어플리케이션은 3 일만에 9 만명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 추후 게이커뮤니티에 홍보시 사용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나 5 개 어플 중 광고 가격이 가장 비싸 2 주를 진행하지 못하고 3 일간만 광고를 진행함.

- 게이 커뮤니티에 여러 루머들과 걱정을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음. 대책본부에서 팩트 체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함. 결과적으로 어플, 페이스북 등에 홍보한 카드뉴스 등이 여러 커뮤니티에 정보를 제공하는 글들로 재활용되어 카드뉴스를 통해 상담홍보, 검진소 홍보 등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됨.
- 대책본부 홈페이지 또한 개설해 익명의 Q&A 게시판을 만들어 상담하려 했으나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은 없었음. 대부분 전화를 통한 상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 홈페이지 및 SNS 에 대책본부 주간 활동기록과 메시지를 올렸던 활동이 기사화가 많이 되면서 다운되어 있던 커뮤니티 내에 용기를 불어넣을수 있지 않았나 생각됨.

※별첨 1. 서울시와의 소통 과정

■ 5 월 11 일

- (5 월 11 일 면담자료 발송 및 서울시와 미팅 후)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이 홍보물을 담당함. 검진독려 홍보물 협력하고 예산 지원 의지 밝힘. 5 월 12 일 대책본부 출범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와 미팅 하기로 함.

■ 5 월 12 일

- 13 시 30 분 친구사이에서 시민소통과 미팅.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홈페이지, 데이팅 어플의 검진독려 홍보물 제작 서울시의 제안. 기획안을 요청. 어플은 검진독려로, 홈페이지는 오해 또는 루머의 FAQ, 고민 상담 등의 게시판 운영을 원함. 미팅 이후 홍보 담당단체 분담.
- 담당단체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으로 결정. 서울시의 예산 지원 범위는 기획/디자인, 광고비, 광고대행비로 결정되었음.
- 어플 광고(잭디, 그라인더, 딕쏘, 나인몬스터, 블루드)와 이반시티 광고를 하기로 결정.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페이지 제작 결정(팩트체크, 캠페인, 활동보고, 성명논평)

■ 5 월 13 일 (미팅 회의록 별첨 2, 대책본부 기획 초안 별첨 3)

- 18 시 40 분 서울시청 시민소통과에서 미팅 진행.
- 초기 기획안으로 미팅 진행. 어플 및 이반시티 광고 지원하겠다고 약속. 다만 서울시 CI 가 함께 광고에 들어가는것을 요청. 대책본부와 서울시의 문구 협의도 진행.
- 서울시는 검사를 빠르게 받게 하는것이 목적. 대책본부는 안전한 검사, 익명성을 보장 등의 문구 협의. 14 일 오전까지 기획안 수정해 재공유 요청.

■ 5 월 14 일

- 검진홍보 사업 기획한 최종 승인 및 진행. (대책본부 선지출로 진행)

■ 사업 완료 후 6 월 8 일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별첨 2)

※별첨 2. 서울시 협업 코로나 19 성소수자 인권보장 및 차별 없고 안전한 검진 지원사업 보고서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코로나 19 성소수자 인권보장 및 차별 없고 안전한 검진 지원사업 ◇ 사 업 비 : 총 20,000 천원
--

I. 사업개요 (요약)

단 체 명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대표단체: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사 업 명	코로나 19 성소수자 인권보장 및 차별 없고 안전한 검진 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0 년 5 월 14 일 ~ 2020 년 5 월 27 일		
사 업 비	총 20,000 천원	보조금	20,000 천원(100%)
		자부담	0 원(0%)
사업목적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감염확산 방지 및 검진 독려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소속 23 개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 ○ 소속단체 SNS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보 접근에 용이하게 홍보함 ○ 웹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정보 접근에 용이하게 홍보함		

추진실적	○ 검진독려 온라인 광고 배포 1. 웹페이지 1 개, 모바일어플리케이션 5 개를 통해 홍보함 2.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소속단체 SNS 를 통해 홍보함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웹페이지 제작 1.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웹페이지를 제작함 2. 홈페이지에는 상담, 활동브리핑, 성명/논평, FAQ, 외국어번역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접근에 용이하도록 제작
사업성과	○ 서울시 익명검사 및 워킹스루, 드라이브스루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검진을 향상 ○ 다양하고 빠른 홍보를 통해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고 서울시와 인권단체가 협업해 대처하고 있음을 널리 알림
성과(물) 활용계획	○ 홈페이지는 코로나 19 사태가 종료되고 나서도 계속 정보 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 예정

II. 사업추진 방법

1. 사업개요

- 검진독려 온라인 광고 배포
- 사업기간: 2020.05.14.~2020.05.27.
- 목표: 성소수자,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발적 검진을 독려하는 광고 배포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웹페이지 제작

- 사업기간: 2020.05.14.~코로나 상황 종료 이후
- 목표: 성소수자들이 검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소통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구축

2.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가. 검진독려 온라인 광고 배포

○ 사업내용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에서 성소수자,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발적 검진을 독려하는 광고를 배포함으로써 검진을 독려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협력함

○ 추진전략

- 사업장소: 온라인
- 사업대상: 성소수자, 특히 남성 동성애자
- 전담인력: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상황실 8 개 단체(△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세부내용
 - 1) 이반시티(웹페이지), 잭디, 그라인더, 딕쏘, 나인몬스터, 블루드(이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총 6 개의 커뮤니티에 검진 독려 홍보물 배포
 - 2)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소속 단체들의 SNS 및 홈페이지 게시 요청
 - 3) 광고 문구

[홍보 포스터 문구]

대제목: “우리 지금 바로 검진받자”

소제목 1: ‘나와 커뮤니티를 함께 지켜요.’

소제목 2: ‘4/24~5/6 이태원지역 방문자 익명검사 전국 확대’

‘인권침해 상담 및 대응’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09~18 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13-20 시)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010-2164-1201 (11-19 시/월요일 휴무)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땃동 02-924-1227 (11-21 시/일, 월요일 휴무)

서울특별시 X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나.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웹페이지 제작

○ 사업내용

- 성소수자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소통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대책본부의 활동과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검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전달함

○ 추진전략

- 사업장소: 온라인
- 사업대상: 성소수자 및 코로나 19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시민
- 전담인력: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상황실 8 개 단체(△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및 홈페이지 제작자

- 세부내용

- 1)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명의 홈페이지 개설
- 2) 홈페이지에는 △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대응, △ 인권침해 상담, △ 검진 홍보 및 독려, △ 방역당국과의 소통 등의 대책본부 활동을 알림
- 3) 웹페이지는 코로나 19 검진 과정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에 대한 FAQ, 대책본부가 진행하는

캠페인 안내, 코로나 19 검진 독려, 인권침해 상담 창구 안내, 인권침해 설문조사 등의 내용을 탑재

4) 홈페이지 탑재 내용

1. 팩트체크

- ① 확진이 되면 사생활이 전부 노출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 14. 지침을 통해 직장명, 세부주소 등 개인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는 드러나지 않도록 함
- ② 코로나 19 감염 시 아우팅이 되고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 -> 코로나 19 감염 내지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
- ③ 검사 과정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사실일 알려질 수밖에 없다? -> 현재 서울시는 이태원, 논현동 등 방문 지역만 밝히면 이름을 묻지 않고 익명검사를 진행함

2. FAQ

- ① 코로나 19 검사, 감염으로 사생활이 노출되었을 시 대처 방법
- ② 성적지향이 원치 않게 알려졌을 때 대처 방법
- ③ 직장에서 사직을 권고할 때 대처 방법
- ④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수칙

3.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소식

4. 인권침해 상담 안내

3.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

가. 추진실적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소속 단체 현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

·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언니네트워크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트랜스해방전선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 청소년위기지원센터 띠동 /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 성소수자부모모임 / 전라북도 성소수자모임
열린문 / 레주파 (총 23 개 단체)

○ 검진독려 온라인 광고 배포

- 광고 기간: 2020.05.14. ~ 2020.05.27
- 기존 기획했던 어플리케이션 5 개, 웹페이지 1 개에서 성소수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웹페이지에
광고를 더 추가해 게시함.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소속 단체 홍보

1)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트위터 twitter.com/quv_korea/status/1261259451190796289?s=20
- 페이스북 www.facebook.com/584751788334871/posts/2098806526929382/?d=n

2)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트위터 twitter.com/Dawoom_t4c/status/1261260346485960705?s=20
- 페이스북 www.facebook.com/102705644539002/posts/169214941221405/?d=n
- 홈페이지 dawoom-t4c.org/

3)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 트위터 twitter.com/Pusan_Queers/status/1261335930062815232?s=20

4) 언니네트워크

- 트위터 twitter.com/Unninetwork/status/1261495630490333185?s=20

5) 트랜스해방전선

- 트위터 twitter.com/freetransright/status/1261582677808836609?s=20

- 페이스북 www.facebook.com/131765177621188/posts/684750658989301/?d=n

6)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페이스북 www.facebook.com/202041019960751/posts/1590055547825951/?d=n

7)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페이스북 www.facebook.com/235469240227449/posts/912881105819589/?d=n

8)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 홈페이지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whabyunnal&logNo=](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whabyunnal&logNo=221970234246&navType=tl)

[221970234246&navType=tl](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whabyunnal&logNo=221970234246&navType=tl)

9) 서울퀴어문화축제

- 트위터 twitter.com/sqcforg/status/1262007015800311809?s=20

twitter.com/sqcforg/status/1263035993893924864?s=20

- 페이스북 www.facebook.com/541319669293195/posts/3275384942553307/?d=n

www.facebook.com/541319669293195/posts/3283254081766393/?d=n

10) 친구사이

- 트위터 twitter.com/chingusai/status/1261188196580208640?s=20

- 페이스북: www.facebook.com/261569203854369/posts/3245842715426988/?d=n

www.facebook.com/261569203854369/posts/3260607297283863/?d=n

11) 정의당성소수자위원회

- 페이스북 www.facebook.com/439909859417931/posts/3025907464151478/?d=n

12)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 페이스북 www.facebook.com/1696481760642077/posts/2564751893815055/?d=n

13) 대책본부 활동 브리핑 게시물

- 1 차 활동브리핑

- 2 차 활동브리핑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홈페이지 제작

1)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홈페이지를 제작함

2) 공지, FAQ, 활동브리핑, 성명/논평, 상담(HOT LINE) 등의 메뉴를 제작해 운영

3) 한국어 이외에도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수어로 검진 독려공지를 함께 공유

나. 사업성과

○ 검진독려 온라인 광고 배포

- 어플리케이션 5 개(잭디, 그라인더, 딕쏘, 블루드, 나인몬스터) 모두 팝업 광고 또는 배너광고를 실시하였음.
- 성소수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웹페이지에 서울시와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가 함께하는 검진독려 광고를 게시함. (이반시티, 히즈카페, 까만봉지)
- 대책본부 단체들의 SNS 를(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SNS 포함) 통해 서울시의 익명검사, 워크스루검사, 드라이브스루검사를 홍보했으며 커뮤니티의 안전과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빠른 검사를 유도함.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홈페이지 제작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명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공지를 통해 서울시, 방대본의 코로나 19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음
- 제공되는 정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일본어, 스페인어로 번역해 제공하였으며 수어도 함께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극대화했음

III.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기	사업 계획	추진 실적	사유
----	-------	-------	----

5. 17 ~ 5. 27	어플리케이션 5 개 검진독려 광고 배포	- 잭디, 그라인더, 딕쏘, 블루드, 나인몬스터 상기 5 개 어플에 팝업광고 또는 배너광고를 실시	
5. 17 ~ 5. 27	웹페이지 검진독려 광고 배포	- 이반시티 메인 배너에 대책본부와 서울특별시 공동명의 검진독려 광고를 게시	
5. 17 ~ 5. 27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홈페이지 제작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명의 홈페이지를 개설 - 공지, FAQ, 활동브리핑, 성명/논평, 상담 메뉴를 개설하고 대책본부에서 발행하는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온라인 익명 상담도 가능하도록 개설했다	
5.17 ~ 5. 27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소속 단체 SNS 이용 홍보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소속 단체들의 SNS 를 통해 검진독려 홍보물과 서울시의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익명검사 등을 홍보	

IV. 사업추진 성과

○ 어플리케이션 검진독려 홍보

- 5 개의 어플리케이션에 검진독려 홍보를 함으로써 서울시와 대책본부가 함께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인권침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

○ 웹페이지 검진독려 홍보

-
- 이반시티 메인배너에 검진독려 홍보물을 게시함으로써 서울시와 대책본부가 함께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인권침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
 - 젊은층에게 검진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대책본부의 결정으로 히즈카페, 까만봉지(웹툰사이트)에 검진독려 광고를 추가 게시
 - 대책본부 1 차 활동브리핑 자료를 통해 공유된 검진독려 홍보물은 한글버전 5,734 회 도달, 38 회 공유 / 영문버전 4,324 회 도달, 38 회 공유됨
 - 대책본부 2 차 활동브리핑 자료를 통해 공유된 검진독려 홍보물은 한글버전 3,391 회 도달, 14 회 공유 / 영문버전 2,723 회, 12 회 공유됨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홈페이지 개설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홈페이지를 개설함으로써 서울시에서 홍보하는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익명검사 등의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함
-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스페인어로 검사정보를 업로드 하고 수어정보도 업로드 함

6. 서울 외 지역과의 소통

1) 활동 개요

- 대책본부 결성 초기에는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는 6 개의 성소수자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대응을 하였음. 이후 5 월 17 일 지역단위로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이하 'QIP')가 상황실 단위에 결합함. QIP 의 결합으로 수도권지역에 한정되어 활동하던 한계가 어느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음.
- 대책본부는 각 지역에서 코로나 19 로 인한 성소수자 인권침해 상황을 확인하고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지역 퀴어문화축제, 대학내 동아리등 아래 11 개 단체와 소통을 진행함.

경남퀴어문화축제, 풀라리스(광주), 광주인권지기활짝,
대구퀴어문화축제(무지개인권연대), 개인활동가(대전_솔롱고스),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다채로운(울산), 전주퀴어문화축제(열린문),
퀴여움(제주_대학동아리), 제주퀴어문화축제,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2) 각 지역별 상황

가) 경남지역 (경남퀴어문화축제)

- 이태원에서 확산된 코로나 이슈가 있을 당시 조직위 내부 활동가가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를 진행함, 연대단체로의 확산의 우려가 있어 타 단체에 알렸으나 연대단체 내부에서 "이태원을 다녀왔다", "성소수자 당사자 아니냐?" 등의 소문이 돌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도의 사례가 있음

-
- 5 월 20 일부터 고등학교 3 학년의 정상등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픈퀴어(당사자성을 밝힌 성소수자)의 경우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함. 우선 지역에서 당사자와 연락을 하고 있다고 알림- 상황에 따라 땡동등 연계를 안내하고 대책본부 차원에서 고민하였으나, 당사자가 문제제기 원치 않음에 따라 종결함.

나) 광주지역 (광주인권지기활짝)

- 코로나 19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에 관한 특이사항 없음, 다만 의료접근성과 관련돼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함.

다) 부산지역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 이태원을 방문한 확진자가 부산 사하구에서 발생, 사하구청에서 확진자의 출생년도와 성별을 공지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함.
- 확진자의 직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문제 발생
- 부산에서도 별도의 사례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서울지역 대책본부 링크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 사례 수집을 위한 설문 링크를 홍보하고 있음.

라) 전북지역, (전주퀴어문화축제, 열린문)

- 5 월 17 일 / 피해사례가 들어온 건 없지만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함, 전북 김제시에서 이태원클럽관련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직장명이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확인.
- [김제시청]이태원 방문자 및 전북 20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백구면주민, 보건소 및 지소 직원) 검사결과 69 명 전원 음성 판정/ 증상 의심시 보건소로 상담바랍니다.
- 박준배 김제시장은 후보시절 선거공보물에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시한 만큼 우려의 입장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에 결합을 논의중, 이후 전북지역 코로나 19 성소수자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행동을 시작할 예정에 있음. 구체적인 결합단위는 아직 확정된바 없으며 사례수집과 대응, 나아가 상담업무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5 월 19 일 / 전북 코로나 19 긴급행동의 연대체 구성은 완료됨 21 일 목요일에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함.김제시 대응의 경우, 지역의 인권단체와 논의 중이고 성명문을 작성 중에 있는데 긴급행동을 비롯해 직접적인 대응이 조금 늦어지고 있음.
- 5 월 27 일 / 전북 긴급행동은 조직 구성의 어려움으로 중단. 김제시청의 방역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https://twitter.com/OpenDoor_JB/status/1265470939019374592?s=20

마) 기타지역

- 대전, 충남, 대구, 대전, 제주지역의 경우 별도의 모니터링이나 사례수집등을 하고 있지 않음.

3) 평가

- 유흥업소나 클럽에서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보도는 이전에도 있었음. 그렇지만 이태원은 비란의 수위가 이전과 달랐음. 게이클럽이라며 대중의 관심을 끌며 시작된 언론은 혐오를 확산 시켰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음. 비슷한 시기 서울지역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수는 5 월 10 일 오전 10 시 기준 서울 30 명, 경기 12 명, 인천 6 명, 부산 1 명, 충북 1 명, 제주 1 명 등 51 명, 5 월 14 일 오전 10 시 기준 누계 서울 73 명, 경기 25 명, 인천 18 명, 충북 8 명, 부산 4 명, 충남 1 명, 전북 1 명, 경남 1 명, 강원 1 명, 제주 1 명등 133 명임. 4 월 말까지 이어지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부 지침의 완화와 5 월초 황금연휴의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서 서울을 오가고 코로나 19 는 번져갔음.

-
- 대책본부는 지역과 소통하며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고민들을 함께 이어가며 지역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 고민했던 내용의 결과와 중앙정부, 지자체와의 소통의 내용, 검진의 독려, 사례수집의 링크를 공유하고 단체 커뮤니티에 홍보를 요청했음. 하지만 지역 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사례는 별도의 모니터링이나 수집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코로나 19 감염확산의 우려와 성소수자 혐오는 결합되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지만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지역에서 이어 나가기에 너무나 버거운 현실. 지역에 단체가 있으면 다행이고 많으면 한두개의 단체들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모든 성소수자 의제들은 그 단체에 집중됨. 더구나 해당 지역에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엔 해당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란 더욱 어려움. 전북과 경남과 같이 지역의 역량이 되는 경우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모니터링이나 사례 수집, 지자체와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음. 수도권 지역에서 오가던 많은 고민들과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이뤄낸 결과들만이 지역에 전달되어 수정될 뿐이라는 한계가 있었음.

7. 총평

“빠르게 대응을 시작한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구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들과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이태원 집단감염 상황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 모여서 긴급 대응 회의를 진행했다. 그 회의는 그 다음 날에도, 그 다다음 날에도 소집되었고, 며칠 후 코로나 19 성소수자긴급 대책본부라는 이름으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렇게 빠르게 대응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혐오와 차별, 낙인과 멸시에 꾸준히 대응해온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HIV/AIDS 인권운동이 쌓아온 경험과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긴급’ 대책본부라는 이름처럼, 정말 긴급하게 매일 아침 상황실 회의가 진행되었고, 대응 실무가 이루어졌다. 대책본부의 구성은 이후 확장되어 더 많은 단체가 합류했다. 워낙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긴급상황이었다보니, 보다 많은 단체와 처음부터 천천히 다 살피며 진행되지는 못했으나,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공동체의 안전을 함께 지키자는 메시지, 커뮤니티에게 전달된 마음”

이태원 상황이 발생한 후,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사회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가득 넘쳐났다. 질병에 대한 낙인,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에 대한 혐오가 서로 만나,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사회의 집단적인 멸시와 비난을 오롯이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불안과 초조함, 서러움과 분노, 죄책감과 원망감 등 온갖 감정이 휩쓸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게, 대책본부가 만들어졌고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은 일말의 안도감을 주었다. 대책본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검진을 독려하고 ‘함께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메시지가, 그 마음이 한국의 모든 성소수자들에게 가 닿지는 않았겠으나, 대책본부의 네트워크 안에서 확인이 되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반응들은 따듯했다. 대부분 마음이 놓인다거나,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반응이었다. 평소에는 인권운동이 본인의 삶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대응을 지켜보며 밀접한 연결성을 확인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마음건강과, 인권운동과 커뮤니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행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다.

“성소수자로서, 성소수자 시민으로서 정부와 소통이 가능했던 시기”

대책본부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코로나 19 검진을 독려하고, 경기도 등 지자체와 만나 대응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국무총리,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으로부터 ‘혐오와 차별은 질병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발표, 브리핑되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이었으나,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성소수자 시민으로서 그동안 정부와 소통하고자 했던 수많은 노력들을 생각했을 때, 인권이 방역에 동원되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방역은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되고 자신과 타인을 돌보려는 의지와 마음, 수단을 가질 수 있을때 비로소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방역과 인권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성소수자가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되고, 성소수자 인권을 정부와 지자체가 존중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밀고나갈 필요가 있다. 이태원발 확산 위기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자 성소수자는 당장 방역당국의 관심에서 멀어진듯하다. 따라서 성소수자 시민으로서 어떠한 시민권을, 어떠한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언제 획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지게 된다. 성소수자 시민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서 존재했고,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정부/지자체와 소통한 경험은 이후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앞으로 획득할 시민권에 대해 고민할 때, 활동할 때 참고할 중요한 경험으로 남는다.

“언론, 미디어의 혐오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혐오를 예방”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나온 언론의 혐오조장 기사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더욱 좌절케 했다. 혐오의 언어로 쓰인 기사들을 곧 대중들의 성소수자 혐오로 이어졌다. 때문에 언론의 혐오대응이라는

대책본부의 활동은 매우 중요했다. 거의 매일매일 대책본부는 언론에 대응하는 입장과 상황을 발표, 공유했다. 이를 통해 언론의 혐오기사가 왜 문제적인지, 올바른 보도는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고민이 전달되어 더 심각한 언론의 혐오기사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더 많은 소통과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하지만 대책본부의 활동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도 했다. 다방면으로 노력하긴 했으나, 대책본부의 활동은 성소수자 이주민, 성소수자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성소수자이면서 가지는 다양한 정체성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려웠다. 또한 성소수자 대중,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보다 더 많은 소통을 할 필요성도 있다. 인권운동의 언어와 몸짓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대중들과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도전해야 할 과제들로 남는다. 과제가 있다는 것은, 그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활동이 계속된다는 뜻이기도 할 터이다. 감염병의 시기에 긴급하게 진행된 대응 내용이 기록된 본 백서는, 활동을 정리하는 자료이자, 보다 발전된 활동을 하겠다는 포부이기도 하다. 그리고 보다 많은 소통과 활동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디딤돌이기도 하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앞으로 더 많은 소통과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서들을 만들고, 기록하고, 서로 전달할 것이다.

“발굴되는 과제들이 잘 해결되어, 인권운동 모두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 19 대응은 끝나지 않았다. 과제들은 발굴되었고, 또 발굴되고 있다. 그 과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그리고 그 성과가 모두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교류하자. 필요한 활동은 남아 있다.

III. 활동 기록

1. 대책본부 출범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법조 담당
발신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담당	: 창구(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제목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출범 및 활동계획 발표 긴급 기자회견
발송일	: 2020 년 05 월 11 일(월), 총 2 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평등과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낙인찍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차별 없는 검진을 약속했지만 몇몇 지자체와 언론은 확진자의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고 공중 보건과 상관없는 여론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성소수자 단체들은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대응, 인권침해 상담, 검진홍보 및 독려, 방역당국과의 직접 소통을 하려 합니다. 우리 성소수자 단체들은 코로나 19 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길 바라고 있으며, 방역당국과 소통하며, 검진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총 7 개 단체, 소속단체는 늘어날 수 있음)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5. 아래에 세부사항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6. 현장 안전을 위해 기자회견장 출입은 30 명으로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자회견장은 10 시 30 분에 오픈합니다.

7. 조선, 중앙, 동아일보 및 종합편성채널, 국민일보, 한국경제는 취재를 거절합니다.

- 아 래 -

● 개 요

- 일 시: 2020 년 05 월 12 일(화), 11 시

- 장 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9-1 3 층)

- 주 관: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 세부진행

사 회

l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순 서

경과보고 및 활동소개 l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언론대응 l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례수집 및 차별상담 l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검진홍보 및 독려 l 창구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방역당국과 소통 | 나영정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기자회견문 낭독 | 소주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기진 (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질의응답

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 본부
담 당	창구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mail: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
제 목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출범 및 활동계획 발표 긴급 기자회견
발 송 일	2020 년 05 월 12 일(화), 총 5 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평등과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낙인찍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차별 없는 검진을 약속했지만 몇몇 지자체와 언론은 확진자의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고 공중 보건과 상관없는 여론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성소수자 단체들은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성소수자혐오와 차별 대응, 인권침해 상담, 검진홍보 및 독려, 방역당국과의 직접 소통을 하려 합니다. 우리 성소수자들은	

코로나 19 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길 바라고 있으며, 방역당국과 소통하며, 검진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응본부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총 7 개 단체, 소속단체는 늘어날 수 있음)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5. 아래에 세부사항 및 기자회견문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바랍니다.

- 아 래 -

- 개 요

- 일 시: 2020 년 05 월 12 일(화), 11 시

- 장 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9-1 3 층)

- 주 관: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 세부진행

사 회

l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순 서

경과보고 및 활동소개 l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언론대응 l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례수집 및 차별상담 l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검진홍보 및 독려 l 창구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방역당국과 소통 l 나영정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기자회견문]

성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진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출범하며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업소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일어난 이후 언론들의 악의적인 보도가 나왔다.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가 하면, 방문 장소들을 낙인찍는 가짜뉴스와 가십이 조장되어 여론몰이 되기도 했다. 이는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두려움을 갖기 충분했다.

정부와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차별과 혐오가 질병예방과 공중보건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차별적인 검진이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다행이기도 하지만, 지자체들은 방문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약속하면서도 미신고로 인한 사안 발생 시 엄중문책(인사조치 및 구상권 청구 등)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현재 중요하고 어려운 상황을 주체적으로 타개해나가기 위해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출범했다.

대책본부는 우선적으로 보건당국과 소통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이태원 및 강남 방문자들이 검진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는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검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각 단체별로 산개되어 있는 상담을 확대하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수시로 상황을 정리하면서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언론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검진대상자들이 불안을 갖지 않으며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자가 격리와 치료기간 동안에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병이 특정 집단을 표적하는 것은 공중보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진과 치료, 회복과 더불어 사회에 다시 복귀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은 이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에서 차별하고 배제하는 상황과 구조에 반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지금의 사태 이전부터 오랫동안 평등과 인권을 요구해온 행동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언론에 요구한다. 코로나 19 를 빌미로 자행하는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 감염병에 특정 집단과 특정 장소를 연결시키는 것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타인에게 전가하여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질병에 대한 예방은 던져두고 확진자의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성소수자 문화와 장소에 성적 낙인을 찍으며 가짜뉴스를 만들고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는 감염에 노출되었을지 모르는 이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하나. 보건당국에 요구한다. 확진자와 접촉자들이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검사 받기를 기피한다. 무엇보다 이들이 확진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를 하게될 경우 동선이 공개되고 신상이 노출되는 것은 일터의 차별과 가정폭력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당국은 검진과 자가격리, 치료과정 속에서 당사자들이 겪을 수 있는 차별과 혐오에 전력을 다해 반대하고 있음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구성원들의 인권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태도로 예방에 임하라. 이들이 안전하게 검사받고 자가격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차별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채널을 마련하라. 우리는 예방을 위해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보건당국의 노력과 의지에 협력해나갈 것이다. 더불어 확진과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할 직장내, 가정내 괴롭힘과 해고, 폭력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지금이야 말로 국가와 지자체가 성소수자 차별 시정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간청한다. 용기를 내어 서로를 지키자. 짧은 시간동안 사방에서 쏟아졌던 비난과 공격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사회의 토양이 여전히 혐오와 차별로 물들어 있었음을 체감케 했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아물기 어려운 상처를 받고 불안 속에 자신의 삶을 달아 건 채 일상을 견뎌내고 있다. 코로나 19 는 커뮤니티의 풍경을 극단적으로 바꿨고,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검진을 받으러 가는 발걸음은 질병여부의 확인을 넘어 나의 맨살을 드러내길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동료들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은 오랜 시간 거리 위에서 만나 함께 목소리 높였던 행진의 발걸음과 함께 한다. 지금 우리는 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자. 서로의 삶을 응원하자.

혐오와 차별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검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치료와 회복 기간 동안 당사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어떤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책본부는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당사자들이 검사와 치료를 받고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 속에 차별받지 않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지금 필요한것은 혐오가 아닌 연대이다
- 인권보장이 방역의 최선이다
- 코로나 19, 차별없는 안전 보장하라
- 용기를 내어 사랑하는 사람과 동료시민을 지키자.

2020. 5. 12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2. 릴레이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수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신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제목	: [취재요청서]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발신일	: 2020년 5월 27일(수)
문의	: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 일시/장소 : 2020년 5월 29일(금) 오후 2시 - 오후 5시

국민일보 -> 뉴시스 -> 머니투데이 -> 언론중재위원회

○ 주최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 진행

- 각 언론사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시 1~2인 발언 및 퍼포먼스 진행
- 각 기자회견 지점 및 시각은 다음과 같음
- 오후 2시 : 국민일보(여의도)
- 오후 3시 : 뉴시스(명동)
- 오후 4시 : 머니투데이(청계천)

오후 5 시 : 언론중재위원회(프레스센터)

, *각 지점 사이는 대중교통 내지 도보로 이동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코로나 19 확산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커뮤니티에 검진을 독려하며 방역당국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에서 5. 12. 출범한 연대체로서, 5. 27. 현재 총 23 개의 단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지난 5. 8.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 이후 일부 언론들은 클럽명과 관련 불필요하게 게이클럽을 강조하거나, 게이 남성들의 만남과 문화를 가십화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했습니다. 이에 대책본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언론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언론의 혐오 조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그러나 지금까지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언론을 통해 생성,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본부는 온라인 활동만으로는 문제점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오프라인 직접 행동을 통해 이러한 혐오조장 언론사에 직접 방문하여 항의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언론중재위원회에게 이들 언론사에 대한 시정권고를 요청하고 혐오가 아닌 평등과 안전을 진전시킬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역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5. 대책본부가 주된 항의 대상으로 삼은 언론사는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뉴시스입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은 오후 2 시부터 이들 언론사를 차례로 방문하여, 각 언론사 앞에서 1-2 인의 발언 및 성명낭독, 퍼포먼스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5 시에 언론중재위원회 앞에서 마무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0. 5. 27.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0529 릴레이기자회견 현장준비 및 큐시트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공동행동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 날짜 : 5 월 29 일 (금 2 시~)
- 장소 : 코로나 19 이태원 확진자 증가 이후 혐오선동에 앞장선 언론사들과 언중위,
- 내용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공동행동
 -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 일시: 2020. 5. 29 (금)
 - 장소 및 동선: 국민일보(2 시)>뉴스시스(3 시)>머니투데이(4 시)>언론중재위원회(5 시)
 - *머니투데이-언중위는 도보이동

[1 차 홍보 내용]

코로나 19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 이후 일부 언론들은 클럽명과 관련 불필요하게 게이클럽을
강조하거나 게이 남성들의 만남과 문화를 가십화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했습니다. 이에 대책본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언론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언론의 혐오 조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언론을 통해 생성,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본부는 온라인 활동만으로는 문제점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오프라인 직접 행동을 통해 이러한 혐오조장 언론사에 직접 방문하여 항의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언론중재위원회에게 이들 언론사에 대한 시정권고를 요청하고 혐오가 아닌 평등과 안전을 진전시킬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역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 28 일 2 차 웹자보 홍보 :
- 혐오방역 좌표 지도안내, 현장 예방지침(마스크착용, 손세정제 등)
- 국민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 언중위, 광화문광장으로 좌표를 찍어 발언과 퍼포먼스 진행, 기자회견 낭독으로 마무리.
- 전체 방향
국민일보는 인권을 해쳤어.(오랜 혐오선동) / 뉴시스는 신뢰를 해쳤어.(인권활동가의 선의를 모욕) / 머니투데이는 연대를 해쳤어.(찜방 르포에 집중하며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들)
- 퍼포먼스
공통형식: 국민일보, 뉴시스, 머투가 써진 펜으로 지켜야 하는 단어(인권, 신뢰, 연대)를 공격.
언중위: 혐오의 말들을 소독하자. 방역분무기로 앞서 퍼포먼스에서 사용한 혐오선동언론의 펜을 방역, 이 펜들로 글을 다시 쓰고 인권, 평등, 연대의 단어들이 나타남.

● 진행 타임라인

시간	실무(각 담당 체크)	비고
13:00	친구사이 출발(소품 및 보도자료, 피켓 출력해서 챙겨올 것): 창구, 종걸, 주누	앰프는 민변에서 대여
13:30	준비 및 담당자(촬영 및 섭외담당) 국민일보 집합, 현장 세팅, 퍼포먼스 섭외 및 연습	
14:00 -14:20	국민일보 기자회견 사회: 웅 발언: 자캐오(무지개예수), 가브리엘(나누리+) 성명낭독: 홀릭(서울퀴문축) 퍼포먼스	*첫 기자회견에서는 전반적 취지설명, 대책본부 활동 소개 포함 *사회는 상황실에서 소화 *퍼포먼스 하면서 사회자가 어떤 장면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매 기자회견 끝나면 다음 장소로 이동 > 사회자 안내
15:00 -15:20	뉴시스 기자회견 사회: 종걸 발언: 소주(알),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성명낭독: 오소리(행성인) 퍼포먼스	
16:00 -16:20	머니투데이 기자회견	*끝나고 언중위까지 도보이동- 사회자 안내

	사회: 한희 발언: 랑희코로나 19 인권네트워크), 나영(세어) 성명낭독: 임신규(정의당성소위) 퍼포먼스	
17:00 -17:40	언론중재위원회 기자회견 사회: 기진 발언: 최진주(언론노조성평위원장), 혜인(차제연), 서보경(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계종(문의) 선언문 낭독: 현장에서 퍼포먼스	*언중위 청원서 준비(한희)

● 준비물

- 앰프(민변 대여)
- 플래카드 (친구사이)
- 보도자료 출력(친구사이)
- 피켓 출력(친구사이)
- 퍼포먼스 소품 (친구사이)

● 준비팀 현장실무

- 상황실 1 시반 집합 (국민일보)

- 언론담당(기자 관리, 현장 보도자료 배포): 창구
- 발언자 소통(각 담당자)
- 퍼포먼스: 타리, 주누(사전 연습 및 현장 섭외+진행)
- 촬영: 연분홍치마(영상), 사진촬영(오소리)
- 앰프(민변)/ 플랑, 선전물품 담당(친구사이)
- SNS 게재 (각 포인트마다 사진/발언문/성명서(or 선언문) 게시) (한희+창구)

● 주요 구호

-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 인권이 예방의 지름길이다!
- 언론의 증오선동 지금당장 out!
- 편견과 낙인은 뉴스가 아니다!
- 언론의 소수자혐오가 사회를 망친다!
- 국/민/일/보는 인권을 해쳤어. / 뉴/시/스/는 신뢰를 해쳤어. / 머/니/투데/이는 연대를 해쳤어. (c.f. 량현량하 ‘학교를 안갔어’)
- 국민일보 아웃! 머니투데이 아웃! 뉴시스 아웃! (주고받으며)

● 보도자료- 성명서 및 선언문 첨부 (작업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ycDsji0pz3YN0mdwnU8lOFS4kd9onHvVD1nheKFCFo/edit?usp=sharing>

*현장에는 각 포인트별 성명서만 묶어서 배포(기자들이 국민일보에서 받고 바로 가지 않도록)

사후보도자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담당
발 신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담 당	창구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제 목	[사후보도자료]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발 송 일	2020 년 05 월 30 일(토) 총 *** 매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 일시/장소: 2020 년 5 월 29 일(금) 오후 2 시 – 오후 5 시 40 분

국민일보(14 시)->뉴스1(15 시)->머니투데이(16 시)->언론중재위원회(17 시)

○ 주최: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 진행

- 각 언론사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시 1~2 인 발언 및 퍼포먼스 진행
- 각 기자회견 지점 및 시각은 다음과 같음
- 오후 2 시: 국민일보(여의도)
- 오후 3 시: 뉴스1 (명동)

오후 4 시: 머니투데이(청계천)

오후 5 시: 언론중재위원회(프레스센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코로나 19 확산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커뮤니티에 검진을 독려하며 방역당국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에서 5. 12. 출범한 연대체로서 5. 30. 총 23 개의 단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지난 5. 8.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 이후 일부 언론들은 클럽명과 관련 불필요하게 게이클럽을 강조하거나, 게이 남성들의 만남과 문화를 가십화하고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보도를 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했습니다. 이에 대책본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언론의 혐오 조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그러나 지금까지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언론을 통해 생성,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본부는 온라인 활동만으로는 문제점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오프라인 직접 행동을 통해 혐오조장 언론사에 직접 방문하여 항의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언론중재위원회에게 이들 언론사에 대한 시정권고를 요청하고 혐오가 아닌 평등과 안정을 진전시킬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5. 대책본부가 주된 항의 대상으로 삼은 언론사는 국민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입니다. 릴레이 기자회견은 오후 2 시부터 각 언론사를 차례로 방문하여 언론사 앞에서 1~2 인의 발언 및 성명낭독, 퍼포먼스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5 시에 언론중재위원회 앞에서 마무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20. 05. 29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발언 및 성명 모음

[국민일보 발언 1] - 자캐오 신부 (무지개예수)

저는 성소수자 길벗들과 동행하며 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무지개예수’에 소속된 성공회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원장 사제인 자캐오입니다.

국민일보는 홈페이지에 있는 대표이사 인사말을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국민일보는 복음을 실은 국내 유일의 종합일간지입니다.1988 년 탄생해 30 년을 지나면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주류 언론으로 굳건히 자리매김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생성하고 확산하는데 앞장서는 언론사’를 직접 방문해 항의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일보가 말하는 ‘복음’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 뒤에 있는 국민일보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주류 언론”으로 자리매김해 그만큼의 ‘사회적 책무와 정론직필’을 감당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국민일보는 자신들의 ‘사시’(社是), 즉 언론사로서 스스로 다짐하는 존재 의미이자 제작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AGAPE).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실현되게 하기 위해 언론의 사명을 다한다.)

진실(TRUTH). (진실이 최후에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진실을 보도하며 정직한 사회 구현을 위해 언론의 사명을 다한다.)

인간(HUMAN BEING).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창조 섭리에 따라 가치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언론의 사명을 다한다.)”

그런데 지난 5 월초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에 대한 국민일보의 보도 행태는 위와 같은 사시와는 전혀 다른 ‘편견과 차별, 혐오에 근거한 왜곡 보도’에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후 여러 언론이 받아쓰기를 하듯 퍼트린 ‘편견과 혐오로 얼룩진 첫 번째 왜곡 보도’의 시작이 바로 국민일보 기사였다는 부분입니다.

지난 7 일, [단독]이란 이름으로 나갔던 국민일보의 기사 제목은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 19 확진자 다녀갔다>이었습니다. 곧이어 <“저의 잘못, 이태원 클럽 호기심에 방문했다”...코로나 19 확진자 해명>이라는 제목을 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기사 제목과 내용은 곧바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왔고, 이후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서도 비판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문방송 모니터’는 물론, 한국기자협회와 방역당국도 그와 같은 보도 방향과 행태에 대해 적극 비판했습니다.

국민일보 일부 기자들의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방향과 행태는, 지금 우리에게 간절한 ‘한국 사회의 긍정적 역동성과 전염병 재난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다시 말하는 게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편견과 혐오를 확산하는 주요 원인이 된 국민일보의 일부 보도는 반성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일보 일부 기자들의 악의적인 보도 방향과 행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최근에도 [동성애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 시리즈 등 매우 비과학적이고 편견과 무지에 근거한 과장되고 혐오표현적인 기사를 지속해서 내보내 왔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의심되는 국민일보 일부 기자들. 이들은 일관되게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고, 노골적으로 일부 수구적인 개신교의 입맛에 맞는 제목과 내용의 기사를 생성해 적극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안팎의 지속된 비판과 자제 요청에도 이들의 ‘무지한 용기’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일부 수구적인 개신교 집단과 지도자들의 입맛에 맞도록 국민일보를 길들여 온 국민일보 대주주의 의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일보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속인 순복음교회가 운영하는 국민문화재단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언론이 감히 ‘사랑, 진실, 인간’이라는 사시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사시를 내걸고, 저 따위 ‘혐오와 왜곡, 반인권적인 기사’를 내보낸 곳이라면 ‘사회에 해악이 되는, 자기 기만적인 이해 집단’에 불과하다고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일보 일부 기자들과, 이들의 패악을 방기하고 종종 적극 옹호하는 듯한 국민일보 대주주가 하루 빨리 ‘언론의 사회적 책무’을 제대로 깨닫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혐오, 왜곡, 반인권’의 방향과 행태로부터 돌이켜, 자신들이 내세우는 ‘사랑, 진실, 인간’이라는 복된 길로 하루 빨리 돌아오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환대와 연대, 은총의 하느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의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 돌이킴을 촉구하며 연대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일보 발언 2] - 가브리엘(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발언문은 따로 없습니다.)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 국민일보

[기자회견문] 국민일보는 증오선동을 당장 멈춰라

코로나 19 이태원 확진자가 나온 직후 국민일보 유명대기자는 단독보도를 전면내 내세워 ‘게이’업소를 명기하고 동성애자들이 만나는 공간에 집중했다. 보건당국이 공개하지 않은 내용을 질병과 상관없이 알린 것은 코로나 19 위기를 빌미삼아 성소수자 혐오를 노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백상현기자는 한 술 더 떠 게이 포털사이트 게시판의 글들을 그대로 옮겨 남성 동성애자의 활동 패턴을 알아야 코로나 19 를 막는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들의 만행은 시종일관 동성애 반대를 외쳐왔기에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국민일보는 퀴어퍼레이드와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성소수자들이 자기 목소리 내는 장소라면 어디든 찾아와 누구보다 열심히 성소수자의 뉴스를 생산했다. 문제는 위기를 틈타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가십화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양산한 기사들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의제들을 겹핍으며 트집 잡고 성적 낙인찍기 급급했다. 정보에 대한 객관성도 결여한 채 성소수자의 구체적인 삶을 문란함으로 조리돌림 하는가 하면, 동성애는 HIV/AIDS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동성애 반대 논리를 만들기도 했다.

최근 국민일보 노조의 규탄성명이 올라온 직후 해당 언론사의 노골적인 성소수자 혐오선동은 다소 주춤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이후에도 차별금지법 반대 기사를 싣는가 하면, 성소수자 혐오를 멈추라는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식의 논지를 수차례 펴내며 혐오의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기자들의 선동이 내부적으로 견제 받는 동안 염안섭과 소강석 목사, 한휘진 서울시청 공무원 등 혐오 인사들의 칼럼을 싣는 등 동성애 반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국민일보는 급기야 광고를 활용하여 혐오 여론을 전파하기에 이르렀다. 성소수자 반대광고 뿐 아니라 문제적인 목사를 지지하는 광고를 싣는 국민일보의 행태는 지면 낭비일 뿐 아니라 비리와 혐오선동의 온상인 교회와 폭력적인 목사,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에게서 나오는 자본을 바탕으로 있다.

국민일보는 주류언론으로서 증오 선동에 앞장섰다. 이는 저널리즘은커녕 언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작태다 나름 없었다. 국민일보는 소수자 혐오를 바탕으로 적폐의 나팔수가 되었고, 증오를 바탕으로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퇴행시키는데 일조했다. 국민일보는 인권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늦게나마 혐오여론을 조장하는 방향성에 반기를 드는 내부 견제집단이 있음을 확인한 점은 다행일 것이다. 대책본부는 혐오선동의 나팔수 역할을 놓지 않는 국민일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안팎에서 반기를 들며 국민일보의 변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언론노동자들을 지지할 것이다.

언론의 소수자혐오가 사회를 망친다!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편견과 낙인은 뉴스가 아니다!

언론의 증오선동 지금당장 out!

2020 년 5 월 29 일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뉴시스 발언 1] - 소주(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에서 활동하는 소성욱입니다.

오늘(5 월 29 일), 참 화나고 속상합니다. 이렇게 언론사를 좇으며 문제를 제기하고 알려야만 하는 상황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또 어느 언론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지는 않을까, 이상하게 알려지지는 않을까, 우려도 한켠에 자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되기에, 그저 조용히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에, 우리의 분노를 이렇게, 문제제기와 성찰을 위한 제안으로, 언론사들에 다시 말을 겁니다.

뉴시스는 5 월 14 일, 약 보름 전, “이태원발 코로나 19 검사자 에이즈환자 소문 ‘뒤송송’, 충북도 ‘확인 안돼’”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코로나 19 를 성소수자와 엮으며 에이즈에 대한 공포까지 확산시키는, 문자 그대로 뒤송송하기 그지없는 내용이었습니다. HIV 와 에이즈가 어떻게 구분되는 지도 모르는 듯 해보인 그 기사는, HIV 감염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가정책과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는 것이

공익을 해치는 것처럼 표현했더군요. 관련해서 최초보도한 언론 충청타임즈와 뉴시스의 수준을 알만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인권이 존중되는 치료와 지원이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아낸다는, 곧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길임을, 역사가 증명한 사실을 왜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5월 20일, 성소수자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보도한 박민기 기자의 기사를 봤을 때에는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과거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직접 찾아오기도 했던, 활동가들이 소통하고 믿었던 기자이기에, 왜 인터뷰에 응한 활동가들의 발언을 어떻게 이렇게 왜곡시켜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 기사는 방역에 도움되지 않는, 혐오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한 활동가들을 배신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뉴시스의 이해할 수 없는 반인권적 언론보도의 행보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5월 23일, 약 일주일 전에는 코로나 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분의 개인정보인 나이, 성별, 직장근무지, 사는 지역에 더해, 이태원 모 클럽에 갔다 왔다는 사실과 그 클럽이 성소수자들이 주로 간다는 정보까지. 심각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사였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득 될 수 없는 이러한 기사들을 왜 내보내는 지 우리는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즉시 뉴시스에 문제제기를 했고, 소통을 시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통은 결국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뉴시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하고 깊은 뉴스로 독자와의 공감을 추구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지만, 무엇이 공감이었는지,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었는지, 어느 면에서 깊이가 있었는지 의문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라도 다시 말을 겁니다. 이렇게 건네는 말은 무겁습니다. 언어, 말,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인 언론은 그 영향력을 두려워해야 할텐데요, 우리의 이 메시지의 무게를 알아줄까 걱정이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말을 겁니다. 언론은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네는 말에 어떻게 표정짓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시스 우리가 건네는 이 말, 언어, 메시지를, ‘정확하고, 깊게, 그리고 공감하며’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시스 발언 2] -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코로나 19 성소수자 대책본부에서 ‘뉴시스’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기사를 내보낸 데에 이어, 거듭된 개선 요구에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을 듣고 매우 참담했습니다.

문제가 된 뉴시스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황당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낙원동과 익선동 내 업체명들을 나열해놓고는 성수자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해당 업체들이 뉴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언론 매체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론’이 가진 권력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힘을 올바르게 쓰면 좋을 텐데, 뉴시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주민이 에이즈 환자인지는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19 와 에이즈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뉴시스는 독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헬스장이 코로나 19 확진자 동선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해당 소식을 듣고 저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사회에 퍼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위축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영업정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시스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주변 상인들의 인터뷰를 받아 “불안하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헬스클럽을 이용하던 성소수자들과 지역 그리고 상권에 어떤

존재였을까입니다. 아마도 지역의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이지 않았을까요? 뉴시스에 등장하는 가게로부터 물건을 사고, 도란도란 술마시고, 가게 직원과 사장님들과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 그런 관계말입니다. 그런데, 뉴시스는 그들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너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이라고 말입니다. 그 기사는 코로나 19 피해 방지, 해당 지역, 헬스클럽 그리고 이용자,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시스의 기사는 <재난보도준칙>에도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재난보도준칙>을 보면, “언론의 재난보도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춰본다면, 뉴시스의 기사는 코로나 19 방역을 훼방하고 피해를 확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뉴시스는 뉴스통신사라는 점입니다. 뉴시스에서 생산되는 기사들이 계약을 맺은 다른 언론사에 뉴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시스는 국내 최대의 민영 뉴스통신사로, 해당 편집국에서 작성되는 기사들의 무게감을 깊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뉴시스의 상황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제동의 어떠한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일보에서는 노동조합 명의의 규탄성명이 나왔고, 기자들 사이에서 보도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일보가 잘 하고 있다고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개선의 여지라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뉴시스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혐오의 목소리를 멈추기 위한 첫 걸음은 그 내부로부터 ‘나는 그 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혐오 보도로 규탄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는 뉴시스 기자 및 직원분들의 움직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와 관련해 비단 뉴시스만이 성소수자 혐오보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19 성소수자 대책본부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 또한 그 반증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언론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없이 무력감을 느낍니다.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게 있고, <재난보도준칙>이 있었고 이번에 <감염병보도준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국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코로나 19 감염병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낙인과 혐오가 아니라 서로간의 소통이 전제돼야 합니다. 서로 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언론, 미디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 뉴시스

[기자회견문] 소수자를 향한 낙인으로 신뢰를 무너뜨린

뉴시스를 규탄한다.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는 향후 뉴시스와의 인터뷰 요청 및 기타 협력에 대해 보이콧하고, 다른 방식의 대응을 강구할 것을 결의했다.

대책본부는 출범 당시부터 국민일보와 크리스찬투데이 및 종편 언론들에 대해 보이콧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대책본부의 자체적인 결정이기에 앞서 오랜 시간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커뮤니티가 심각하게 인지해온 것이기도 하다. 해당 언론들은 인권 지향적인 정보전달을 무시한채 혐오 여론을 노골적으로 전시해왔다. 이들이 작성한 기사들은 혐오 선동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의도가 다분했으며, 그것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

최근에는 머니투데이와 뉴스원 등의 미디어까지 성소수자가 위기를 전파하는 집단이라는 논리에

공을 들이며 시민사회를 흔들고 있다. 그 중에서 뉴시스의 보도 행태는 심각하게 문제적임을 확인했다. 특히 코로나 19 이태원 확진자 증가 직후 기사들을 살펴보면 뉴시스는 일부 주민의 의견을 기사 표제에 배치하며 이웃으로서 성소수자 장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가 하면, 검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고안한 익명검사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수치만을 가져다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5 월 14 일 천영준 기자의 기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HIV 감염인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갔다. 해당 기사는 단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존재 자체를 낙인찍는데 나아가 지역사회에 질병 혐오를 조장한다는 점에 악질적이다. 5 월 20 일 박민기기자도 코로나 19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빌어 성소수자들의 만남 자체를 문제 삼고 도덕적 해이로 판단하며 이들을 질책한다. 그것은 코로나 19 를 성소수자가 확산시키는 것인 양 은연 중에 호도하는데, 이는 성소수자를 표적해서 질병의 공포를 가중시킨다는 점에 심각한 혐오 선동의 우려가 있다.

이들의 해악은 그것이 일관되게 유지하는 관점에만 있지 않다. 해당 기사들에는 보건당국과 성소수자 당사자,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싣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은 찬반양론의 구도 속에 일방적으로 잘라 붙여졌다. 이는 인권 지향적 정보전달을 당부하며 인터뷰에 응한 이들의 선의를 모욕하는 것이며 예방에 대한 적극적 협력과 제안을 거스른 채 혐오성 가십에만 집중하겠다는 언론의 의지를 보인 것이기도 하다. 과거 성소수자 활동가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어온 시간을 생각하면 저열한 낙인찍기 앞에 연대를 저버린 배신감과 괄씸함은 차치하더라도, 인권운동과 저널리즘이 함께 지켜온 공익의 방향타를 부숴버린 점은 언론으로서 책임을 저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이 어떤 흐름으로 치달고 있는가는 일말의 여지가 없다. 특정 집단에 혐오와 편견을 강화하는 관점은 결국 질병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노골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미 5월 23일 임선우기자는 특정 지역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다는 것을 노출시키는 것으로 모자라 그곳이 성소수자가 주로 가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의 거주지역과 직장까지 기사에 밝힘으로써 개인을 향한 공공의 낙인 여론을 선동하는데, 이는 언론이 개인의 기본적 존엄을 망가뜨리는 것과 다름없다.

뉴시스는 홈페이지에 ‘정확하고 깊은 뉴스로 독자와의 공감을 추구’한다고 의지를 밝힌다. 하지만 지금 뉴시스가 보이는 행태는 정확하지도 깊지도 않으며, 독자와의 공감은커녕 잘못된 정보와 관점으로 독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다. 이에 대책본부는 뉴시스의 성소수자 혐오적인 태도와 예방에 역행하는 태도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뉴시스는 연대를 무너뜨렸다. 사과와 함께 기사를 모두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언론의 소수자혐오가 사회를 망친다!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편견과 낙인은 뉴스가 아니다!

언론의 증오선동 지금당장 out!

2020년 5월 29일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머니투데이 발언 1 - 랑희(인권운동 활/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한 위험과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간 여러차례 감염병의 위협의 경험에서도 새로운 이 감염병으로 우리는 난생 처음 겪는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때문에 우리는 더욱 위기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들, 즉 취약한 사회복지, 안전하지 못한 노동현장, 공백이 많은 공공의료, 이미 고립되고 밀려나 있던 사회적 소수자, 혐오와 차별 등의 문제들입니다. 우리사회의 약한 고리들이 코로나 19 라는 위기에 가장 취약했던 것이고, 사실상 사회에서 밀려난 문제들이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방역이 단순히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것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며, 사회의 안전은 방역의 문제로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삶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권의 목록이 있는 것은 우리 삶이 그만큼 다양한 조건과 관계, 환경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인권의 목록이 바로 우리 삶을 구성하기에 감염병의 위기 대처가 이런 문제들을 외면한다면 그 대책들로써는 삶의 안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활방역의 지침 중 하나가 아프면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쉬어서는 삶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프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습니다. 아프다고 말해서 낙인이 찍힐까 두렵고, 아프다고 말해서 해고가 될까 두려운 사람들. 아프다는 말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삶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면 누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확진이 되어도 걱정없이 치료받고 회복해서 다시 건강하게 사회 속에서 관계맺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대가 있을 때 그 사회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전염되지 않기를 바라는만큼 아픈 사람들이 다시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위 'K 방역'이라고 불리우는 일련의 조치들이 감염의 통제를 넘어서 안전한 삶의 조건과 회복될 수 있는 미래의 삶에 대한 고려는 하고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공개가 누군가의 삶을 더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의 지원에 배제되어 존재를 부정당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행정적 편의가 우선되어 위기에서 회복될 수조차 없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이런 조치들을 시행하기 전에 인권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기는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언론의 책임 역시 가벼울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 와 관련되 기사는 무엇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클릭수가 우선이었을까요? 아니면 감염병의 위기에 더 취약한 사람과 조건을 드러내어 미처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해결해나가야할 문제가 무엇인지 다루는 것이 우선이었을까요? 기사의 가치가 언론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실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만들어지고 조장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억압적인 정책은 손쉽게 받아들여지고, 비대해진 행정권력도 용인하게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다루기 보다 자극적이고 휘발성이 강한 기사들은 이런 두려움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왜곡된 인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코로나 19 이후는 다를 것이고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달라진 사회의 모습이 모두가 더 안전한 삶이 되어야 한다면 지금 드러난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인권에 기반한 조치들도 변화해야 코로나 이후를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발언 2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에서 활동하는 나영입니다.

저는 오늘 릴레이 기자회견 중에 특히 머니투데이 앞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머니투데이야말로 “성소수자의 실체를 제대로 알려주겠다”는 사명감을 가장 잘 보여준 언론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명감에 찼는지 무려 5 년 전에 묵힌 보도를 꺼냈더라구요.

기자 스스로도 “2015 년에 '블랙수면방'을 취재하고도 워낙 자극적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기사화하지는 않았다.”고 쓰고 있으니

그 사명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사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워낙 평생을 이성 간의 성관계에 관한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소식들에 둘러싸여 살아서 그런지 도대체 어느 부분이 그렇게 놀랍고 자극적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맘에 들면 건드려 보고 반응이 있으면 관계를 하고, 거부하면 다른 방으로 간다”는 부분은 동의 여부를 확인하니 다행이다 싶고,

“복도 한쪽에는 휴게실이 마련돼 있었다. TV, 음료수 자판기, 재떨이 등이 있는 평범한 휴게실로 보였다. 입구 옆에 놓인 콘돔과 젤이 한가득 담긴 바구니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부분은 성건강을 지킬 용품을 잘 구비해 놓았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콘돔과 젤이 한가득 담긴 바구니라니, 얼마나 소중한가요.

우리는 지금 텔레그램 성착취방 사건을 보면서 그 동안 한국 사회가 폭력이 아니라 음란을 문제삼아 온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여실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가 평등한 관계인지, 무엇이 폭력인지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어떤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이 음란한지, 어떤 신체부위를 사용하는 게 문란한지, 몇 명과 하는지, 모르는 사람과 한 번씩 하는지 아는 사람과 여러 번 하는지 같은 것들에만 관심을 두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조차도 이성 간에 하면 괜찮은 것이 되고 특히 이성애자 남성의 욕망이나 행동이라면 대체로 이해할만한 것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적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권리는 단지 폭력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권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동의를 확인하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편견과 차별, 낙인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고, 그런 원칙들을 통해 성건강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그런 책임을 국가와 사법기관, 교육기관, 언론이 제대로 인식하고 실행하는 것이 성적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우리의 성적권리를 위해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몇 명이서, 어떤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는지가 아니라 성소수자 간 성관계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동의와 존중, 반차별, 반폭력, 성건강을 제대로 지킬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클럽에서의 만남이나 찜방에서의 만남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니투데이의 보도는 그 대단한 사명감이 무색하게도 가장 나쁘고 가장 의미없는 기사였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기자 스스로도 5년 전에 생각했다는 편견을 조장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통한 감염 예방에 기여하기는 커녕 방역 활동에도 심각한 방해만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른 언론들이 머니투데이의 나쁜 기사를 거울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의미없고 무책임한 보도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 머니투데이

[기자회견문] 성적 낙인으로 공동체의 연대를 위협하는 머니투데이는 50년 동안 입을 다물어라

코로나 19 이태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언론은 선동에 가까울 정도로 성소수자 업소명을 살살이 뒤지고 노출하는데 급급했다. 이들의 태도는 여느 때보다 심각했고 실망스러웠다. 특히 몇몇 언론들은 질병 예방에 대한 정보 전달은 미뤄둔 채 성소수자들이 만나고 관계 맺는 시도들 자체를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기자들이 주목한 키워드는 게이 사우나, 소위 짬방이라 불리는 장소였다. 많은 언론들은 앞다퉈 르포와 단독 취재의 소재로 짬방을 다뤘다. 그 중에서도 머니투데이는 단연 집착적인 면모를 보일 정도로 짬방을 취재했다. 이동우, 김사무엘 기자는 마치 이날을 기다려왔다는 듯 ‘5년 전 차마 못쓴’ 취재기를 들고 오는가 하면, 김태현기자는 확진자들이 수면방을 다녀왔다고 낙인을 찍고 김지산기자는 대단한 비밀이라도 공개하겠다는 양 짬방 입장 규칙을 다룬 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5년 묵은 르포, 단독을 앞에 붙인 취재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었다. ‘평범한 휴게실과 다르지 않은 공간, 콘돔과 젤이 있어 세이프섹스가 장려되는 공간, 가벼운 터치와 눈길을 주고받으며 반응이 있으면 관계를 하고 거부하면 다른 방으로 가는’ 공간은 새로울 것도, 문란할 것도 없었다. 외려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몰래 촬영하면 강제 퇴실시킨다는 항목은 어느 성산업의 장소들보다 안전을 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이 언론으로 하여금 짬방을 비롯한 성소수자의 만남을 공격하도록 했을까. 게이들이 서로 만나고 모인다는 사실조차 낯설어하는 분위기에서 섹스를 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가까이 실존한다는 것은 낯설고 놀라울 수 있으며, 비난하고 낙인찍기 너무도 쉬운 조건을 형성했을지 모른다. 짬방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과열된 것은 단지 밀접접촉이 빈번한 장소의 성격상 감염병 예방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커뮤니티에서도 쉬쉬해온 짬방은 많은 언론들로 하여금 저열한 논점을 들이대기 용이한 조건을 제공한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기사들에는 온갖 허무맹랑한 판타지와 망상들이 남발했다. 그리고 성적 보수주의를 근간에 둔 단속과 금지의 주장들이 금세 차고 들어왔다. 이들 언론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호기심을 기존 성적 보수주의의 프레임으로 여과시켜 낙인으로 수렴한다는 점에 문제적이다. 성소수자의 문화는 부정적으로 평가 절하되고 편견에 사로잡히면서 증오의 악순환을 지속한다.

찜방은 이들이 그려내는 것처럼 무법지대가 아니며, 무조건 자유로운 관계가 이뤄지는 공간도 아니다. 오히려 찜방에는 나이와 체형, 질병유무 등의 위계와 기준이 여전히 작동한다. 이는 찜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것은 성소수자의 공간이 음지의 공간이라는 이유로 이를 르포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자극적인 소재로 소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머니투데이의 태도는 성소수자의 공간을 계속해서 침묵에 부쳐진 공간으로 고정시키며 단속과 검열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질병 예방에 도움 되지 않을뿐더러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성적 보수주의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는 혐오에 맞서온 연대와 결속의 역사를 흔들며,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를 내부에서도 재생산시키는 점에 규탄받아 마땅하다.

찜방과 사우나와 같은 성소수자의 공간은 성적 보수주의와 성소수자 혐오의 역사 속에 만남을 추구해온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단속과 검열 속에 가치를 뺏아온 한국의 유흥문화의 형성 위에 있다. 그렇기에 성소수자의 만남과 관계는 성적 실천과 성적 보수주의의 긴장 사이에서, 성적 위계와 이에 적대하는 평등한 만남의 지향을 고려하면서 논의해야 한다. 어플로 사람을 만나면서도 찜방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는 어떤 취약함이 있으며 그로부터 어떤 쾌락이 실천되는지, 이러한 쾌락은 어떤 위계 속에 구속되거나 이탈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성적 권리와 실천들을 세공할 것인지, 나아가 코로나 19 이후에 찜방과 같은 공간들은 어떤 변화를 겪을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성소수자뿐 아니라 언론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것은 결국 성적 보수주의의 함정을 경계하며 우리가 그토록 호명해온 한국사회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다시 읽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소수자의 취약한 관계 맺기의 환경을 노골적으로 가십화하고 낙인찍기에 급급해온 머니투데이를 규탄한다. 당신들은 5년을 묵어 이제야 르포를 내보냈다고 하지만, 정작 저질적 혐오는 500년이 지나도 나오지 말아야 했다. 이에 대책본부와 시민사회는 엄중하게 외친다.

언론의 소수자혐오가 사회를 망친다!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편견과 낙인은 뉴스가 아니다!

언론의 증오선동 지금당장 out!

2020 년 5 월 29 일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언론중재위원회 1] - 최진주(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장 최진주입니다.

코로나 19 로 모두가 힘겨운 세상입니다. 그중에서도 노년층,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홈리스, 장애인 등 사회의 약자들은 가장 큰 타격을 직접적으로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이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취재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노력한 기자나 언론이 다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감염에 취약한 약자들을 오히려 부주의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낙인을 찍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태원 클럽 발 확진자가 나오자 일부 언론은 마치 이것이 성소수자의 문화와 관련이라도 있는 양 호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보도는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됩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언론 노동자로서 이러한 보도행태에 대해 매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혐오 발언이나 심지어 폭력 행위가 이루어져도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일도 흔합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고, 고민정 후보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과 야당, 여성과 남성을 막론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모두 인간의 성정체성을 찬성이나 반대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남성이라는 것에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오세훈 후보가 남성이 아닌 것이 아니듯, 한 사람의 성정체성은 남이 반대하거나 찬성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회 유력 인사들이 항상 주장하는 “사회적 동의” “국민적 동의”란 것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두가 보편적 인권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렇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면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법 제도를 만들든, 국가적 캠페인을 하든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가야 합니다. 하지만 보수 세력이나 특정 종교 등 적극적 혐오 집단은 제쳐 두고라도,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이루겠다고 표명한 현 정부조차 아무런 노력 없이 ‘국민적 합의’만 염불 외듯 하고 있는 점은 개탄스럽습니다.

물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여론을 이끄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언론노조와 소속 언론인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한 인권을 누리기 위한 언론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 - 조혜인(차별금지법제정연대)

코로나 19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드러내주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차별과 혐오의 성격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사회가 낙인찍는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외따로 떨어져있는 게 아니며 서로가 서로의 은유가 되어 차별을 강화시킵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를 겪으며 우리 사회 안에 감염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얼마나 쉽게 사람에 대한 차별과 배제, 낙인으로 옮겨가는가를 보았습니다. 특히 감염의 이미지가 소수자와 결합할 때, 질병과 소수자에 대한 낙인이 만나 서로를 강화하며 얼마나 쉽게 혐오를 퍼뜨리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외국인, 이주민,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질병을 옮기며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집단으로 다시 한번 뭉뚱그려졌고 이러한 낙인과 배제는 방역을 어렵게 만드는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차별을 방지하고 조장하는 일이 어떤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게 되는가도 드러났습니다. 이태원에 다녀간 확진자를 확인한 일이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고 혐오가 퍼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나오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누가 이러한 두려움을 만든 것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 자신의 건강이 위급함에도 검사 이후에 차별과 괴롭힘이 따라오지 않을까 두렵고, 해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위험해질지 알 수가 없어 검사받으러 가는 일조차 망설이게 만드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적인 사회를 누가 만들고 유지했는가에 대한 사회 전체의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돌아왔어야 합니다. 정부가 누군가의 권리를 부정하고 사회적 합의 대상이라며 유예시킨 일, 동료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사회가 침묵해온 대가는 결국은 차별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를 통해 뼈저리게 느껴야만 합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 안의 차별과 혐오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언론이 해야 하는 역할은 명확합니다. 개인에 대한 비난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선동이 감염병 예방과 방역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질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소수자 집단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어있던 이들이 긴급상황에서 더 취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으나,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뉴시스 등의 일부 언론은 그와 정확히 반대되는 포지션에서 혐오를 선동하는 선봉에 선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감염 예방과 아무런 관련도 없이 이태원 클럽이 게이 클럽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며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고, 질병에 대한 공포가 소수자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검사 이후에 차별과 괴롭힘이 돌아올까봐 걱정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업소에 대한 정보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성소수자들을 격리하고 배제해야 할 존재로 보도를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적인 언론기사들은 소수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동료시민으로서 서로의 안녕에 의존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도록 만들고 사회에 증오와 공포를 퍼뜨리며 공동체 모두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문제적 언론기사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해악은 반드시 분명하고 꼼꼼히 짚어져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단지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노스텔지어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19를 통해 절감하게 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메우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언론중재위는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언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19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다시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전과 후 모든 시기에 언론은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띄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 사회의 심각한 차별 문제를 살피고 바로잡기 위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후에도 법 제도 원칙이 일상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일상의 틈을 메우는 일, 모두 차별 시정과 예방을 위해 언론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언론중재위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언론의 문제점을 통렬히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언론이 견지해야 할 원칙과 태도의 기본의 기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회 3] - 서보경(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안녕하세요?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에서 활동해왔고, 문화인류학 연구자인 서보경이라고 합니다. HIV 인권 운동은 질병에 부여된 “낙인”과 싸우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HIV 감염은 건강상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사회적 삶 전체를 큰 위기에 몰아 넣습니다.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질병에 부여된 부정적 의미, 도덕적 비난이 “사회적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립과 배제를 경험하게 합니다. 낙인은 무엇보다 한 사람이 온전히 스스로의 존엄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은 무엇보다 당사자가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자신에 대한 어떤 사실까지 알려야 할지, 혹은 알리지 말아야 할지 삶의 매 순간 무거운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질병에 부여된 사회적 의미, 질병 당사자의 사회적 표상을 만들어내는 데, 언론은 그 어떤 기관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동선에 관한 정보를 감추는 거짓말을 했다고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고, 누군가는 사실만을 적시 했다고 주장하면서 역으로 성소수자 시민과 감염된 사람들의 삶을 왜곡하는 양상을 동시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코로나 19 위기를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 자체를 사회문제화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보도들은 사실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사회적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한국 사회에서 낙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진실이 반드시 꼭 말해져야 할까요? 감염의 연결 고리를 찾는 작업은 개인에게 이 커다란 사회적 재난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소수자 시민을 사회의 위협으로 만들기 위해 질병을 동원하는

모든 시도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징벌의 수사가 아니라 권리와 돌봄의 언어로 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이 익명으로 남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공중 보건과 대책점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것은 질병에 부딪힌 낙인에서 개개인의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생물학적 삶 뿐만 아니라 사회적 삶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국가와 사회, 언론의 마땅한 의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성소수자 시민을 모욕하고, 질병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언론들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HIV 인권 운동은 “인권이 곧 예방이다”, “침묵은 곧 죽음이다 (Silence=Death)”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성소수자 시민의 삶이 윤색될 때, 성소수자 시민의 존엄이 침묵당할 때, 더 큰 위기, 더 많은 죽음이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존엄을 우리가 말하고, 지켜냄으로써 우리는 HIV 운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것입니다.

혐오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

[선언문] 혐오여론 조장하는 언론에 반대한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코로나 19 이태원 확진 직후 언론은 성소수자를 표적했다. 이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면서 뒤질세라 르포와 단독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정작 붓물처럼 터져나온 것은 방역과 예방을 빌미로 사회적 소수자 혐오의 나팔수를 자처한 언론들이었고, 이들의 증오여론선동이었다.

이미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민사회는 언론의 태도를 우려했다. 코로나 19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난한 여성에게,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홈리스와 장애인, 이주민에게 취약했고 이는 곧 소수자 혐오여론에 앞장서온 언론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감염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 언론은 이들을 부주의한

이들로 비난했고, 누구보다 질병을 가져와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대상으로 낙인찍었다.

이태원 확진자 증가 이후에는 많은 언론들이 하나같이 성소수자의 업소와 만남 문화 등을 문제 삼으며 질병의 예방과 아무 상관없는 소재들을 가십으로 소모했다. 인권운동과 저널리즘이 가리켜온 사회적 공익의 목적과 변화의 책무를 방관한 언론은 황색저널리즘을 무장하며 시민사회와 쌓아온 결속과 연대마저 무너뜨렸다. 질병 위기의 원인을 특정 집단의 행태로 몰아가는 태도는 오히려 기존의 사각지대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예방을 어렵게 만들었다.

증오를 여론으로 선동하는 이들의 태도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일보를 위시한 보수 기독교 언론들은 수구 우익정치세력과 보수기독교의 주장을 허울 좋은 기사로 옮기며 성소수자 혐오논리를 만들어 여론으로 선동하고 정치세력화에 이바지했다. 이들에게 성소수자는 문란한 자일뿐 아니라 질병을 퍼뜨리는 집단이며 세금을 낭비하는 무임승차자 였으며 차별금지법으로 혐오의 자유를 가로막는 인권독재집단이다. 성소수자들은 동성애를 전염시키는 이들로 병리화 되고, 사랑을 가장한 전환치료를 통해 바뀌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혐오선동은 사회적 위기 속에서 사회적 소수자 잡기에 혈안이고, 성소수자 뿐 아니라 난민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데 앞장섰다. 그것은 기성 권력을 강화하고 가난한 자의 생존권을 무시하며 성소수자를 문란한 이들로 낙인찍으며 성적 보수주의를 추동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에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는 매일같이 언론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는 방역의 구멍을 키우는 것이며 질병 예방을 음지화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것은 이미 인권운동과 시민사회가 오래 전부터 우려해온 것이었다. 우리는 질병의 위기가 사회의 사각지대와 차별구조를 보다 극명하게 드러냄을 확인했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실질적인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현장을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을 고립시키고 배제하며 혐오와 차별을 자행하는 것이 질병 예방은커녕 공동체에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자명함을

확인했다.

이미 우려한 대로 많은 언론들은 불평등한 제도의 구멍을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증오 선동으로 채워넣고 있다. 이토록 저열한 가십들이 난무하며 혐오를 소비할 수 있던 것은 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관성처럼 되어버린 한국사회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오래도록 소수자의 인권을 나중으로 미뤘던 정부를 향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면, 아니 적어도 성소수자 인권을 합의가 필요하다는 방관 대신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정부의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줬다면 질병예방이 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직결되는 지금의 상황은 이토록 긴급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렇기에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서 예방과 방역을 위해 시도되는 공동의 행동들은 근본적으로 공동체를 다시 모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K-방역이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성과를 말하며 자신들의 방침에 국민들이 잘 따라줬음을 치하한다. 하지만 재난의 시간동안 누구보다 예방에 나선 사회 구성원 중에서도 사회적 소수자들은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언론과 몇몇 지자체들은 질병에 대한 위기를 소수자 집단과 개인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으로 전환하면서 색출에 가깝도록 정보를 퍼뜨리고 사회의 감시와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의 평가 속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이들은 사각지대에서 생애의 위기를 무릅쓰고 예방의 전선으로 나온 성소수자와 장애인, 이주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자신의 존재가 모욕당하고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예방과 치료에 참여한 것은 결국 나의 안전 뿐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코로나 19 위기를 지나오면서 정부는 혐오와 차별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선언하며 한 발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분명 사회에 인권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온 인권운동의 성과다. 하지만 정부는 인권에 근간한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보장이 예방의 시작임을 선포하며 더 이상 누구라도 질병 예방과 지원에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 위험하고 취약한 집단으로, 혐오와 시혜의 대상으로

박제하기보다 혐오를 추동하는 언론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하고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시민이자 이웃으로서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보장 뿐 아니라 제도를 함께 만들고 개선해나가는 주체로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다.

정부는 평등과 인권의 전진을 선언하라!

인권이 예방의 지름길이다!

2020. 5. 29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사진 - 국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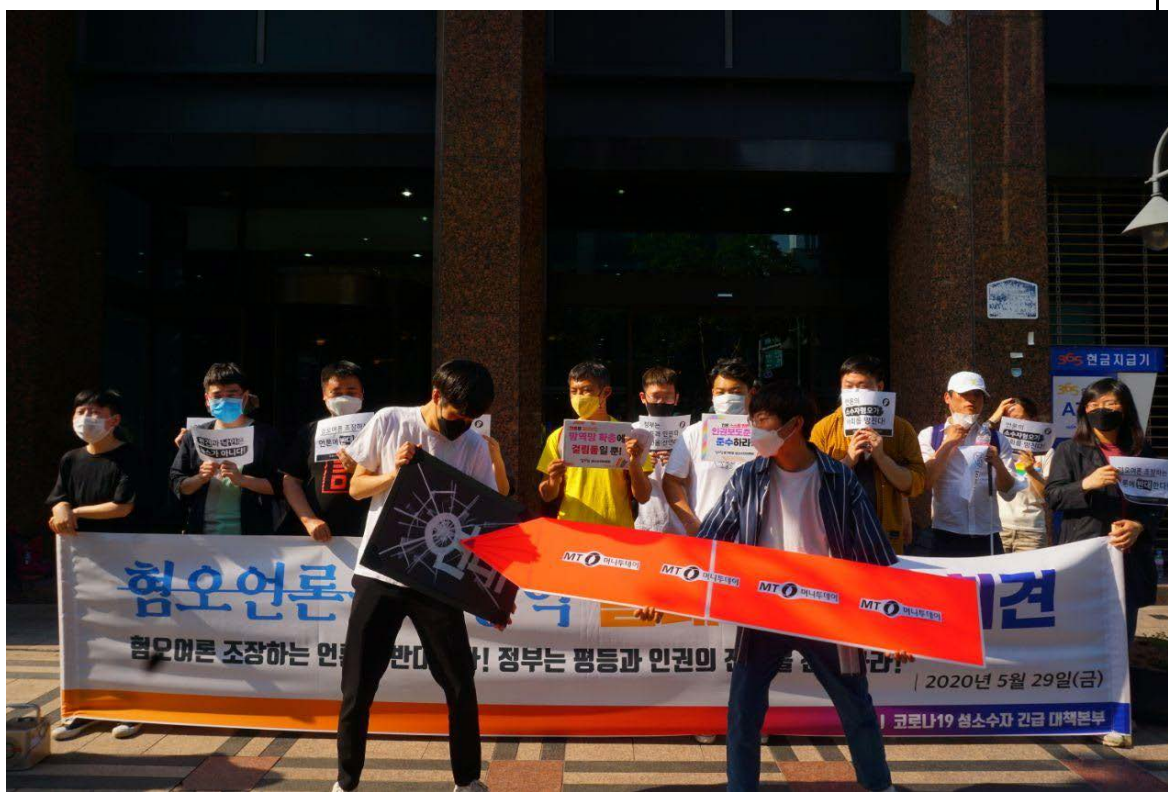
[사진 - 뉴스시스]





[사진 - 머니투데이]





[사진 - 언론중재위원회]







3. 주간브리핑

가) 1 차 브리핑(5. 11. - 5. 16.)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브리핑

1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조직 현황

☐ 현재 총 20개 단체로 구성됨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웍스,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평동,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총 20개 단체)

☐ 대책본부에서는 상황실을 설치, 매일 관련 상황 점검 및 실무 진행

2 인권침해 상담 및 대응

☐ 대책본부에서는 각 단체별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그 중 주요 상담 건에 대해서는 상황실을 통해 공유 및 필요시 공공기관에 연계하고 있음

○ 상담창구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09~18시)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13-20시)
-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010-2164-1201 (11-19시/월 휴무)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땡동 02-924-1227 (11-21시/일, 월 휴무)

○ 현재까지 상담 내역은 총 약 90건, 주요 내용은 △ 자가격리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 △ 직장 등에서의 아우팅 우려 △ 검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3 커뮤니티 대상 홍보

-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해 자가검진 독려, 인권침해 상담 안내, 검진관련 정보를 담은 광고 배포
 -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웹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총 6곳)에 배너 광고 배포 완료함
 - 대책본부 소속 각 단체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홍보 예정
 - 외국인 대상 (영어, 일어, 중국어)로도 배포할 예정에 있음
- 대책본부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음, 대책본부 차원의 캠페인, 코로나19 관련 FAQ를 제공하고 상담게시판 운영.

4/24~5/6 이태원지역 방문자 익명검사 전국 확대

서울특별시 x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지금 바로

우리 검진받자

나와 커뮤니티를 지켜요!

인권침해 상담 및 대응 문의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 9-18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02-715-9984 | 13-20시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010-2164-1201 | 11~19시 (월 휴무)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통 02-924-1227 | 11~21시 (일·월 휴무)

4 언론 대응

- 언론 인터뷰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상황에 맞추어 응대 중에 있음. 현재는 주로 외신의 연락이 들어오고 있음
-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악의적 보도를 하는 언론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항의전화, 공문발송, 언론브리핑 등의 대응을 하고 있음. 현재까지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날짜	대상 기사	대응	답변 및 조치
5/13	<매일경제>, 「[단독] 이태원 이어 종로 男성소수자 모임 장소`서 확진자 급증...정부 집합금지명령 `구멍」	항의전화 및 메일	사과메일 및 기사 수정(제목 변경, 업소명 삭제)

5/14	<충청타임즈> 「이태원 코로나로 불거진 에이즈환자 관리 '허점'에 부쳐」	항의전화 및 메일	지역 보건소와 소통 예정
			5. 13. ~ 14. 기사들에 대한 모니터링 논평 및 커뮤니티 대상 메시지 발송
5/15	<엠빅뉴스> 「성소수자 수명방 관련 영상」	항의전화 및 공문 발송	영상 삭제 및 답: 자극적인 편집을 인지함을 확인했으며, 해당 영상을 모든 플랫폼에서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답을 받음. 더불어 MBC로부터 성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인권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하며, 겸허히 여론을 수용하고, 더욱 발전적인 뉴스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받음.
5/15	Mbc 뉴스외전, 더불어민주당 SNS 메시지, 강경화외교부장관 인터뷰 당시 발언 문제 등	언론브리핑	

5 방역당국과의 소통

□ 현재 서울시, 경기도와 면담 진행했음. 인천시와도 면담 추진 중에 있음

○ 서울시

- 5월 11일 면담 진행
- 이태원 지역 방문자 검진 시 HIV를 특정해서 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시정 지침 내려짐
- 동선공개 관련, 개별 확진자 동선이 아닌 방문 지역을 점으로 표시하는 방식 제안
- 재난 문자 관련, 익명검사 가능,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 강조하기로 함
- 성소수자인 것을 이유로 인권침해 발생 시 서울시 인권옹호관실에 즉각 연계하기로 함

○ 경기도

- 5월 15일 면담 진행
- 진료 시 성적지향, HIV 감염 여부 등 불필요한 질문 묻지 않도록 지침 발송, 재난문자에 과도한 정보를 담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 발송
-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신속히 경기도 인권센터 등과 공유하도록 함
- 방역당국 브리핑 시 인권침해 예방, 차별반대 메시지 발송 추진

6 향후 계획

- 외국인 강사,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도 상담이 들어오고 있음, 다국어로 메시지를 작성하여 배포 예정
- 2주 자가격리가 종료된 후 직장에 복귀 시 괴롭힘, 퇴사 압박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관련 정부에 인권침해 예방 메시지 발송하도록 요구하고, 실제 침해 발생 시 대책본부에서 대응 예정
-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국민일보 등 일부언론에 대해서는 언론단체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나) 2 차 브리핑(5. 16. - 5. 23.)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브리핑

(5. 16. - 5. 23.)

1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조직 현황

□ 현재 총 23 개 단체로 구성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부산
성소수자 인권 모임 QIP,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웍스,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성소수자인권모임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땡땡,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3 개 단체, 2020 년 05 월 23 일 기준)

□ 대책본부에서는 상황실을 설치, 매일 관련 상황 점검 및 실무 진행하고 있으며, 주간활동브리핑 발표함

2 인권침해 상담 및 대응

- 대책본부에서는 각 단체별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그 중 주요 상담 건에 대해서는 상황실을 통해 공유 및 필요시 공공기관에 연계하고 있음
- 5 월 3 주차에 접어들면서 상담 건수가 감소하였음. 익명검사 확대 등으로 검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아우팅과 관련된 불안감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 이유로 판단됨. 다만 병원 등에서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거나 몇몇 지자체가 동선공개 과정에서 성별, 나이, 직장명 등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문제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동선 공개 시 과도한 정보 노출의 문제에 관해 각 지자체에 항의 공문 발생 등 대응을 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례의 경우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에 있음.

3 커뮤니티 대상 홍보

-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해 자가검진 독려, 인권침해 상담 안내, 검진관련 정보를 담은 광고, 게시글 배포
-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웹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총 6 곳)에 배너 광고 진행중에 있음. 광고는 5 월 말까지 게시할 예정임
- 상담창구, 익명검사 확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및 대책본부 소속 단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배포 중. 해당 카드뉴스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번체), 수어로도 통역하여 배포하고 있음



- 대책본부 홈페이지를 개설함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
홈페이지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FAQ, 대책본부 언론모니터링/성명을 공유하고,
익명게시판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4	언론 대응
---	-------

- 현재 외신들을 위주로 대책본부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주로 들어와 대응 중에 있음
- 계속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음.
대책본부에서는 이러한 언론기사들을 정리하여 주기적으로 언론모니터링을 발간 중. 동시에
의미 있는 기사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전하는 메시지 역시 전달하고 있음

<언론모니터링 목록>

5.17 [언론모니터링] 코로나 19 위기에 함께 대처하면서 우리의 인권은 더 단단해질 것이다
(아이다호)

5.18 [언론모니터링] 이주민 확진자의 과도한 정보노출을 멈춰라/ 혐오의 프레임을 넘어서자/
인권보장이 예방의 본질이다

5.20 [대책본부 중간 모니터링][성명] 그것은 예방도 뉴스도 아니다

5.20 커뮤니티를 향한 문장들 2: 자긍심의 언저리에서

5.21 [언론모니터링] 뉴시스 보이콧 : 혐오는 불안을 조장할 뿐 공감될 수 없다.

5.22 [언론모니터링] 혐오 광고는 국민일보의 꿈수다/ 질병의 위기 속 언론의 역할은 황색저널의
혐오선동 대신 예방의 조력자가 되는 것/ 이제는 우리가 짊방을 이야기해야 할 때

※ 상세 내용은 대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category/성명-논평

5 방역당국과의 소통 및 대응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 5 월 19 일 면담 진행
- 역학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전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각
지자체에 재난문자, 동선공개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내지 않도록 재차 지침
전달하기로 함

- 코로나 19 로 인해서 검진, 치료가 더욱더 어려워진 미등록이주민 대책과 HIV/AIDS 감염인 요양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5 월 21 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당부 나감

5 월 21 일 정례브리핑>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의 동선공개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전파 차단을 위한 목적 외 불필요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확진자 동선공개 시 방역적인 목적과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를 모두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고, ‘반복 대량 노출’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일괄 공개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와 관련해서는 확진자별 동선 공개 시 포함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방안을 보완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성별, 나이, 거주지, 직장정보와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방역목적 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지자체에 공개원칙 준수를 재차 당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서울시

- 5 월 11 일 면담 이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권침해 해결 방안 논의 중
- 대책본부 상담 사례 중 대응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서울시 인권침해 상담 핫라인에 연계하고 있음. 현재까지 검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련하여 2 건의 진정 처리가 이루어졌음.

□ 경기도

- 5 월 15 일 면담 이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권침해 해결 방안 논의 중
- 5 월 20 일 도 브리핑에서 대책본부와의 협의 사항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짐

5 월 20 일 브리핑>

도는 지난 15 일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와 도 인권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발적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검사와 역학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아웃팅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심리치료 지원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그 외 각 지자체 재난문자, 동선공개 현황에 대해 정보들을 수집 중에 있음. 과도하게 공개를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에 직접 문제제기하여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음.

6 수도권 외 지역 상황 모니터링

- 수도권 외 지역(전라북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의 상황과 관련하여서 각 지역 시민인권단체들을 통해 상황들을 모니터링 중에 있음. 현재 전라북도 지역에서 재난문자 발송 시 직장명이 발송되는 문제가 있었고, 경상남도 지역에서 학교 등교 후 괴롭힘을 당한 성소수자 학생의 문제가 있었음. 이에 대해서는 각 지역 단체들과 연계하여 대응 중에 있음

7	향후 계획
- 지속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 온 언론들을 대상으로 항의를 하는 직접행동을 진행할 예정에 있음. (추후 별도의 보도자료 배포) - 성소수자,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가 확산된 상황을 정리해서 ‘코로나 19 와 혐오(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 2 주 자가격리가 종료됨에 따라 직장へ 복귀 시 괴롭힘, 퇴사 압박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관련 사례를 수집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실제 피해 발생 시 정부,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응할 예정임	

다) 3 차 브리핑(5. 23. - 6. 4.)

<u>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브리핑</u> (5. 24. - 6. 3.)	
1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조직 현황
□ 현재 총 23개 단체로 구성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부산
성소수자 인권 모임 QIP,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성소수자인권모임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땃똥,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3개 단체, 2020년 05월 23일 기준)

□ 대책본부 활동 이력

- 5월 12일 출범기자회견
- 5월 16일 주간활동브리핑(한/영)
- 5월 23일 주간활동브리핑(한/영)
- 5월 29일 혐오언론순회방역 릴레이기자회견
- 6월 3일 주간활동브리핑(한/영)

2 인권침해 상담 및 대응

□ 대책본부에서는 각 단체별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그 중 주요 상담 건에 대해서는 상황실을
통해 공유 및 필요시 공공기관에 연계하고 있음

- 현재 직접적인 상담 건수는 크게 감소함. 이에 대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확진자, 접촉자 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 현재 70여
건의 사례들이 수집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검진 사실이 직장 등에 누설된 사례, 학교 또는

직장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사례, 언론에 의한 혐오표현 등이 있음

- 그 외에 심각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진행 중에 있음.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어서 고발조치하였고, 언론의 사생활침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가 진행 중에 있음

3 커뮤니티 대상 홍보

-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해 자가검진 독려, 인권침해 상담 안내, 검진관련 정보를 담은 광고, 게시글 배포
-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웹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총 6곳), 카페에 배너 광고를 5월 말까지 진행하였음. 이 중 카페의 경우 조회수가 14,000여회에 이르는 등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널리 홍보가 된 것으로 평가됨
- 대책본부 홈페이지(<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FAQ, 대책본부 언론모니터링/성명을 공유하고, 익명게시판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4 언론 대응

- 외신들을 중심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있음
- 5. 29. 지속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성소수자 업소 등에 대한 자극적 보도를 해

온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뉴시스를 직접 방문하여 규탄하는 <혐오언론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함. 각 언론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마무리로 언론중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후 위 기사들에 대한 시정권고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350> 참조



5 방역당국과의 소통 및 대응

□ 서울시

- 대책본부 상담 사례 중 대응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서울시 인권침해 상담 핫라인에 연계하고 있음. 현재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선동, 확진자 동선 공개 관련 2건의 진정이 진행 중에 있음

- 지자체에서 배포하는 확진자 동선공개, 재난문자에서 방역과 무관한 과도한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주요 문제 사례를 정리하고 방역당국에 방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의 정보와 인권을 지키는 공개방식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 5.26 [확진자 동선 공개 관련 모니터링] “방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의 정보와 인권을 지키는 최선의 공개방식을 준수하라”

<https://www.queer-action-against-covid19.org/archives/293>

6 수도권 외 지역 상황 모니터링

-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재난대응 문자 발송 시 확진자의 직장명을 공개함. 이에 대해 전라북도성소수자인권모임 열린문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함

https://twitter.com/OpenDoor_JB/status/1265470939019374592?s=20

7 향후 계획

- 검진, 자가격리, 치료 및 일상 복귀 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예정임. 구체적인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응 예정
- 성소수자,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가 확산된 상황을 정리해서 ‘코로나19와 혐오(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 5월 중 급박한 상황이 다소 해소되고 장기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매일 운영하던 상황실을 주 1회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향후 구체적인 조직 및 활동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4. 상황실 및 전체회의

가) 상황실 회의 일자 및 안건

차수	회의일자	상시 안건	기타 주요 안건
1 차	2020. 5. 10.	상담 공유	대응목표 수립, 회의 체계 정비
2 차	2020. 5. 11.	언론 모니터링	대책본부 출범 준비
3 차	2020. 5. 12.	인터뷰 대응	상황실 역할 분담, 상담창구 개설
4 차	2020. 5. 13.	홍보사업 점검	재정 및 조직 점검
5 차	2020. 5. 14.	방역당국과의 소통	홍보물 제작 검토
6 차	2020. 5. 15.	지역상황 점검	전체회의 준비
7 차	2020. 5. 17		방대본 미팅 준비, 카드뉴스 제작 검토
8 차	2020. 5. 18.		방대본 미팅 준비, 전체회의 평가
9 차	2020. 5. 19.		홈페이지 홍보
10 차	2020. 5. 20.		인권침해 사례 설문 준비
11 차	2020. 5. 21.		릴레이 기자회견 기획
12 차	2020. 5. 22.		전체회의 준비
13 차	2020. 5. 25.		이주민 확진자 동선공개 대응
14 차	2020. 5. 26.		인권침해 사례 설문 응답 상황 점검
15 차	2020. 5. 27.		상황실 운영상황 점검
16 차	2020. 5. 28.		릴레이 기자회견 준비

17 차	2020. 6. 2.		전체회의 준비, 향후 활동 계획 논의
18 차	2020. 6. 11.		수다회 , 백서 기획
19 차	2020. 6. 16.		제 12 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기획
20 차	2020. 7. 1.		백서 세부 기획
21 차	2020. 7. 21.		수다회, 인권포럼 준비

나) 전체회의

- 총 6 회 진행 (5. 21. / 5.24. / 5. 30. / 6. 6. / 7. 7. / 8. 12.)
- 전체회의에서는 전반적인 상황 공유 및 각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위에서의 고민지점을 공유함
- 8. 12. 6 차 전체회의에서 백서 발간 후 대책본부는 해산, 이후 대응활동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 이관하기로 결정함

5. 형사사건 대응

5 월 이태원 집단감염 당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한 성소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대학생이자 아르바이트로 학원강사를 하는 이였다. 당시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우팅의 우려로 그는 역학조사 시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솔직히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조사로 동선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자 수사기관은 그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고 결국 1 심에서 6 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여론은 한 사람의 거짓말로 7 차 감염이 발생하고 60 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며 비난을 쏟아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에 게이클럽을 보도하며 성소수자 낙인과 혐오를 선동한 언론과 성소수자를 수소문한 인천시의 책임, 그리고 방역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대책본부는 1 심과 2 심 법원에 아래와 같이 사건 당시 성소수자들이 처했던 낙인과 혐오의 현실을 지적하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아직 그에 대한 형사사건은 진행 중이다. 아무쪼록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그리고 국가가 더 이상 방역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또 다른 낙인을 만드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탄 원 서

사건명 : 2020 고단 XXXX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000

위 사건에 관하여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등 79 개의 인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우리 인권단체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이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라고 표현하고, 검찰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 년이라는 구형을 했지만,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삶을 충분히 고려해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5 월 초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일보를 통해 해당 클럽이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많은 언론들이 앞다투어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인권단체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지켜보며 걱정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다수 성소수자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쉽게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루 빨리 검사를 받아야 자신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태원 클럽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자신의 정체성까지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검사받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직장을 잃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탄나도 결국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돌아해보면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가 하면, 방문 장소들을 낙인찍는 가짜뉴스가 넘쳐나면서 여론몰이 당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구성해 자발적 검사를 독려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들이 감당해야 할 두려움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피고인 역시 확진받은 사실보다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까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중지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은 적어도 방역관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소수자 혐오와 비난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특정 정체성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일이 방역에 방해될 수 있음을 분명히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인천광역시 인권재단 사람에 직접 연락해 성소수자 명단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는 인천에 거주하는 성소수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 초반에 100 건에 가까운 상담건수가 접수되기도 하는 등 검사과정에서도, 자가격리 과정에서도, 확진받은 후 치료받는 과정에서도, 일상을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성소수자라는

사실 때문에 차별을 겪어야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지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눈치보는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성소수자임이 드러나도 혐오와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였다면, 피고인이 과연 거짓말을 과연 했을까 생각해볼게 됩니다. 당시에는 코로나 19 확진자라면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다는 사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이는 곧 개인의 성정체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정체성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쩌면 자신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자신의 직업이 무엇인지 숨기는 것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검사가 언급한 ‘피고인의 안이함’만을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9월 15일 언론보도를 통해 피고인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해 흔적이 있을 정도로 심적 고통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접하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혼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저희는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살면서 성소수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봤을 끔찍한 상황에 놓여있을 것을 보고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오롯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스스로 혐오하고 비난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 역시 코로나 19 상황이 종식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확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 검사를 방해하는 차별의 문제가 해소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모두가 코로나 19 없는 일상을 맞이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 확산이 장기화되는 엄중한 상황이고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고발이 난무하고 있지만, 재판과정에서라도 피고인이 살아온 삶의 맥락을 깊이 살펴주시고,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숨기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있다는 점 등을 판결에 반영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재판 이후 피고인이 마주해야 하는 사회가 조금이라도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져도 직장을 잃거나 관계가 파탄나지 않는 사회, 나와 타인의 건강을 우선 생각하고 질병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노력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이길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을 우선 생각하는 법의 정의가 피고인에게도 꼭 닿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0 년 9 월 23 일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웍스,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땀방울,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3 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 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웍스,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땀방울,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튼튼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40 개 단체 및 모임)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애여성공감, 진보네트워크센터,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 한국 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인천지방법원 형사 7 단독 재판부 귀중

탄 원 서

사 건 2020노XXXX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일동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우리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고자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우리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11월24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2단계로 격상되어 시행 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커져가기만 합니다. 마스크 쓴 일상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움직임도 쉽지 않은 답답한 상황은 연일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지금처럼 감염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다소 엉뚱한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피고인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소수자들은 그가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방역당국에 협조했을 것이고, 거짓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성소수자 마녀사냥이 극에 달했던 그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낸 우리 성소수자들은 피고인이 했던 ‘거짓말’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태원 클럽에 가지 않았더라도 일상 곳곳에서 터져 나온 성소수자 혐오와 비난으로 인해 성소수자가 아닌 것처럼 자신을 숨겨야 했고, 나와 상관없는 사건인 것처럼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협조하며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자발적 검사를 독려하고, 코로나19 확진으로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일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함께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처럼 대다수 성소수자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것보다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꿈을 포기해야 하거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곧 피고인이 ‘고의로’, ‘누군가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진술 한 것이 아니라, 남과 다른 성정체성으로 인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낙인이 무서워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재판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는 확진 받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의 성정체성이 알려지고 난 뒤 그에 따른 고통과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오롯이 혼자 견뎌야 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을 피고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태원을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성정체성이 쉽게 알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거짓된 진술이 미칠 영향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TV만 틀어도 성소수자를 향한 도 넘은 비난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느꼈을 공포감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 곁에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가 있었다면,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게 도와주고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진술을 했겠지만, 피고인은 혼자 외롭게 모든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짓된 진술을 하게 되었지만, 그 또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결정을 책임지기 위해 ‘사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성정체성이 알려진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지 간에 그는 성소수자로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견뎌야만 합니다. ‘거짓말’을 해야만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고, ‘거짓말’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은 피고인이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지난 10월8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개인의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결과였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동선을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아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났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지만, 피고인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존재했고, 경제 사회적 손실을 의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져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참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바람처럼 우리 성소수자들도 빨리 일상을 되찾고 싶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을 지키고, 질병 감염에 대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백신개발, 치료제에 대한 소식들을 종종 들을 수 있는 것 보니 곧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들키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사는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찾아올까요. 아니면 마스크를 벗게 되는 그 날 마주하게 될까요. 이태원 클럽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성소수자를 대한 사회적 태도는 마녀사냥에 가까웠습니다. 존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죽일 듯이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더라도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부주의와 실수를 탓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놓인 취약한 사회적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부주의만을 탓한다면 우리 사회는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태원 클럽발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결국 나만 조심하면 된다는 식으로 귀결된다면, 앞으로 문제는 반복될 것이고, ‘거짓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크게 처벌받아야 할 대상은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성소수자들이 거짓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차별적인 사회와 성소수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던 언론들, 그리고 인권감수성 없는 시민들의 가시 돌친 발언들 아닐까요.

재판장님, 피고인이 살아온 삶의 맥락을 살펴봐주시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개인의 책임만 묻지 않고, 그가 거짓말했다는 행위만을 범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환경과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사회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서 류

1. 탄원인 명부

2020년 11월 26일

박한희 외 성소수자인권활동가 93인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귀중

6. 활동영상

1) 출범 기자회견 영상

<https://www.facebook.com/watch/?v=852784685131817>



2) 릴레이 기자회견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TTc6ZLw_hE



IV. 언론보도 · 기고

1. 관련 기사 및 인터뷰

가) 대책본부 활동 관련 기사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출범', <연합뉴스>, 2020. 5. 12.자](#)

[성소수자 단체 '코로나 19 대책본부' 출범.. "자발적 검사 지원", <MBC>, 2020. 5. 12.자](#)

["성소수자가 차별 없이 코로나 검사 받도록 돕겠다", <경향신문>, 2020. 5. 12.자](#)

["용기내 서로 지키자" 성소수자 단체, 코로나 자발검사 유도, <뉴스 1>, 2020. 5. 12.자](#)

[성소수자인권단체 "코로나 19 검진 나서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자", <프레시안>, 2020. 5. 12.자](#)

[성소수자 단체 "이태원 방문자들 자발적 검진 받도록 협조할 것", <서울신문>, 2020. 5. 12.자](#)

[성소수자 인권단체 "신분노출 없이 코로나 19 검사받을 수 있다", <여성신문>, 2020. 5. 12.자](#)

["혐오는 방역에 도움 안 돼요"...성소수자 신상 무차별 유포, <KBS>, 2020. 5. 13.자](#)

[아우팅 막는다더니...일부 지자체, 확진자 특정 가능한 '동선 공개', <경향신문>, 2020. 5. 20.자](#)

[성소수자 대책본부 "거듭된 혐오보도, 뉴시스 보이콧", <미디어오늘>, 2020. 5. 21.자](#)

[성소수자 차별하는 언론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 <오마이뉴스>, 2020. 5. 30.자](#)

["국민일보가 인권을 해치고 있다", 혐오 언론 규탄한 성 소수자들, <AP 신문>, 2020. 5. 30.자](#)

[불안과 분노, 희생양을 찾았다...'코로나 6 개월'이 남긴 것, <SBS 뉴스>, 2020. 7. 20.자](#)

나) 인터뷰

[성소수자 단체 "방역당국과 소통하며 코로나 검진 지원하겠다." 남웅 활동가, <KBS1 라디오 김성완의 시사야>, 2020. 5. 12.자](#)

[안전하고 떳떳하게 검사, 방역당국과 협조할 것" -성소수자 코로나 대책본부 이종걸 사무국장. <MBC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2020. 5. 12.자](#)

[코로나 19 로 인한 특정집단 혐오, 어떤 부메랑이 되나 - 나영정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가, <경인방송 김성민의 시사토평>, 2020. 5. 13.자](#)

[\[이브닝쇼\] 성소수자 대책본부 "검사 받기 힘들게 하는 건 언론들의 악의적 보도" - 나영정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가, <TBS 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 2020. 5. 12.자](#)

[\[아무이슈\]"자발적 검사? 정말 지켜줄 수 있나요" 혐오에 입 연 성소수자들, <서울신문>, 2020. 5. 14.자](#)

[\[퀵터뷰\] 방역 걸림돌 된 '성 소수자 혐오'...익명 검사·동선 공개 제한, 실효성은? - 기진 대학.청년 성소수자 모임연대, <YTN>, 2020. 5. 13.자](#)

[박한희 “재난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 가혹해…같이 싸우는 사람 있다는 것 알아주길”,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2020. 5. 14.자](#)

[박한희, “‘이성애자 술집 확산’ 표현 있나? 성소수자 공포심 자극”, <YTN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2020. 5. 14.자](#)

[\[사람업\]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응, 창구 인터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0. 7. 8.자](#)

2. 기고 및 발표문

[질랄라비] 재난의 약한 고리로부터 변화의 연대로

<http://workright.jinbo.net/xe/issue/70470?fbclid=IwAR2HlNktJBCZq7VdCrGRKqI7VkZMyo5l68zN7l86aJw-0xJzuDJjmds5gR0>

남웅(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터질게 터졌다’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가 나왔던 2020 년 초입부터 인권운동과 시민사회는 질병이 초래할 상황들을 재빠르게 예상해야했다. 미지의 질병에 언론과 정치인들은 누구라도 감염된다면 그 집단을 표적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전가할 것이 자명했다. 특히 그것이 인수 감염 전염병일 경우 접촉이 곧 오염이 되어버린다는 경계는 그간 혐오의 여론몰이 속에 부당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해온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취약할 것이 불 보듯 뻔했다. 이미 질병이 창궐한 시점부터 바이러스가 최초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 대한 혐오와 편견은 각종 음모를 만들며 국내 거주중인 중국인과 조선족에 대한 따가운 시선으로 연결되지 않았던가.

전염병이 창궐하면 방역당국은 빠르게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정보에 접근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사회구성원들이 예방수칙을 지키도록 장려하고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자 기본이다. 이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코로나 19 이후 정부는 대중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했지만, 거리를 두자는 요청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전제한다. 먼저 사적 공간뿐 아니라 학교와 일터에서도 나의 온전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유흥업소와

수용시설 등 금지화된 장소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학교와 교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접촉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들을 수정하며 이들에 대한 도덕적 낙인과 비난을 방지해야 한다. 질병을 비롯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곧 일상에서부터 인권과 안전의 가치가 보장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언론과 방역당국은 초기 확진된 이들의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했다. 확진 소식을 알리는데 이들의 나이와 성별과 사는 아파트 이름까지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 신천지 확진자가 늘면서 언론과 몇몇 지자체들은 질병보다는 특정 종교를 가십처럼 취재하고 이들을 발본색원해야한다는 식의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그들이 남들과 다른 종교를 갖고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은 공격의 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공공의 노력에 배제되는 이들은 사회적 소수자들이거나 언론과 지자체의 전파집단으로 표적당한 이들이었다. 감염된 이들의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었고 이는 곧 감염인 뿐 아니라 특정 집단의 당사자들까지 공포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부풀렸다. 언론과 몇몇 지자체는 이들의 삶을 고립시켜 사회적 소수자로 밀어 넣는 동시에 이전부터 존재해온 사회적 소수자들의 낙인과 조리돌림을 강화했다. 이들을 가로막는 것은 자신들을 둘러싼 삶의 취약한 환경이었고 이들을 향한 사회의 혐오와 낙인, 차별과 배제였다. 재난은 사회의 약한 고리를 절망적으로 비춘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걱정과 사로잡혀 긴급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는 없을지 모른다. 적어도 위기 상황 속에서 인권운동이 고군분투하고 부침을 겪으며 위기에 대응하는 일 또한 없었을 것이다. 홈리스와 이주민이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는 일이나, 장애인이 검진과 지원에 접근하는데 문턱에 막혔을지라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소수자 집단을 향한 혐오로 전치되며 질병의 두려움을 타인에 대한 비난과 증오로 여론 선동하는 것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약한 고리의 집단들

신천지 확진자가 늘어난 시점에 집중된 종교에 대한 혐오는 신도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졌다. 이는 가난한 여성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로, 콜센터 노동자들로 이어졌다. 이들을 향한 언론의 증오선동은 이들을 이웃이 아닌 비난의 대상으로 비추기 급급했다. 내게 주어져온 일상의 조건들은 질병이 도래하면서 삶을 극도로 고립시키는 장치들이 되었다.

5 월의 긴 연휴동안 사람들은 길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와 긴장을 다소간 풀며 나들이를 가고 사람들을 만났다. 누군가는 오랜만에 오픈한 클럽을 가고 술집을 갔다. 문제는 연휴 이후였다.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국민일보는 ‘단독’을 앞에 달고 ‘게이클럽’을 명시했다. 뒤이어 너나할 것 없이 클럽에 대한 온갖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터질게 터졌다.’ 기사의 첫 문장이었다. 하지만 정말로 터져버린 것은 다름 아닌 재난을 빌미로 자행하는 낙인찍기와 조리돌림이었다. 클럽 확진자가 수면방까지 갔다는 동선이 노출되면서 기사들은 질병에 대한 예방보다 게이들의 만남과 장소를 파헤치는데 혈안이 되었다. 질병을 빌미로 혐오를 자행하고 성적 보수주의를 전파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곧바로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를 출범했다. 질병의 위기는 단지 공중보건의 문제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게이 커뮤니티에 오랜 시간 뿌리내린 HIV/AIDS 낙인은 외부의 도덕적 비난뿐 아니라 내부의 단속과 트라우마를 심어왔다. 게이 남성들이 클럽과 어플을 통한 만남뿐 아니라 찜방과 사우나 등을 통한 만남 전반에 걸친 낙인의 무게는 만남의 문화 자체를 음지화해온 역사로 남았다. 그것이 커뮤니티 내부에서부터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혀 공론을 모색하고 만들어온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여기에 들이닥친 코로나 19 가 불러온 증오선동은 커뮤니티의 만남은 물론, 이들이 오랫동안 일궈온 공동체를 흔들었다.

무엇보다 이들이 확진자가 되어 동선이 공개되거나 이태원을 다루는 언론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자가 격리를 하게 된다면, 곧장 혐오의 표적이 되고 아우팅 될 것은 불 보듯 뻔했다. 이는 단순히 내가

성소수자임을 타의적으로 노출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연휴라고 방만하게 클럽을 다녀오고, 짬방을 갔다는 것은 성소수자임을 노출하는 단순한 우려 너머 조심성 없고 문란한 성소수자라는 도덕적 잣대가 부여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게이’ 업소를 보란 듯 노출하는 언론들은 늘어나는 조회수에 자신의 선전선동 능력을 만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당사자에게는 관계가 가로막히고 생계에 위협이 된다. 그저 이들은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성소수자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져오며 이들 문화의 신상을 날날이 살피는 듯 했다.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성소수자는 바로 당신의 지근거리에 살고 있는 이웃이고 지역의 사회구성원으로 비쳐졌던 것이다. 그것은 이해와 환대는 커녕 공포와 위협으로 비쳐졌다. 몇몇 지자체장들은 확진자의 동선을 자기 개인 SNS 계정에 보란 듯 선전했다. 방역에 앞장선 정치인으로 비쳐지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지역 구성원의 고통을 이용한 당신들은 자신에게 대표권을 부여한 시민을 모욕했다.

대책본부는 출범 직후 방역당국과 소통하고 언론모니터링을 매일같이 진행했다. 성소수자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고 가십화하는 것은 질병 예방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음을 알렸다. 검진을 받고 자가 격리를 하거나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 개인의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면 누구라도 쉽게 예방과 치료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미 HIV/AIDS 인권운동을 통해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질병 예방에 있어서 제일 기본임을 배웠다. 익명검사가 시행되고 정부가 나서서 차별과 혐오 반대 메시지를 낼 수 있던 것은 대책본부의 요구 이전부터 평등과 인권을 말해온 시민사회의 오랜 주장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치적이고 실무적인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태원 확진자 발생 초기 성소수자 목록을 달라고 요청했던 방역당국이 ‘혐오와 차별은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던 것 또한 오랜 인권운동이 노력해온 결과였다.

대책본부는 언론과 방역당국 뿐 아니라 커뮤니티를 향한 소통도 시도했다. 짬방이나 사우나와 같이 게이 남성들의 성관계가 이뤄지는 공간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공간이자 만남의 문화였다. 하지만 전염병에 취약한 밀접접촉들이 빈번한 공간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그동안 황색 저널리즘들이 엉터리 르포를 하고 성적 보수주의를 선동하는 도구로만 소모된 역사 또한 방관할 수 없었다. 짬방을 이야기하자는 목소리는 더 이상 피하지 말자는 권유이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결의이기도 했다.

예방과 방역 너머 사회변화를 향한 의지

대책본부의 발 빠른 활동을 바탕으로 많은 시도들이 이뤄졌다. 주요 만남 어플리케이션에는 익명을 보장하는 자발적인 검사 독려 광고가 실렸고, 위기 속 성소수자의 구체적인 목소리와 요구들이 주요 일간지와 지상파 방송에 담겼다.

생각해보면 위기가 터진 상황이 도래하고 나서야 성소수자를 호명하고 협상주체로 인정하는 듯한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다. 오랜 시간 문을 두드렸지만 침묵해온 이들이 자신들의 안전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제야 성소수자를 호명하는 것이었을까. 그마저도 성소수자는 입에 올리지 않은 채 혐오와 차별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다소 수세적인 문장으로 갈음하면서 말이다. 허나 그것은 서로에게 절실한 기회이기도 하다. 질병 예방과 안전이 보수주의의 프레임에 갇히게 될 때 위기 이후의 상황은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위기를 바탕으로 삶의 취약한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책본부의 활동은 질병 위기 속 성소수자의 안전만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에 국한할 수 없다. 성소수자를 향한 낙인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제도적 배제로 연결되었다. 이태원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국적이 노출되고 표적이 되는 미등록 이주민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등의 또 다른 약한 고리를 흔들고 있다. 쿠팡 노동자들의 확진이 나온 이후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부각되고 있다. 그 와중에 사측은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급급한가 하면,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눈총과 혐오가 곳곳에서 나오는 장면은 낯설지 않다.

이태원 확진자 발생 초기, 이태원을 다녀온 인천의 확진자는 ‘거짓말 환자’가 되었다. 이태원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은 공중보건 차원에서 비판받을 행위라는 것이다. 그의 잘못은 부정되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인권활동가들은 자문했다. 그는 왜 숨길 수밖에 없었을까. 혹여 아우팅되어 사회적 커리어가 끊기는데 대한 두려움이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대책본부는 인권 사각지대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 외에도 이들이 심중에 품고 있는 음지의 감정들에 말을 걸고 싶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면서, 긴급 대응 활동은 그저 지금의 상황을 봉합하기 위한 활동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한다. 취약한 고리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활동은, 나아가 차별에 맞서고 평등과 인권을 주장하는 오랜 운동 위에 있음을, 안전을 지키는 우리의 운동은 사회적 혐오와 낙인, 차별과 배제 속에서도 사회를 지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임을 다시 확인한다.

[코로나 19 와 인권 학술대회]

검진과 방역의 인권 거버넌스? 그 이후를 상상하기

나영정(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1. 감염병 대응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이해하기

“코로나 19 에 우리나라는 마치 ‘국영의료 체계가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 통제를 지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대응의 정점에 서고, 보건소가 선별검사소 설치와 자가격리 관리를 전담하고, 환자는 국가가 지정한 병상에서 무료로 치료받고, 비용은 건강보험과 국비로 부담했다. ‘국영’ 체계가 국민을 지키고 재난을 막은 것이다. (중략) 코로나 19 환자의 입원을 거의 전적으로 공공병원이 도맡았다. 공공병원이 전체 중 겨우 5%에 불과하고 평소에 전혀 주목받지 못하지만, 코로나 19 환자의 치료에는 크나큰 기둥이었다. 사립병원도 협력했지만, 대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데 그쳤고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한 병원은 소수다. 음압 격리병상을 제대로 갖춘 병원이 드물기 때문이고, 그런 시설을 갖춘 데서는 감염관리의 부담을 이유로, 혹은 코로나 19 환자가 있으면 다른 환자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원시키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많은 사립병원의 병상 대부분이 코로나 19 위기 대응과는 무관했다.” (문정주, ‘이탈리아 의료 비극은 작은 정부 큰 시장 탓’, 시사인 668 호)

“코로나 19 사태에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이 ‘동선과 개인정보의 공개’와 관련 있다.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동선공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수행하는데,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성씨, 직업, 직장명, 거주지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공개하기도 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정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그 이유로 지자체마다 정보공개 범위가 달랐다.

여기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판단이 중요해진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코로나 19 의 확진자 동선 공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똑같은 정책이라도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주민의 인권은 보호될 수도 있고 침해될 수도 있다. 여기서 의문을 던진다. '지역사회에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었다면 이 기관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그 기관은 개인정보의 공개범위를 인권에 근거하여 판단했을 것이다.

금천구청은 코로나 19 의 확산이 시작될 무렵, 선제적으로 전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중국동포 및 외국인에 대한 혐오표현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그리고 구청장, 부구청장 및 전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재난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 인권을 바탕으로 코로나 19 사태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안시형 서울시 금천구 인권전문관, ‘코로나 19 사태가 지자체 인권정책에 미친 영향 -지자체 인권조례가 코로나 혐오표현을 어떻게 막았나’, 프레시안 2020-6-29)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입니다. 현재 해당 보건소에서 게시한 확진자 동선공개에 지나치게 자세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어서 확진자의 인권침해가 우려됩니다. 방대본의 지침에 따라 수정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보건소에 다 전화를 하고 있는건가요? 우리는 방대본의 지침에 대해서 아는바가 없고, 이분의 경우 00 국적의 불법체류자인데 역학조사에 협조를 안하고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힘들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일을 계속 하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판단해서 할테니까”

“한국말로 동선공개를 올리는데 과연 이걸 보고 해당 국적의 가까운 사람들이 검진을 받으러 올까요?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걸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확진자 동선공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방역당국과 인권담당자의 역할과 관계를 질문하기

금천구 인권전문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동선공개(2020년 7월 7일 검색)은 성별, 나이정보 등이 그대로 나와있어 7월 1일에 새로 발표된 확진자 동선공개 3판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https://www.geumcheon.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3227&id=&bbsNo=150301&nttNo=21227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searchDeptCode=>

이러한 인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조차 방대본의 ‘인권’지침을 적용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장벽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중앙의 지침이 신속하게 전달되고 이를 관철하는 책임자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방역과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관계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동선공개 3판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나이, 성별, 직장명, 구체적인 주소가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태원 클럽에서 ‘게이클럽’이 가지고 있는 성적지향 아우팅의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확진자 동선공개에 나이, 성별, 직장명, 사는 곳 등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태원 클럽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해서 개인의 신상에 위협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 성소수자 집단이 공격을 받았을 수는 있겠으나 “등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감염에 취약한 클럽에 가다니…” 개인의 신상이 특정됨으로써 구체적인 사람의 성적지향이 아우팅되는 문제와는 다르다. 대량 노출장소이기때문에 클럽 이름을 공개하고,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확진자 동선공개와 별개이다. (방대본은 5월 대량노출장소에 대해서 일괄 관리하도록 하고, 동선공개에서는 빼도록 했다.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제대로 가졌다면, 확진자 동선공개 문제뿐만 아니라 역학조사를 통해서 모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폐기해야 하는지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논의와 협력이 가능하고, 자가격리나 코호트에 대한 원칙을 세울때 전파차단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인권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내왔을지 모른다.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는 집회시위 금지, 농성장 철거에 대한 이슈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메르스때와 마찬가지로 방역과 인권을 매개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고, 인권은 항상 사후적인 대처에 머무르고 있다. ‘방역전문가’들의 결정에 대해 인권의 원칙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성가신 존재가 되기 일쑤이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가 6 월 TFT 를 만들기전까지는 확진자동선공개나 이주민 혐오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역할에 그쳐 중대본이나 방대본 차원의 지침을 만들때 인권의 원칙을 제기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큰 기대인 상황이기도 하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역할이 비어있는 사이에 인권단체와 성소수자단체, 시민사회에서 각각 네트워크를 꾸려서 인권 이슈를 대응했고 특히 부천시의 경우 부천시장이 개인 SNS 를 통해서 이주민 확진자의 국적을 공개한 것을 지역 이주민 단체가 항의하였다. 이후 부천시는 방대본의 확진자 동선공개 3 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성별, 나이, 국적 정보등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선공개 양식을 변경하였다. 또한 인천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집회금지 통고와 농성장 강제철거 등에 대해서 항의 기자회견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광장 폐쇄조치, 역학조사와 검진대상자를 찾기 위한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관리, 활용, 주민들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 방역을 위한 임시조치,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의 노동권과 의료에서 공공성 확보 등 코로나 19 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과정안에 인권의 이슈는 촘촘하게 매개되어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방역과 치료, 인권의 관계가 충분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방역을 통해서 지자체에게 인식된 특정한 성소수자

5 월 2 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이가 확진이 되면서 이후 성소수자 특히 남성동성애자가 검진의 대상으로 부상하였고, 검진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력을 발동하였음. 5 월 7 일, 8 일에는 인천시가 인권재단사람에, 서울시가 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 지회에 연락해서 성소수자들의 연락처를 요청하는

일이 벌어짐. 이후 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지회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5 월초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이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는 이메일을 발송.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법률가 단체에 성소수자 단체의 연락처를 요청함. 이 과정을 통해서 성소수자와 정부/지자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가 투명하게 드러남. 그 어떤 연결망도 가동되지 않았고 (그나마 인권부서에서는 연결되어 있었으나 부서간 소통이 되지 않음), 질병관리차원에서 유일하게 ‘에이즈’를 통해서 관리대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현실이 드러남.

성소수자에 대한 대응은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성소수자 시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다는 점을 드러내었음. 방역은 시민들의 주체화, 협조 없이 불가능함. 시민권을 부정당해온 신천지 평교도들, 성소수자, 미등록 이주민들이 감염병에 취약한 이유는 방역당국이 어떻게 이들과 관계맺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임.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장, 경기도 대책단장, 국무총리의 입을 통해서 혐오와 차별 반대 메시지가 나왔고, 익명검사가 도입되었음. 이러한 조치들이 내려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거나 분명한 것은 방역을 위한 긴급 조치였다는 점에서 이 과정이 이후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는 좀더 확인이 필요함. 이 와중에 서울교통공사는 성소수자 단체의 의견광고(“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를 심의하고 불허하였음.

4.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지자체의 만남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5 월 11 일 시작):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향한 검진 안내와 지원, 인권침해 상담과 대응, 언론대응, 방역당국과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위해 활동하였음. 행정 관련해서는 역학조사와 확진자동선공개, 재난문자에서 인권침해 모니터링하고 기초 지자체-광역단체에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였음.

5 월 초 성소수자 단체는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성소수자가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이슈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동시에 초기 지자체에의 대응 방식(성소수자 ‘대표’

연락처를 찾는대거나 이태원 관련 검진자에게 강제로 HIV 테스트를 시행하는 등)에 큰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관계맺고자 노력하였음.

이미 HIV 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확진자 동선 공개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환자를 범죄화하는지에 대해서 경험해왔음. 또한 현재 성소수자 ‘관련된’ 제도, 정책, 예산은 ‘에이즈예방’을 통해서 거의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위기를 인식하는 태도가 한편으로 억압을 가져오며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과 예산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음. 대책본부를 통해서 이번에도 ‘에이즈 위기’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성소수자 운동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주도성을 가지고 협상과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였음.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다 정확한 평가가 필요함. 문제는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공공병상 확충과 인력확보의 문제가 반드시 지자체 차원에서도 노력되어야 함. 에이즈 환자가 요양병원에 갈 수 없어서 시립, 도립 요양병원에 병상을 문의하였으나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입원이 거부되었고 현재까지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음.

익명검사 도입과 ‘차별과 혐오 반대’ 메시지를 이끌어낸 것은 대책본부의 활동과 요구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치가 검진과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이고 실무적인 판단도 크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됨. 지금의 과제는 소수자의 사생활 보호와 차별과 혐오 반대가 검진과 방역을 넘어 소수자 인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가, 운동의 조직화로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번 코로나 19 위기 대응을 통해서 한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가, 이를 통해서 성소수자 정부/지자체와 관계맺는 방식이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노력하는 것임.

5. 인권의 제도화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

그간 진행된 지자체 차원의 인권의 제도화는 수많은 부침을 겪었음.

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성평등조례 등을 만들때마다 성적지향을 중심으로한 반대운동, 혐오선동이 계속되어왔고, 이에 대해서 굴복하거나 폐지되는 사례가 속출해왔음. 근본적으로 인권은 법제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인권의 제도화’가 가지는 한계와 인권의 체제 내화의 문제를 지적하는 논의(미류, 이정은, 서영표 등)가 있음.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실효성있는 인권보장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 없이 선언에 그친다는 비판도 많음.

성소수자 대책본부를 통해서 지자체와 관계맺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한계적으로 진행되어온 ‘인권의 제도화’에 대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정이었음. 지자체 별로 인권 대응 의지나 시민사회 협력 수준이 다르며, 이에 따라서 지자체 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드러나기도 하였음. 참고로 중대본, 방대본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어떻게 협력해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적어도 인권을 이슈로 협력적 관계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가야 할 부분으로 보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서 지자체 차원의 인권위원회/인권센터/인권담당관 등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지자체 차원의 인권의 제도화를 평가하고,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절실한 때.

6. 그 이후를 상상하기

-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화된 인권담당의 역할을 차별조사와 구제를 넘어 지자체 차원의 방역을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에 인권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입, 권고, 대안 제시
- 성소수자, 미등록 이주민,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낙인집단(종교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 철폐를 위해서 방역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조치를 마련하고 진행
- 사생활 등 정보인권, 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하여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방식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감시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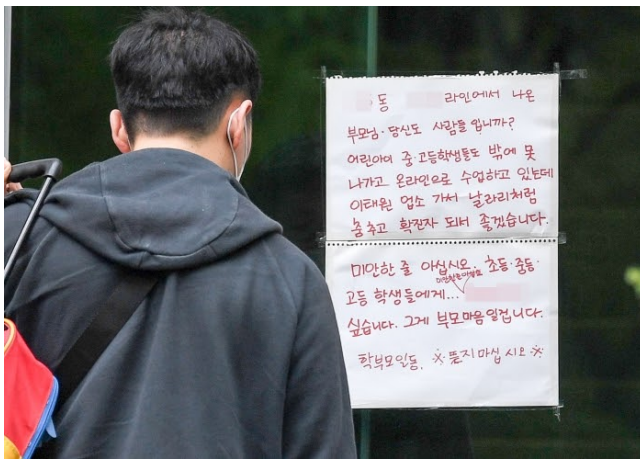
[홍예당 연말 온라인 전시 '사회적퀴어두기']

http://hydbusan.com/exhibition_main

코로나 19 와 성소수자

소주(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코로나 19 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

“당신도 사람입니까”



출처: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galleryView.html?idxno=2281516>

5 월 초 이태원의 한 게이클럽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부평의 한 아파트에 대자보가 붙었다. “당신도 사람이나”, “날라리처럼 춤추고 확진자 돼서 좋겠다”... 미안한 줄 알라고 하는 이 대자보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 빨간색 글씨와 어투, 대자보 그 자체가 너무나도 공격적이었다.

성소수자들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때문에 자신을 쉽게 드러낼 수 없다. 때문에 온전한 존재로서 관계를 형성하고, 모이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과제다. 엉킨 실타래처럼 풀기 힘든 그 인생의 과제를 마주한 성소수자들에게 게이클럽은 문제의 힌트이자 정답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함께 코로나 19 을 예방하고 대응해야겠지만, 게이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을 두고 그 누구도 단순히 힐난해서는 안 된다. 게이클럽은 대자보의 내용대로 날라리처럼 춤추는 공간이 아니다. 아니, 날라리처럼 춤추면 또 어떠한가? 게이클럽은 순수하고 절박한 욕망들이 그제서야 실현되고 풀리는 해방의 공간으로 이해되어야한다.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편히 드러낼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주말을 애타게 기다려 해방감을 겨우 느꼈을 성소수자들은 얼마나 큰 박탈감을 느꼈을까. 게다가 지역사회,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붙은 대자보를 본 성소수자는 얼마나 큰 공포에 시달렸을까. 온라인은 물론 길거리 카페에만 들어가도 사람들은 성소수자, 게이들을 욕하기 바빴던 시기. 성소수자들은 안전하게 머물 시공간을 빼앗기고 혐오에 시달려야 했다.

“성소수자에게 안전하다는 것은,”



출처: 코로나 19 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

세상에 넘쳐나던 혐오는 곧 해당클럽에 대한 계란투척과 재물손괴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언어로만 느끼던 혐오가 물리적 폭력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는 공포를 주었다. 사람들이 안전을 외치며

성소수자를 비난할 때, 성소수자들은 안전을 빼앗겼다. 이번 이태원 게이클럽을 둘러싸고 발생한 일련의 혐오사태는 그 자체로 안전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안전’, 성소수자들에게 안전은 무엇일까. 코로나 19 방역과 예방이 곧 안전으로 치환되는 시기에 성소수자들이 그 안전을 거부했던 것이 절대 아니다. 자신 스스로 온전히 드러내고 존재할 수 있는 것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는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안전은, 자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관계가 우선이었을 것이다. 그런 환경과 관계는 한국사회에서 매우 드물게 존재해왔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환경, 그리고 관계.

자, 이러한 상황과 맥락을 이해했을 때, 과연 성소수자들을 누가 자유롭게 욕할 수 있겠나.

많은 이들이 코로나 19 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안위를 챙길 때, 성소수자들은 혐오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만 했을 것이다. 사회에 방치되는 혐오라는 불안전 요소는 왜 ‘우리의 안전’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일까. 무엇이 안전이고, 무엇이 안전을 위협하나?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함께 길을 만든다”



출처: 코로나 19 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

사건이 발생한 이태원의 게이클럽에는 성소수자들과 앨라이들의 응원문구가, 무지개가 붙었다.
혐오가 난무해도 성소수자들의 존재는 가려지지 않았다.

‘연대는 혐오보다 강하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우리 존재 화이팅’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함께 길을 만들 것입니다. 다시모여 춤출 그날까지 투쟁’

덕지덕지 붙는 알록달록한 무지개와 메시지처럼 다양한 우리는 그 시기를 서로에게 기대며 지나왔다.
남성 성소수자-게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클럽이지만 모든 성소수자들이 함께 연대하며 혐오에 맞섰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함께 길을 만든다.

덧, 지금 해당 게이클럽은 다시 오픈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되고 있다. 언제, 누가
욕했냐는 것처럼 보란듯이. 늘 그랬듯이 예쁘게.

3. 성명·논평

1) 대책본부 논평

[논평] 공무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의 차별, 혐오 선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10 월 16 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동성 성행위도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여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서울시 직원들이 언론 기고, 인터뷰 등을 통해 차별·혐오 표현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권고하였다(20 신청-64, 20 신청-65, 20 신청-66(병합) 공무원의 언론기고로 인한 성소수자 차별 사건).

해당 사건은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의 진정을 통해 제기된 것이다. 이 사건의 피신청인인 서울시 공무원 A 는 5 월 14 일 한 언론에 ‘동성 성행위도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많은 언론들이 이번 이태원 클럽 코로나 바이러스의 보도에서도, 음란한 동성간 성행위를 성소수자의 인권으로 접근하여 보도하고 있다.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를 하였다. 당시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고,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 한 목소리로 혐오와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공무원인 A 가 혐오를 조장하는 기고를 한 것이다. 특히 A 는 지난 2019 년 5 월에도 일부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시청 광장 앞 퀴어 행사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위원회로부터 권고 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A 가 성소수자는 인권을 향유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인권보장을 왜곡하여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한 점, “동성애자 즉, 동성 간의 음란하고 부도덕한 성행위”, “음란한 동성 간 성행위”라며 성소수자를 음란하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함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 점, “국민 정서상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비도덕성과 비양심성을 강조하여 시민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A 가 기고 당시 개인이 아닌 서울시청 OO 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공무원인 것을 드러내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의 발생 가능성을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A 의 행위는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 10 조 및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A 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서울시 직원들의 차별·혐오표현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장표명, 재발방지 대응방안 등 대응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는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인 A 가 반복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이것이 심지어 공무원 신분을 드러내며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상당하다. 우리는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가 이 문제를 단지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이태원 집단감염에서 촉발된 성소수자 혐오와 이를 선동한 A 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의 구조가 자리잡고 있음을, 그리고 이에 대한 전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대응의 출발점이 차별금지법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역시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1. 13.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2) 성소수자 인권옹호 메시지&성명 리스트(날짜순)

[성명] 언론은 질병 예방을 저해하는 혐오 선동을 멈춰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5 월 7 일)

http://lgbtpride.or.kr/xe/index.php?document_srl=1932788

[성명] 성소수자 인권침해 언론보도, 공중보건에도 ‘해악’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5 월 7 일) <https://chingusai.net/xe/notice/606453>

친구사이가 게이 커뮤니티에 전하는 글 - 비난과 조롱을 멈추고 서로에게 힘을 줍시다. 우리는
퀴어하고,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들입니다.(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5 월 7 일)

<https://chingusai.net/xe/notice/606470>

질병은 혐오와 배제가 아닌 위로와 연대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
5 월 8 일) <https://www.facebook.com/R.YPLWHA/posts/2557312104559034>

서로의 안녕을 위한 용기와 지지가 필요할 때입니다(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5 월 8 일)

http://lgbtpride.or.kr/xe/index.php?document_srl=1932793

[공동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 / 5 월 8 일) <https://chingusai.net/xe/notice/606472>

[성명]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 / 5 월 9 일)

<https://www.facebook.com/quv.korea/posts/2092426260900742>

[논평]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확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에 우려를 표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5 월 10 일)

<http://minbyun.or.kr/?p=45285>

서로가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곁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귀어하고,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들입니다.(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5 월 9 일)

<https://chingusai.net/xe/notice/606504>

[카드뉴스 / 메시지] 차별과 낙인 없는 코로나 검사,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용기와 지지로 함께해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 5 월 11 일)

<https://www.facebook.com/346524095684262/posts/1146378585698805/?d=n>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일부 언론들이 혐오를 조장해 코로나 19 의 재확산을 키웠다.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할 때 우리는 재난을 이겨낼 수 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5 월 11 일)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29040&fbclid=IwAR1u_HxKI3E1NDEDz_0oPZHqWddk-P2IoTKoQpDv7vObR8KmWiprDdpkr6I

[성명서] 혐오는 방역의 적이다. 코로나 19 환자에 대한 혐오 조장을 중단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5 월 11 일)

http://bogun.nodong.org/xe/khmwu_5_4/577132#0

[성소수자인권위원회][성명서] 감염병을 성소수자 차별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성소수자인권위원회 / 5 월 11 일)

https://www.humanmed.org/index.php?module=Board&action=SiteBoard&sMode=VIEW_FORM&iBrdNo=8&iBrdContNo=10&sBrdContRe=0

[발언문] “검진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인사합니다”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음 / 5 월 12 일)

<https://www.facebook.com/Dawoom.t4c/photos/a.130529611756605/168425517967014/?type=3&theater>

코로나 19 로 인해 두려움, 불안, 분노, 슬픔 등의 복잡한 감정과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반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아이샵 / 5 월 12 일)

<https://www.facebook.com/ishapseoul/posts/1893258694141566>

기자 회원들께 드리는 코로나 19 보도 관련 제 2 차 긴급 호소문(한국기자협회 / 5 월 12 일)

http://www.journalist.or.kr/mybbs/bbs.html?mode=view&bbs_code=bbs_20&bbs_no=29250

[모니터링] 코로나 19 마저 악용, 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민주언론시민연합 / 5 월 12 일)

<http://www.ccdm.or.kr/xe/watch/295143?fbclid=IwAR0LvB8uzXG1aFaY1bIF3iSWG4vkbC-lInW69l8txr2rpm7qo1iws8Q3UU0>

[논평] 성소수자 혐오는 방역의 걸림돌(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 / 5 월 12 일)

<http://www.justice21.org/go/ic/3092/70076?fbclid=IwAR1hVZo1kuxCF6cDNvCRQf3Wm4Sbs05oV4uSRPYoVDSqAoEjMD0ks5HYfH4>

방역 지장 논란 국민일보 입장은 무엇인가(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 지부 / 5 월 12 일)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7652

[성명] 이태원 관련 감염 확산에 대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성명서(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 5 월 12 일) <https://amnesty.or.kr/35230/>

[메시지(기부, 카드)] 웃으며 만나는 날까지 모두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Justina / 5 월 13 일)

[성명] 차별과 혐오에 연대로 맞서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5 월 13 일)
http://www.snojo.or.kr/bbs/board.php?tbl=bbs24&mode=VIEW&num=485&category=&findType=&findWord=&sort1=&sort2=&mobile_flag=&page=1

[성명] 최근 코로나 19 감염상황 관련 언론의 무분별한 인권침해에 대한 민주노동 입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5 월 13 일)
<http://nodong.org/statement/7768343?fbclid=IwAR3k5hblRa8GCGHgPyPBnoJj-66GKzx0tALbj7K9FynUN4SBjd36rqiKZY#0>

[성명] 혐오는 코로나 19 를 확산시킬 뿐입니다 (전국퀴어모여라 / 5 월 13 일)
<https://www.facebook.com/KoreaQ/posts/1390711407790501>

[기자회견문]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전국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5 월 14 일) <http://www.peoplepower21.org/Solidarity/1705931>

[성명] 혐오와 차별 중지야말로 공동체 안전 지키는 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 5 월 14 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401&menuid=001004002001>

iSHAP 이 종로 업소 사장님들께 드리는 부탁 (아이샵 / 5 월 14 일)

<https://www.facebook.com/ishapseoul/photos/a.185196514947801/18950318072975>

88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인권에 ‘사회적 합의’는 필요치 않다 (녹색당 / 5 월 15 일)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85%bc%ed%8f%89-%ec%9d%b8%ea%b6%8c%ec%97%90-%ec%82%ac%ed%9a%8c%ec%a0%81-%ed%95%a9%ec%9d%98%eb%8a%94-%ed%95%84%ec%9a%94%ec%b9%98-%ec%95%8a%eb%8b%a4/>

[영상] 코로나 19 에 맞서 서로를 지지합시다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5 월 15 일)

<https://www.facebook.com/102705644539002/posts/169237344552498/?vh=e&d=n>

“용기를 내어 서로를 지키자” 5. 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인권재단사람 / 5 월 16 일)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jjyEGugRnojQD3gUIFEfWpZP3RX33Q==>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그리고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 4 주기를 보내며"

(트랜스해방전선 / 5 월 17 일)

<https://transliberationfront.com/305>

[논평]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감염병 확산 막을 수 없다(인천지역연대 / 5 월 25 일)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582547189039383&id=1366554202952

31

V. 부록

1. 제 12 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코로나 19 와 성소수자 세션 자료집

1) 개요

- 제 12 회 성소수자 인권포럼은 <코로나 19 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이렇게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 이 중 코로나 19 와 성소수자 인권 세션은 대책본부에서 담당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함

- 세션명 : 코로나 19 와 성소수자 인권
- 일시 : 8. 22.(토) 14:00-16:00
- 진행 : Zoom 프로그램 사용해서 진행
 - 사회 : 다니주누(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가)
 - 발제 1: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에 대한 보고와 평가
발제자: 소주(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가)
 - ▶ 토론자: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서보경(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발제 2: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감정과 경험
발제자: 터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소식지팀장)
 - ▶ 토론자: 에디(이태원 보광동 주민)
- 종합토론

2) 코로나 19 와 세션 자료집

[발제 1]

소주(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활동공유 및 평가

소주

발표: 코로나19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 활동공유 및 평가

1. 출범/구성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활동가/단체 중심으로 긴급논의를 진행한 후 출범(05/12)
- 이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소속단체 중심으로 확대(총 22개 단체)
- 상황실을 구성하여 실무 집중진행



2-1. 활동 - 상담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전화상담 50여건 (05/07~11)
- 코로나19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 결성 이후,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땡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이 상담업무에 합류,
4개단체 공동대응 시작. 후반기에는 설문링크로 상담수령.

- 총 약 70여건의 상담/인권침해 대응업무 진행.

2-2. 평가 - 상담

- 협력적인 상담대응 체계
- 4개단체에서 1차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 필요시 상황실 차원의 2차적 대응논의 진행
- 법률자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민주노총 법률원 등과 홍보 및 대응계획 시 협력

발표: 코로나19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 활동공유 및 평가

3-1. 활동 - 언론대응

- 혐오언론/기사에 즉각적으로 대응
- 인터뷰 요청/섭외 대응
- 언론모니터링 글 작성 및 발표(05/13~06/30)
(이태원상황 이후 초반기간에는 매일 작성발표)
- 혐오언론 순회방역 릴레이 기자회견(05/29)

국민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 등



발표: 코로나19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 활동공유 및 평가

3-2. 평가 - 언론대응

- 초반부터 언론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언론의 혐오선동 폭증 가능성을
어느정도 예방
- 커뮤니티의 찌방과 업소문화 등 논의하기 쉽지
않은 키워드들을 운동의 입장에서 풀어내면서
이를 커뮤니티 안팎으로 환기
- 대책본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음

4-1. 활동 - 방역본부 및 지자체 대응

- 서울시/경기도/국가인권위원회와 회의 및 논의 진행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와 논의 진행
- 인천 등은 소통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음.
- 성소수자 인권침해 대응(서울시 인권위원회)

*주요의제 및 안건: 개인정보, 동선공개, 검진시
차별 및 인권침해, 코로나19 검진 독려홍보,
혐오대응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침해

4-2. 평가 - 방역본부 및 지자체 대응

- 혐오차별 예방 메시지 전달(전 서울시장, 현 경기도지사)
 - 서울시, 경기도와의 파트너십 형성이 어떻게 가능했나.
 -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성된 파트너십
 - 이후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와 정부/지자체의 파트너십은?
-

발표: 코로나19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 활동공유 및 평가

5-1. 활동 - 홍보

- 서울시와 공동작업
- 수어(한국농인LGBT 협력),
- 외국어(서울퀴어문화축제 협력) 등 번역
- 구성단체 홈페이지/소셜미디어 등 매체로 홍보협력

어플: 찍디, 덕쏘(까만봉지), 그라인더, 블루드, 나인몬스터
커뮤니티: 이반시티 등



발표: 코로나19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 활동공유 및 평가

5-2. 평가 - 홍보

- 홍보 시 필요한 예산의 총당: 서울시
- 게이(MSM) 접근성 높은 어플과 사이트에 게시
- 구성단체 적극적인 홍보협력
- 구성단체 외 연대단체의 적극적인 홍보협력

6-1. 활동 - 지역소통

- 각 지역의 단체들과 소통을 통한 협력
 - 이태원은 서울이나, 이용자들은 전국 분포
 - 경남: 경남퀴어문화축제
 - 광주: 광주인권지기활짝
 - 부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 전북: 전주퀴어문화축제
 - 그 외
-

6-2. 평가 - 지역소통

- 빠른 상황파악과 소통의 어려움.
 - 대책본부 구성단체 대부분이 서울에 위치.
 -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기반의 정도/격차가 큼.
 - 서울에서의 대응 속도/현황과의 격차가 존재.
-

발표: 코로나19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 활동공유 및 평가

7. 총평 및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목차

1. 감염병 위기상황과 개인정보 처리 원칙
2. 역학조사 및 추적 시스템
3. 확진자 동선공개
4. 결론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원칙

공중보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도 있음.

- 1) 법에 근거해야 함
 - 2) 공공보건 목적에 필요하며 비례하는 수준이어야 함
 - 3) 기간이 한정되어야 함
 - 4) 침해를 최소화해야 함
 - 5) 독립기구에 의한 감독을 포함해
-

역학조사 및 추적

역학조사의 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76조의 2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러 기관에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등 의료정보,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개인정보와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포함

역학조사 및 추적

문제점 2) 적용 대상의 모호함

-감염병환자등 뿐만 아니라 감염병의심자의 개인정보 역시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
그러나, 감염병의심자의 개념이 모호하여 그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역시 과도하게 수집될 가능성 있음

역학조사 및 추적

문제점 3) 위치정보의 수집

- 해외 대다수의 인권단체들은 휴대전화 위치정보(통상 휴대전화 기지국에 남는
위치정보를 의미한다) 사용에 부정적 -> 근접 거리 파악 불가능
 - 즉,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프라이버시는 침해하고 접촉자 추적의 효과는 떨어지는
정보
 -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이러한 부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내역이나 CCTV 등 추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

역학조사 및 추적

문제점 4)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법적 근거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 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이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법적 근거라기 보다는 역학조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법적 근거일 뿐

역학조사 및 추적

문제점 5) 수집된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르면 수집 목적이 다할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
-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메르스 사태 때 수집된 확진자와 격리자 정보를 아직까지 파기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이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것이라 답한 바 있음
- 반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역학조사 및 추적

문제점 6) 위치정보 수집과 경찰

-제76조의2 제2항은 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굳이 경찰관서를 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역학조사 및 추적

문제 사례) 기지국 수사

-기지국 수사란 특정 시간에 특정 기지국에 기록된 휴대전화 접속기록을 무더기로 제공받는 수사 방식 ->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지난 이태원 클럽에서의 감염 발생 때 서울시와 보건당국은 이동통신사에 기지국 접속 기록을 요청

-감염병 의심자인지 알 수 없는, 1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기지국 정보가 정부로 넘어감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지자체나 보건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을 감독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가 필요

확진자 동선공개

동선공개 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6조 및 제34조의2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

확진자 동선공개

동선공개 방침의 변화:

대응 초기, 지나치게 신상이 노출되는 확진자 동선공개 방식으로 인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번에 걸쳐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를 각 지자체에 배포

6월 30일 개정된 3판에선 △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할 것 △ 성별, 연령, 국적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거주지의 경우에도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말 것) △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장소목록 형태로 지역(시도, 시군구), 장소 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할 것 등 시민사회 요구 사항 일부 반영

확진자 동선공개

동선공개 예시

참고 1

확진환자의 정보공개 표준 예시

시도	시군구	장소 유형	상호명	주소 (도로명 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도	○○시	판매업	○○마트 (○○점)	○○도 ○○시 ○○길 ○○ 1층	6.29(월), 13:00~15:00	소독완료
○○시	○○구	대중교통	○○번 버스 (○○아파트~○○회관)	-	6.30(화), 13:00~13:20	소독예정

확진자 동선공개

각 지자체별 동선공개 방식

구·동	장소·유형	상호명(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이동수단
종곡4동	의료기관	김중웅내과 (용마산로46, 2층)	6.27.(토) 10:14	소독 예정	도보
종곡2동	약국	21세기약국 (용마산로49)	6.27.(토) 10:18	소독 예정	도보
종곡4동	은행	우리은행ATM (용마산로44)	6.27.(토) 17:01	소독 예정	도보
종곡4동	음식점	강릉집 (영화사로5-3)	6.27.(토) 18:30	소독완료	도보
종곡2동	의료기관	정이비인후과 (용마산로53)	7.4.(토) 12:25	소독 예정	도보
종곡2동	음식점	금수산보신탕 (용마산로13)	7.5.(일) 13:41	소독 예정	도보

확진자 동선공개

문제점 1) 정보공개 목적 혼재

-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란 무엇인가?
 - 목적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개인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확진자 동선공개

문제점 2) 정보공개 주체 모호

-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정보 공개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음
 -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해당하는 장소와 시간을 목록 형태 공개해야 함
-

확진자 동선공개

문제점 3) 공개되는 정보 범위

- 감염병 예방법 제34조의2는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열거하고 있음
- 만일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굳이 동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됨
- 정보 공개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고 공개되는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적인 조항을 포함해야 함

결론

- 한국의 방역 대책은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에 대한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및 국가 감시의 위험성을 갖고 있음
- 근본적인 문제는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감독 체계가 부재하다는 것
- 감염병 긴급 상황에서 공중보건이라는 공익을 위해 기본권이 일정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제한이 남용되거나 긴급 상황 이후에도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중보건 집행 당국의 외부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 즉 감독기구의 역할을 어디선가 수행할 필요가 있음

[토론 2] 코로나 19 와 함께 다시 만드는 다중쟁점의 퀴어정치

서보경(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코로나 19 성소수자긴급 대책본부”가 만들어지고, 긴급한 상황들에 대응하는 과정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커뮤니티의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직접 시험해보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에서 중요한 역사적 기점으로 남을 것이다. 무엇이, 누가, 어디까지가 과연 성소수자 커뮤니티인가를 둘러싸고 우리가 해온 여러 질문들과 실험들이 코로나 19 라는 새로운 위기 앞에서 훨씬 구체화되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대책본부의 주요 활동인 상담, 언론대응, 홍보, 지역소통은 과거부터 성소수자 단체들이 고유의 역량과 전문성을 쌓아온 영역들로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본부 및 지자체와의 대응 역시 HIV 인권 운동 영역에서 비공식적으로 시도해 온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대화의 시도들이 밑거름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하게 한다. HIV 인권 운동, 또 이를 성소수자 운동의 주요 의제로 끌어 안고자 했던 여러 단체들과 활동가들의 경험과 성찰이 이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대책본부는 감염병의 예방에서 왜 통제와 처벌이 주요 수단이 될 수 없는지, 자발적 검진과 사생활 보호가 왜 효과적인지에 관해서 선명하고 전문적이며 책임성있는 목소리를 내었고, 코로나 19 대응 전반에서 인권의 가치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방역의 논리와 인권의 논리가 서로 대척점에 있지 않으며, 이 둘이 서로 간섭하고 영향을 미칠 때, 위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대책본부의 활동이 입증해주었다.

- 이전과 동일한 방식의 운동을 할 수 없다?

문제는 대책본부 활동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코로나 19 의 위기는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소수자의 삶 역시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성소수자 운동의 많은 활동들이 잠시 멈춤 상태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 활동을 다시 기획해보고자

하였을텐데,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된 수도권의 감염 확산은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전과 동일한 방식의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위기를 단순히 활동의 방식이 아닌 활동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이다면, 포스트코로나는 성소수자 운동에서 어떤 모습을 띌 것인가?

2014년 6월 인권오름에 한국 HIV/AIDS 감염인인권연대의 손문수 대표와 HIV 인권연대나누리+의 윤가브리엘 대표는 “귀한 목숨이고 싶다”라는 글을 쓴 바 있다. 요양병원 사태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호소하는 이 글을 나는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인권운동사랑방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으면서 우연히 다시 읽게 되었다. “귀한 목숨”이 되고 싶다는 이들의 짙은 글은 하찮은 목숨으로 치부되어 격리되지 않고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감염을 이유로 한 감시가 아니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장애가 있어도 아프고 늙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

성소수자의 삶에 미래의 희망을 투영할 수 없게 만드는 죽음 정치의 긴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여 왔다.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는 이 때에 어떤 삶이, 어떤 생명이 “귀한 목숨”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일까? 의료 자원이 부족이 예상되면서, 또 백신 배분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를 두고 사회적 토론이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질문은 “나중에”의 대상으로 밀려나온 성소수자의 삶에서 얼마나 익숙한 질문인가? 성소수자를 사회의 위협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부정성의 매개체로 여기는 낙인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정치적 위계를 고착하고 삶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권력의 작동과 불화할 것인가?

나중의 대상으로 밀려나온 여러 존재들 속에서 장애 운동과 생태 운동은 이 배분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여 왔다. 어떤 기능과 능력을 가진 삶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에 장애 운동은 존재의 가치에 위계를 매기는 질문 자체에 맞서왔다. 장애여성 공감의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라고 명명한 소수자 운동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지평, 긴장을 야기하고 불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를 코로나 19 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길어 올릴 것인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온다. 또한 현재의 위기가 신종바이러스 그 자체로 인한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 삶을 누리기 위해 당연히 해온 생태적 착취의 결과로 축적된 수많은 위기들, 즉 인류세가 만들어 낸 기후재난과 긴밀하게 연결된 위기라는 것을 정면으로 바로 볼 때, 우리는 오직 인간만을 위해 만들어진 우선 순위들을 시급히 쿼어링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상과 보편을 의심하고, 맞서 싸우고, 그 속에서 존엄하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지를 지금까지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입증하여 왔다면, 코로나 19 는 다중쟁점의 쿼어 정치가 더 큰 긴장을 만들어 내야 할 역사적 필요를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서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들이 서로 돌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쿼어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혹은 무엇이나 귀한 목숨이 될 수 없다는 폭력을 인지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목숨이 되겠다는 의지를 요청한다. 이 위기가 당장 해결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마치 새롭게 발견된 일처럼 여겨질 때, 불가능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쿼어의 삶에서 오랜 일상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뉴노말에 맞서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쿼어화할 것인가?

[발제 2]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감정과 경험

- 그 날 그 시각 그 클럽에 있었던 한 게이의 사례

터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1.

2020년 5월 2일 새벽 1시 30분, 확진자가 있었다는 킹클럽 플로어에 나도 있었다. 마스크를 되도록 끼고 있었고, 다행히 음성통보를 받았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고 마스크를 내내 끼고 있던 다른 친구는 확진 판정을 받아 음압병동에 한달여간 머물렀다. 나는 다만 운이 좋아 그곳에서 안전했던 셈이다.

게이커뮤니티에게 게이바·게이클럽 등의 업소란 단체와 더불어 커뮤니티의 중요한 현장 가운데 하나다. 마냥 노는 게이와 마냥 운동하는 게이 사이의 스펙트럼을 풍성하게 만들어온 데에 함께 애써온 곳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데엔 성소수자 인권운동 특유의 당사자성이 자리해있다. 어떤 게이에겐 종태원이라는 게토에 진입하는 것조차 장벽이고, 따라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 노는 것은 자연스럽게 운동적 함의를 지닌다. 마치 퀴어퍼레이드에서 퀴어들이 얼굴을 내보이는 것만으로 운동이 성립하는 것처럼.

그런 걸 다 떠나서 종태원에 가는 것만으로 어딘가 마음이 뚫리는 사람들이 있다. 나와 비슷한 동류가 종로 포차에서든 이태원 클럽에서든 저리 북적이고 있다는 것이 주는 매캐한 위안이 있다. 이성애 사회의 격률을 모른 척 웃으며 참아넘기는 노역을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 서로에게 호감을 표현하거나 거부당하는 일이 바깥 세상보단 훨씬 자연스러울 수 있는 곳. 어떤 게이에겐 그 울타리의

감각이 너무도 선명한 것이어서, 클럽에만 가면 감기가 낫는다거나, 명절 때 친척들 의전을 마치고 난 그날 밤 종로로 달려오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감각은 엄밀히 말해 게이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애초에 이 곳 게이 계토를 조성한 것은 성소수자 당사자가 아니라 그들을 이 곳으로 내몬 이성애 사회"이기 때문이다.(2019.9.) 게이들이 구태여 성매매집결지를 지근거리에 둔 축축한 지하에 모여들게 된 데에는, 이 남자 저 남자와 잘 것만 같은, 규범적 성에서 미끄러진 존재들이 모여들법한 곳이라는 구조적인 강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 정국을 맞아 게이들더러 종태원에 모여있지 말라고 하는 말이 탄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언제는 한 곳으로 내몰아놓고서는, 이제 와선 그곳에 모여있지조차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2.

이태원 코로나 집단감염이 터지면서 가장 고초를 겪는 건 아마도 게이커뮤니티의 업소들일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에도 9 년째 이어오던 게이바 한 곳이 이달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시국에서 어느 바에 가 누구랑 함께 술을 먹는다는 인증샷 하나 게이스북에 올리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게이업소에 가서 서로 인증샷을 찍는 문화는 2010 년대 들어 간신히 정착된 게이스북의 문화고, 그게 가능해진 후에 게이업소 운영·홍보의 판도가 바뀌었으며, 그건 퀴어퍼레이드에서 프레스 촬영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만큼이나 중요한 변화였다.

사진 업로드가 어려워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으로 방역당국의 수칙에 어긋나는 존재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집단감염이 터진 후 수일간 검색어에 랭크된 게이업소의 이름만큼이나, 그것에 충격을 받고 더 지하로 숨어들고 이미 드러난 게이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는 더 상처가 됐다. 물론 낙인이 심한 소수자일수록, 남들 눈에 모쪼록 규범적이고 받아들이기 좋은 외양이었으면 좋겠다는 욕망도 크기 마련이고, 그런 여론은 90 년대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태동하던 그 시절부터

있던 이야기이다. 더불어 그런 욕망 또한 엄밀히 말해 게이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한 바가 아니므로, 이해가 안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셈이다.

방역에 협조하는 착한 시민이고자 하는 마음을 폄훼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그런 욕망이 소수자 그룹일수록 자신을 지우고픈 욕망과 연결되는 것이, 한 그룹의 시민의식이 구태여 "우리의 부재로 증명되어야 하"는 상황이 비감할 따름이다.(2020.5.17.) 따지고 보면 그건 갑남을녀의 게이뿐 아니라, 이번 정국 때 방역당국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커뮤니티 안팎의 신뢰를 샀던 인권운동 단체에게도 얼마간 해당되는 감정이다. "인권단체란 무릇 정부의 방역망을 최후까지 피해 숨어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역당국이 아니라 그의 편을 들어 지원함이 마땅한 곳이다."(2020.6.9.) 그런 곳에서 킹클럽 확진자 방문 직후 제발 단체를 믿고 검진을 받아달라는 호소의 글을 몇 번이고 내놓았다는 것은 과연 무얼 뜻할까. 물론 그건 그것대로 당시 커뮤니티가 겪은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고 위협적이었다는 증거이겠지만.

최근 동성애 혐오를 밥먹듯이 하던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신도들 중 사분지일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를 두고 혹자는 게이를 혐오하지 말아야 하듯 개신교인을 혐오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하고, 혹자는 게이클럽에서 터졌을 때는 기사가 그렇게 들끓더니 교회에서 터지니 왜 상대적으로 이리 잠잠하냐고 성토했기도 한다. SNS 의 타임라인에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라는 마태복음의 구절과, "교회에서 난교는 안했잖아 블랙핑크 똥꼬충새끼들아"라는 트윗 캡처가 동시에 떠다닌다. 각자의 입장이 어찌됐든, 수도권에서의 코로나 재유행을 앞두고 게이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한층 더 옷매무새를 고르는 모습이다. 확산세가 가라앉을 때까지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특히 모임 사진을 어디에 내거는 일은 삼가자는 목계 말이다. 그리고 거기엔 단순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자는 시민의식을 상회하는 어떤 낙인의 경험이 있다.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새삼 느끼는 바는 다음과 같다. "왜 우리는 이토록 온건하고 나빠지지 않으려 노력하면서도, 끝내는 놀랍도록 급진적인 사물로 취급받을까."(2018.1.23.)

3.

어릴 때부터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편이다. 봄철마다 꽃가루 알러지와 그로 인한 비염, 천식, 결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겪고, 각각의 질환에 따른 대처법도 어느 정도 익혀둔 상태다. 기침 한번 재채기 한번으로 역적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 몸 단속에 나서지만, 사람 일이 마음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 코를 풀 때마다 옆자리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일, 어디 방문할 때 내 30년 알러지 병력을 믿고 거기에 호흡기 증상이 없다고 체크하는 일 등은 차라리 익숙하다. 정녕 익숙하지 않은 것은 혹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된 건 아닐까-라는 내 안의 공포다.

누군가와 노콘 섹스를 한 다음에 HIV 검사 때까지 몸에 핀 두드러기를 보고 온갖 상상된 공포에 휩싸이는 일은, 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어본 경험일 것이다. 그 공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던 방법은, 설령 내가 HIV 감염이 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일이었다. 다행히 내 곁엔 나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사는 감염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나에게 스승이었다. 내 것이라 생각하기도 싫은 어떤 상태에 대해 비로소 윤곽이 잡히고 삶으로 상상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그러했다. 물론 그럼에도 감염인과 비감염인 사이엔 추체험으로 건널 수 없는 피의 강물이 흐르고, 그 격절 또한 내 곁의 감염인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겸허함이었다.

새삼스런 것도 없는 고삿을 앓는 와중에 이것이 실은 코로나의 증상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이 시국에 누구나 한번쯤 겪어봤을 경험이다.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힘든 까닭은,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파국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나와 만난 모든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 것은 물론이고, 특히 그 중에 게이를 비롯한 성소수자가 포함돼있다면 그와 나와의 관계는 백일하에 드러나 추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성매개 감염을 떠나 누군가와 마스크를 벗고 마주했거나 악수해서도 안되는 질환에 대해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나와 함께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게이들은

단톡방에서 은밀히 확진자 명단을 공유하거나, 종태원 인증샷을 올리는 게이들을 욕하거나, 그들이 욕한 바로 그 게이들이 했던 행위를 암암리에 하거나 할 것이다. 나는 그런 그들을 욕할 마음이 없다.

나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가 발령된 이 정국에, 내 입과 코에서 나오는 숨결이 온전히 깨끗하지 않은 듯한 이 와중에도, 누군가라도 만나 말을 섞고 비말과 입술을 나누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힌다. 몇 번의 노콘 섹스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런 충동을 잘 제어할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그에 실패하는 때도 있다.

4.

음압병동에 있었거나, 허위 보고로 방역당국의 품을 값아먹었다고 손가락질 받은 게이 확진자들을 생각한다. 그들은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그 순간 얼마나 외로웠을까. 확진 이후를 감당할 수 있는 아무 각본도 준비도 없는 미답의 상태를 그들은 어떻게 홀로 견디어 낸 걸까.

다행히 대책본부의 연락망에 손뼉을 수 있었던 몇몇 제보자들 외에, 차마 그럴 엄두도 낼 수 없었을 이름모를 게이들을 생각한다. 확진도 아닌 자가격리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고 나서, 아무런 상담도 구제 요청도 하지 않은 채 직장을 그만뒀버렸다는 은둔 게이의 이야기가 구전처럼 떠돈다. 바깥 세상이 아니라 종태원으로 나가는 일조차 누구에게겐 커밍아웃의 일부로 여겨진다는 것을, 그곳에서 떠도는 그 구전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몸소 딛고 선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어렵듯이 깨닫고 있다는 증거다.

그 경계 위에 위태로이 서있는 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콧물이 오래된 알려지 때문인지 무서운 코로나 때문인지, 내 면역을 떨군 심인성 요인이 누구나 겪는 코로나 블루 탓인지 내 성적 지향에 따른 소수자 스트레스 탓인지를 분간할 힘이 없다. 그 와중에 한 가지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지금 내 몸의 아픔에 쏟아지는 안팎의 시선들이 도무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는 선명한 감각이다. 따지고 보면

그건 몹시 모욕적이고, 아무쪼록 인간이 겪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내고 있다. (2020.8.18. 15:00)

[토론]

에디(이태원 보광동 주민)

‘K-방역’과 ‘#덕분에’ 캠페인이 한창이던 봄, 국민일보에 기사 하나가 떴다.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익숙한 간판들이 보였고, 뉴스 기사와 식당 옆 테이블 등에서 성소수자 얘기를 한동안 참 많이 들어야 했다. 학교 개학이 미뤄지고 여러 행사들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누군가들은 어떤 욕이건 먹어도 괜찮고 그걸 견뎌내야 하는, 소위 ‘자숙’해야 하는 시간들이었다.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도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는 쪽과 그럼 직장이나 학교에서 아웃팅을 감수해야 하는 건가 하는 우려들이 공존했던 걸로 안다. 양쪽 모두 이해가 되는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을 엮을 수조차 없었다.

이 시기에는 게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면 이태원을 조금 비껴서 한강진, 녹사평 근처에서 만났다. ‘성소수자로 보이는 모습’으로 있으면 손가락질 받을 것 같고, 그래도 뭐라 말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클럽에 가지도 않았고,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한남동 주민일 뿐인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마치 내 일 같았다. ‘성소수자는 더럽게 논다’와 같은 혐오 발언들이 단지 게이라는 특정 집단만이 아니라 내가 포함된 성소수자 모두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내가 단지 이태원에 사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연락을 많이 주었다. “괜찮니, 너 혹시 그 클럽에 갔었니”라고 물을 때 불편하기도 하고 참 난감했다(난 트랜스젠더인데...). 같이 밥을 먹은 사람이 “검사 받고 나한테 결과 알려줘라”라고 하기도 하고. 어플에서 나를 소개할 때 이태원에 산다는 말도 왠지 고민이 되고.

기사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게이힐’에는 킹클럽을 비롯한 클럽들과 게이 바가 몇 개 있고, 트랜스젠더 바도 5~10개 정도가 있다. 5월의 어느 날은 촬영팀이 아침부터 밤까지 진을 치고 있었다. 이 주변을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바로 뒤에 트랜스젠더 바 하나가 보였다. 어느 하루는 게이힐 주변에서 예배 같은 걸 하기도 했다. 킹 클럽 바로 옆에서 성소수자 치료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통곡하고 노래하고 예수님을 찾더라. 성소수자로서 안전을 느꼈던 곳에서 굉장한 불안을 느껴야 했다. 주변의 성

소수자 이웃들은 한참 동안 그쪽 지역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갔다. 내가 알기도 하고 안전하다고 느꼈던 가게의 간판들이 A4 용지로 가려지고, 또 어떤 촬영팀은 그걸 들춰보려고 하고. 지역 주민들은 지나가다가 ‘여기가 거기다’, ‘게이 어쩌구저쩌구’ 하는 말들을 하고. 기존에는 이태원에 원래 퀴어 문화가 있고 이들이 여기에 공존하고 있다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문제를 일으킨 성소수자들이 여기에 있어, 라는 느낌을 읽었다. 지나가면서 하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귀에 들릴 때, 그리고 그 일대가 불이 꺼져 있는 걸 보며 그 일대가 없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태원은 가장 퀴어들이 많다고, 퀴어들이 드러내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개 업소가 문 닫았다고 퀴어 문화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이라니. 여기저기 나붙은 ‘#클린 이태원’ 현수막을 보고도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트랜스젠더로서 주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하나 덧붙이려 한다.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비난을 받던 그때 트랜스젠더 바는 당연히 영업이 안 됐고, 그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대안도 없었다. 트랜스젠더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굳이 더 설명하지 않겠다. 몇몇 분들은 조건만남 등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

지나가다가 들러 언니들과 근황을 나눈 적이 있다. 한 분은 “집에만 있으면 너무 우울해, 장사는 안 되지만 그래도 문 열고 있는 게 나은 것 같애”라고 했다. 트랜스젠더에게 트랜스젠더 바는 돈을 버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위 내가 ‘이상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다. 내가 떠날 때 언니들은 영업도 안 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가게 문을 열고, 메이크업도 안 한 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앉아있었다. 이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오래 남았다.

이 일이 있는 지 몇 개월이 지나 이제는 좀 잠잠해졌다. 아니, 뭐가 잠잠해진 걸까. 이 글을 쓰는 오늘은 한 교회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제12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인권을 커다, 평등을 커다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감정과 경험

그날의 이태원, 그날의 에 디

에디(이태원 한남동 주민)



news.kmb.co.kr > article > view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국민일보

4일 전 - 이태원 게이클럽 킹(King)은 이날 SNS에 "지역 사회 확진자가 2일 00:20~03:00 사이 킹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해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

시사 > 전채기사

[단독]이태원 유명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방문한 클럽, 주점 등 이용자 2000명 규모...지역사회 2차 감염 우려

입력 : 2020-05-07 07:21 / 수정 : 2020-05-07 22:03



#의료진 덕분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성소수자는 더럽게 논다”
“너 혹시 그 클럽에 갔었니?”
“검사 받고 나한테 결과 알려줘”



트랜스젠더에게 게이힐/퀴어
힐은

2. 성소수자/HIV 인권운동의 경험 조사

1) 개요

- 코로나 19 관련 성소수자/HIV 인권운동단체들이 ‘어떠한 논의, 활동들을 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운동에 제안하고 싶은 과제들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0. 7. 23.(목) ~ 8. 5.(수)
- 응답 : 7 개 단체

2) 답변 내용

Q1. 코로나 19 관련 귀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특별히 논의하였거나 기획/진행한 활동이 있나요?

- 커뮤니티에 위로 전하기 위한 영상 제작(유튜브)
- 1) 코로나 19 로 인한 경제위기 상담, 위기지원이 다수 증가함. 이에 코로나 19 긴급생계비 지원을 기획, 모금, 실행함. 2)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강의 전환 등으로 외출제한을 겪는 것이 치명적이었음. 원래도 적었던 이동의 자유가 매우 줄어들음. 이로 인한 스트레스, 쿼어 집단과의 접촉이 줄어들어 겪는 외로움/소속감 없음, 가족 내 갈등과 폭력 증가 등이 심각한 위기로 발견되었음. 이에 전화상담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SNS 를 통해 마음 돌봄 행동제안 등을 하였음.
- 머니투데이 향의 공문 발송, 문제적 언론 보도 시민제보 수집, 혐오선동언론 out 인증샷 캠페인, 성명 및 입장 발표, 상담

- 특정하여 활동을 기획/진행한 바는 없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이 의료적 조치와 연결된 사안인지라, 트랜스 커뮤니티에서 의료접근권에 대한 의견/문의들을 개별적으로 응대한 바 있습니다.
- 5/6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국민일보 등의 언론의 문제 등에 대해 게이커뮤니티 일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대응 목표로 삼고, 해당 언론 규탄 성명 및 커뮤니티를 향한 메시지 발표. 5/9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와 면담 진행. 5/10~5/21 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주말을 포함하여 상담 진행. 코로나로 인한 성소수자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기금 후원금이 모여져서 커뮤니티 선착순 지원 50 명을 대상으로 기금 배분함. 더불어 3 월 부터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 5 월 12 일부터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 이어가고 있음.
-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와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에 참여했고, 이태원 기지국수사 헌법소원 대리인단 참여

Q 2. 코로나 19 로 인해 사업/활동 등에 있어 겪은 어려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참가자들의 안전 고려하여 행사 취소 및 축소, 기존 오프라인으로 기획했던 행사 온라인으로 변경
- 1)참가자 안전을 고려해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다수 취소 2)다수의 사회복지단체, 청소년기관 등이 정부 지침으로 휴관, 축소운영하여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기가 매우 어려웠음. 3) 기획했던 거리 캠페인 실행 불가
- 회원모임 취소 및 연기, 온라인을 통한 모임/회의 진행 등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후원이 감소하였다
- 1) 2 월 말부터 현재까지 기획되었던 오프라인 상의 행사들 - 컨퍼런스 개최, 연속 간담회, 정기적 행사인 지지모임과 법적 성별정정 설명회 등 - 을 모두 올해 하반기로 연기하였습니다.

2) 또한 참여하기로 하였던 각종 행사들의 부스 및 캠페인/홍보 참여 역시 취소하였습니다. 3) 회의 진행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는 식으로 변경하여 현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2 월 초 부터 야외 행사로 진행하는 회원 프로그램이 축소 또는 취소로 진행이 됨. 단체의 가장 중요한 회의체이면서 모임인 (매월 마지막 토요일 진행) 정기모임이 2 월에는 전례에 없는 상황으로 취소됨. 당일날 진행될 무지개인권상 시상식은 3 월로 연기함. 이후 3 월~5 월에는 온라인 중계 형식으로 모임을 진행. 6 월 부터 다시 정기모임 진행하여 7 월 까지 진행하고 있음. 소모임 중 수영모임 마린보이는 공공시설 내 수영장이 폐쇄되어 상반기 동안 모임을 가질 수 없었음. 게이 합창단 지보이스 역시 정기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연습실 대관이 어려웠음.
- 회원 대상 MT 기획 중에 있었으나, 코로나 19 여파로 방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 10 명 정도 인원의 오프라인 장소 대관에도 또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 등 실질적으로 쿼어 당사자 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장이 줄자, 회원들의 활동이나 분위기도 눈에 띄게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가 가져가는 활동폭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 매년 여름 법조인 및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했으나 대관의 어려움과 확산상황을 고려 올해는 하지 않기로 함
- 또한 매년 여름 공감, 게이법조회와 함께 성소수자 법조인/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1 박 2 일 캠프 LGBTI 법률가대회를 개최했으나 이 역시 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매 반기마다 신입회원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행사를 개최했으나 이 역시 희망법이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출입이 통제되고 식사를 하는 행사 진행상 어려움을 고려 취소함

Q3. 한편으로 온라인 행사를 통해 서울 외 지역에서 참여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 변화도 있습니다. 코로나 19 로 인한 활동방식의 변화가 가져온 긍정적 측면이 있나요?

- 온라인으로 행사 진행하여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접근이 용이해짐
- 회원모임 시 온/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하면서 해외거주 회원이나 지역회원들의 참여가 가능해짐
- 단체 활동 비중 중 온라인 활동을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지는 아직 유보적입니다.
- 1 차로 정기모임의 다양성을 찾도록 기획이 됨. 6 월에는 옥상에서 7 월은 3 가지로 시간대를 나누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제주가 가지는 지역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외의 지역에서 참여나 후원 등의 접촉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진 적 없던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의 소수자 운동에 대해 커뮤니티의 차원에서 새로 논의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온라인 회의가 익숙해 짐으로써 지역에 있거나 시간 상 회의장소에 모이기 어려운 경우에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참여가 더 활발해질 수 있었다

Q4. 코로나 19 로 인해 화상회의 프로그램, 유튜브 생방송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한 활동들이 활발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 단체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타 단체들에게 공유해주고 싶은 노하우 등이 있나요?

- 온/오프라인 병행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 1) 10 인 이내의 구성원끼리 온라인 회의 시, 구글 행아웃을 사용하였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인터뷰 진행 활동에서는 ZOOM 서비스를 사용하였는데, 유료이지만 녹화와 녹음이 편리하였습니다.
- 회의는 zoom 프로그램이 가장 덜 끊기고 진행이 원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 Zoom 은 현재 교육용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 제한 없이 최대 300 명까지 회의호스팅 가능함. 몇몇 학교 계정의 경우 졸업생이어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면 좋음

Q5. 코로나 19 유행이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이고 가을에 재확산 될거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소수자/HIV 인권운동이 좀 더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 제안해주세요

-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팬데믹 상황으로 청소년, 청년층의 불안이 높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인권운동과는 어떻게 만날지...
- 온라인 캠페인 참여율도 저조하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엔 한계도 있고... 막막하네요
- 1)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방역 방역을 더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기자재 등의 물품, 형식, 대관 가능한 곳 정보 공유 등의 공유되는 인프라/플랫폼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2)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활동가들이 1~2 회가 아니라 앞으로도 & 장기적으로 계속 방역을 걱정하고 감염의 우려에 대한 심적 부담을 안은 채 활동을 기획,진행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단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모두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찾는 고민이 시급합니다. 3) 또한 정체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 및 오프라인에서 직접 모여서 얼굴을 보며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방식의 활동을

펼쳐왔던 단체로서, 종종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XXX 행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개개인들의 요청을 받곤 합니다. 쉽게 그럴 수 없는 현실과 지지자들의 이 같은 요구 사이에서 양쪽으로 압박을 받는 역할 역시 활동가들이 떠맡게 됩니다. 이에 따른 활동가들에 대한 케어 역시 기존의 '활동가 대상 심리치유 프로그램'에 한 항목으로 포함되길 바랍니다. 4) 코로나 19 유행은 성소수자/HIV 감염인 당사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기존의 인권을 위한 노력과 시스템이 무척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그 공포를 모두의 마음 한켠에 남긴다고 봅니다. 인권의 사각지대는 더 열악해지고 인권의 양극화가 코로나로 인해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도 얘기됩니다. 당장은 코로나 19 유행에 대한 대응 자체만으로도 벅차겠지만, 코로나 19 시대의 각각의 경험들을 추후에라도 의제로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전히 '기록되지 못 하는' 목소리를 기록하고 남겨서, 나중에라도 재기록, 분석, 연구 등의 자료로 삼아서 인권의 의제를 더 만들고 확장하고 꼼꼼히 해나가는 일을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이번에 제작될 백서 역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 1. 게이 커뮤니티 내 다양한 모임 문화 등이 알려지기도 했고, 이러한 밀접 접촉이 필수불가결한 현실 속에서 친구사이가 고민하고 논의해야할 과제는 무엇일지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해보기로함. 2. 코로나 상황 관련 업소 등 실제 운영에 여파 존재함. 커뮤니티 내 업소 등에 대해 커뮤니티 단체나 운동은 어떻게 함께 힘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필요. 3. 종로나 이태원에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커뮤니티의 비난과 조롱 존재. HIV 를 포함한 감염병 관련 편견과 두려움도 더욱 드러남. 이에 대한 개별된 모임이나 단체 구성원등과 함께 이러한 편견과 두려움에 대한 실체적 고민이 필요함.
- 소수자 당사자가 오직 그 당사자성 때문으로 타겟팅될 때, 단체 혹은 연대체로써 대응 방식·요령에 대한 커다란 (대강일지라도) 가이드라인의 구축과 단체 간 공유 기획을 주제로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 보이지 않은 차별사례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됨. 동성커플의 문제나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권 등. 이러한 사례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4. 수다회 / 인터뷰 녹취록

1) 수다회 녹취록

- 일시 /장소 : 2020. 7. 24.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실
- 참석자 : 기진, 다니주누, 소주, 웅, 종걸, 타리 (이상 긴급 대책본부), 슈수, 터울

웅: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에서 그동안 대응을 해오면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이 코로나 19 와 관련해서 자가격리나 차별 경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서 수다회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그동안 설문이나 상담 정도로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서 좀 무겁고 딱딱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저희의 성소수자의 생애 안에서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커뮤니티로까지 번지는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저마다의 경험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19 와 앞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향방에 대해서도 고민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참석자분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다회 사회를 맡게 되었고, 대책본부에서 활동하며 행성인 활동가인 웅이라고 합니다.

종걸 : 저도 같이 대책본부 활동하면서 여기 사무실인 친구사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종걸이라고 합니다.

다니주누 : 대책본부와 QIP 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니주누라고 합니다.

타리 : 대책본부와 함께 HIV/AIDS 인권운동 나누리+에서 활동중인 타리라고 합니다.

기진 : 대책본부와 QUV 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진이라고 합니다.

터울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터울’이라고 합니다.

소주 : 대책본부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주입니다.

슈슈 : 저만 활동을 안하네요. 저는 코로나 19 감염자였던 사람인, ‘슈슈’라고 합니다.

웅 : 우선 5 월 연휴 때, 국내의 확진자가 한자릿수가 되면서 그 직후에 연휴가 시작되면서 당연히 성소수자나 게이들도 서울로 와서 친구를 만나고, 클럽도 가고 이러다가 코로나 19 확진자가 이태원에서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을 언론에서 ‘게이클럽’이라고 딱 표적해서 보도하면서 사건이 뭔가 코로나 19 에서 게이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의 성소수자 혐오도 있었고, 지자체가 동선공개를 할 때 개인정보를 명시하거나, 직장에서의 불이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슈슈 : 일단 저는 당시 5 월 2 일에 클럽에 함께 있었던 친구가 양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일찍 일을 중단하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저녁에 양성이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 뒤로부터 바로 3 시간 정도 동안 역학조사를 하면서, 부모님에게도 자연스럽게 아웃팅이 되었고. 그리고 입원수속을 밟고 난 후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했던게, 제가 학생 때부터 아프리카 TV 같은 공개적인 SNS 플랫폼을 좀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제가 사는 지역에서 얼굴이 조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입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 내부자들이 “이 사람이 입원했다”라고 자기 지인들에게 소문을 난게 돌고 돌아서 제 귀에도 들려왔었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그 때 처방받았던 약이 AIDS 약이었거든요. 그 약을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서 AIDS 환자라는 소문까지 돈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50 일 정도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저는 아프지도 않았고 딱히 힘든 것도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좀 많이 신경이 쓰였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 개인정보에 대해 아는 척하면서 입 밖으로 내뱉고, 그런게 더 큰 소문으로 파생되어서 퍼지는 것이 너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 2 주 전에 자살시도도 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났다보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수그러들었고, 좀 괜찮아 진 것 같아요.

터울 : 저는 자가격리만 했었어요. 그 때 일을 얘기해드리면, 저는 킹클럽이 2 월 마지막주부터 닫았다가 2 달 반 정도 만에 열었다길래 마침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적 거리두기로 정부방침이 바뀌는 기간이었어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클럽에 갔었어요. 클럽을 꽤 많이 다니기 시작했던건 재작년 정도부터였었고.. 저에게는 ‘이렇게 노는게 정상이지’ 하는 자부심이나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각별한

공간이기도 해요. 클럽에 갔더니 처음에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새벽 2 시쯤부터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클럽 뒤쪽에 빠져있었어요. 사실 코로나 19 에 걸리지 않은 것은 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 날에도 클럽에 갔었고. 그러고 난 다음 5 월 6 일 저녁에 킹클럽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공지가 나왔고, 클럽 측에서 먼저 밝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아침에 ‘검진을 받으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런데 5 월 7 일 아침부터 국민일보가 보도한 기사 몇 건이 많이 복제되었었고. 저는 그날 9 시~10 시 쯤, 용산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용산구청에서 먼저 전화를 받았어요. 클럽 입장 리스트를 허위로 기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검진을 받고 그날 음성이 나왔고요.

제가 굉장히 일찍 검진을 받았으니까 제 주위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검진을 언제 어떻게 받았다는 내용의 제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폐메와 연락으로 제게 상담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5 월 7 일의 일이었고, 11 일에 대책본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저도 나름대로 상담을 하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르거나 했던 것이 있죠. 힘들었던 거라면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됐던 것은 음압병동에 들어가 있는 확진자 분들이었는데, 자가격리 단계 직전까지가 가장 힘들었어요. 자가격리를 내리는 기준이 너무나 불투명하다고 느껴졌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대학원생이니까 출근은 자유로운 편이이긴 한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자가격리 2 주라는 시간을 낼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가를 왜 내야하는지 설명하려면 코로나 19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모두가 너무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에서 전혀 일관된 방침이 안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신경이 쓰였었기 때문에. 원래 밀접접촉자는 확진자와 같이 동행을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태원에선 1 차적으로 카드내역으로 밀접접촉자를 분류한 것이잖아요. 지자체가 그것을 보고 인위적인 판단을 내려서 자가격리를 시킬지 말지 결정한건데, 그게 굉장히 황당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치명적일 수 있는 방침이 어떤 지자체에서는 재량으로 결정되었던 셈인거예요.

저도 클럽에서 카드를 썼기 때문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돌아다니기가 애매했고, 보건소에서 언제 자가격리를 통보하는 전화가 올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었어요.

웅 :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때마다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터울님께서 커뮤니티 이야기도 하셨는데, 올해 초반에 2 월달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주변의 커뮤니티나 아니면 지인들 사이에서 질병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연휴 때 물론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클럽에 가면서도 온전히 편한 마음으로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태원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시면겠습니다.

슈슈 : 일단 저는 같은 동성애자인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친구를 찾는지도 몰랐고, 블루드라는 어플이 나오고 한 후에야 거기에서 방송하는 사람들과 연락하고 교류하면서, 처음으로 작년 할로윈 때 킹클럽에 처음 가봤어요. 제가 워낙 춤과 노래를 좋아해서, 그때부터 매주마다 서울을 오가면서 클럽을 엄청 다녔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19 가 터지고 저도 불안한 마음에 갈까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딱 5 월 초반 연휴 때 기회가 잡혀서, 같이 춤추는 형과 가서 열심히 즐기고 돌아왔는데 불안하긴 했었어요. 춤추러 스테이지에 올라갈 때도 마스크를 쓰고 올라갔었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벗었을 때는 물마시거나 할 때였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심지어 저와 같이 간 형도 양성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양성이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쌓이더라고요. ‘정말 심각하기는 한가보다’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주변의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코로나 19 확진자끼리 단체카톡방을 만들었어요. 모두가 음압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때 서로 힘든 일들을 공유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단체카톡방은 지금도 그대로 있고, 오늘도 그 사람들을 신촌에서 보기로 했어요.

소주 : 왜 신촌이예요?

슈슈 : 춤추러요. 다모토리가 열었다고 해서 처음 가보는 거예요.

종결 : 그 (5 월 초 연휴 전까지) 거의 3 개월동안 쉬었다가 클럽에 간 느낌은 어떠셨어요?

슈슈 : 물만난 물고기.

터울 : 제가 그 때 클럽 사진을 찍었었는데, 사람들의 석 달 묵은 절박함이 느껴졌던 곳이었죠.

웅 : 클럽도 한동안 운영을 하지 않다가 다시 오픈한지 얼마 안됐을 때였어요.

터울 : 종로 게이바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3 월부터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었어요. 종로 소주방 네 곳이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서)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때의 대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업소가 먼저 확진자가 다녀갔고 방역처리가 끝난 사실을 밝히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색출하거나 너무 미워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끼리라도 보듬어줘야지’ 정도의 동일한 논조를 가져가서 각자 업소에서 입장을 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첫번째는 이게 우리의 시민의식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두번째로는 그만큼 코로나 19 나 색출, 아웃팅이 두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었어요.

아무튼 그 때 저는 이태원처럼 종로도 게이가 바글바글한 그런 광경이 없어지면서 그동안 제가 정서적으로 해소되었던 요소들 중 중요한 하나가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원래 어느 업소에 가면 그곳 사진을 찍어서 SNS 에 올리잖아요. 어떤 의미에선 게이 업소의 마케팅이기도 하고 놀이문화이기도 한데, 3, 4 월이 지나면서 업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 사진이 올라와도 반응이 줄어들거나 싸늘한게 느껴졌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너희는 뭐하는 거냐”하는 시선이 저는 이해는 됐었는데,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가 실천하면서 그렇게 몇달이 지나면 한국의 자영업이 전부 폭망할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게이 커뮤니티의 업소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텐데 그것을 누가 보상을 해줄 것이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도 업소를 찾고 얼굴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킹클럽에 갔었던 것도 똑같은 이유로 갔던 거였어요. 누군가는 거기 가서 노는게 정말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이기적으로 노느냐 라는 문제가 저에게는 다르게 와닿았던거죠.

웅 : 그 사건 직후에 언론에서도 자극적인 보도를 계속 냈고, 이반시티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공격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커뮤니티 내외부의 반응들을 보면서는 어떠셨는지.

슈슈 :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드릴 말씀이 많아요. 당시에 딱 검색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00 확진자’라고 나와있는데, 그게 저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검색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내 정보를 알겠구나’ 하는 마음이 제일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확진자

리스트가 올라오면서 기자 분들이 제 개인정보를 취재했는데, 제 회사에서도 제 정보를 기자들에게 공개했어요. 심지어 일반인이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어디 매장 직원인지, 회사 위치가 어디인지 물어보면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확진자가 남성이라는 정보가 이미 밝혀져 있는 상태에서, 남성 직원이 매우 적은 분야에서 누가 봐도 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거예요. 그런데도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더 충격이었던 것은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호기심 때문에 힘들 것을 알면서도 좀 찾아봤는데, 제 부모님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동성애자라는 여러가지 점들을 많이 엮어서 악플이 달리니까, 제가 코로나 19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욕을 먹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AIDS 환자라는 소문이 퍼졌을 때, 그게 뉴스 기사에도 나왔어요. 다만, “누구인지 절대 밝힐 수 없다”라는 답변이 보도된 기사였는데, 그 답변을 한 병원이 제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저에 대한 기사라는 것을 아니까. 남들이 또 (이 사람이) 나인 것을 알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 오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심지어 AIDS 관련된 소문은 카카오톡 캡처본으로도 떠돌면서 제게도 돌아올 만큼이나 정보가 퍼졌었어요. 그 소문을 퍼트린 사람은 제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 관계자였던 거죠.

저를 특정할 수 있었던 뉴스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넣어서 다음주 화요일에 첫 심리 진행을 할 거예요. 그 기사를 쓴 기자는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전화통화를 너무 하고싶었어요. 왜냐하면 사과를 안하고 그냥 “내가 사과하면 되겠냐”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어디 말이나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해서 “00 기자님 맞으시냐고, 저 슈슈라고 저를 아실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은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두 가지를 신청했는데, 정정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측에서 이 기사 속 정보는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알게 모르게 나온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철회했고 손해배상만 신청했거든요. 근데, 기자는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와서 법원까지 가기로 했어요.

웅 : 슈슈님은 코로나 19 검진은 바로 받으셨었어요?

슈슈 : 저는 뉴스가 뜨고나서 연락을 받고 바로 검진을 받았어요. 출근했다가 회사에 “게이클럽을 다녀왔기 때문에 검진을 받고 와야겠다”라고 솔직히 말해서, 회사에서도 알겠다고 했고. 양성이 뜬 후에는 제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혀서 지금은 퇴사한 상태예요.

웅 : 언론과 커뮤니티의 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직구로 딱 연결이 되는 경험이어서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

슈슈 : 저는 편하게 말씀해주셔도 돼요. 오히려 그게 더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웅 : 저는 좀 묻고 싶었던 것은, 이반시티에도 막 올라오는 글들을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저도 그 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격리되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터울님은 어떠셨어요?

터울 : 자가격리가 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에 있으면서 그런 글들을 봤었어요. 킹클럽에 누가 계란투척을 한 사진을 게시판에서 올렸다가 내렸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인 이미지잖아요. 포털 검색어 순위 1 위에 킹클럽이 뜬 것 자체는, 저도 나름대로 커뮤니티 문화에 대한 논의를 만들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보니, 저는 ‘깎거면 까라’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검색어 1 위에 있다는 것 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먹은 사람들이 많았고, 어떤 사람은 “커뮤니티에서 내가 별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모습들이 먼저 게재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모욕적이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언론이 그러는 거야 어떤 의미에선 익숙하기도 하고 예상가능하기도 했는데 저에게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대처가 좀 더 뼈아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카카오톡 같은 데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다는 정보가 들려오고. 비하와 함께 “그래도 싸다”, “왜 너네들이 나서서 욕을 먹이나”라는 식의 고전적이고 오래된 혐오들도 있었고.

이반시티에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생각보다 종태원 문화에 대한 낙인이 해소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반시티에서 인상적이었던 글이 뭐냐면, 누가 참회록같은 글을 쓴거예요. ‘나는 이제 다시는 종태원에 가지 않겠다.’ ‘모두에게 미안하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기분이 안좋은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건가. 나름대로 업소나 이런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이야기하는 게 2010년대 이후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었구나. 정말 게이 커뮤니티 내부의 낙인이 천원돌파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가격리하는 1~2 주간 계속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우리의 커뮤니티의 문화가 그렇게 허황된 것이 아니고, 기사 하나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믿는다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것들이 가시화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던게 있다, 그런걸 쓰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먼저 위로받고 확인받고 싶었던게 있었던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회에 있다보면 프라이드가 계속 떨어져요. 이런 생각을 하게되요. ‘내가 애초에 왜 종로에 나와서 인간을 만나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같은 생각을 처음에는 하게 되더라고요.

웅 : 터울님은 자가격리 소속을 알리면서 주변 동료의 지지나 선물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슈슈님은 어떠셨어요?

슈슈 : 저는 (클럽에 같이 갔던 사람들) 서로가 아픔을 공유했지만 물질적인게 오가는 경우는 두려웠죠.

웅 : 자가격리와는 다르게 확진이 되면 노출이 되잖아요. 가족들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슈 : 저는 제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 큰 부담감이 없는게, 일단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됐다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무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부모님에게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았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되게 힘들긴 했었죠. “혹시 눈치 채셨냐”고 물어봤더니 다행히 아버지께서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생활을 하는게, 화장도 하고 춤도 추고 말투도 그렇다 보니까 제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왔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그런지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직장같은 경우는 좋게 말하면 공과 사가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나쁘게 말하면 안볼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게, 진짜 서로 연락만 안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나왔던 친구들도 가끔은 연락하다 나중에는 아예 안하게 되잖아요. 같은 직장을 다녔던 사람이라고 안 그럴까?라는 생각에 편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문제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가 많이 힘들었어요. 일반 친구들이었는데, (사건 이후에) 제게 연락이 많이 왔었죠. “이거 너야?” “그러면 너 게이야?” “너 남자 좋아해?” 이런 식으로. 솔직히 지금 제가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계속 연락을 이어가야 할 친구들인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얘기

못할 건 없지만, 너무 제 입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건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좀 많이 피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종결 : 결국엔 그 메시지들을 다 확인하셨고.

슈슈 : 네. 술 한잔 하면서 ‘이런 기사를 봤었는데, 너 혹시 그런 취향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되게 솔직하고 상황이 부드럽다고 생각을 할텐데, 제가 아무래도 감혀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또 이야기가 퍼질지 모르는 마음에 얘기를 못했던게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터울 : 밖의 일에 대해 주도권을 전혀 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타리 : 앞으로 좀 해결하셔야 되겠네요.

슈슈 : 솔직히 연락을 아예 다 끊어버린게, 친구들 사이에선 이미 제가 AIDS 감염인이라는 소문이 나있고 제가 AIDS 감염인이었으면 여기 있는 것도 이상하기도 하지만, 굳이 제 말을 안듣고 저를 판단하는 친구들을 제가 제 시간 써가면서 만나야할 이유는 없고, 필요도 없고. 그 친구들은 이미 그랬으면 언젠가는 또 그럴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터울 : 커뮤니티에서 “재 감염임이래” 라는 소문은 누구든 다 걱정해본 어찌구인 것 같아요. 저도 당해본 적이 있고.

타리 : 그 질병정보가 어떻게 친구들에게.. 기사와 여러가지가 겹쳐서 퍼질 수 있었던 건가요?

슈슈 :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겹치는 건데, 그 지역에서 저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친구들은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많이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타리 : OO 타임즈의 ‘OO 대 병원에 감염인이 있다’는 기사와 뉴시스의 기사 이런 것들이 별개의 기사였는데도, 한 사람으로 수렴이 될 수 있는 너무 좁은 지역이었고.. 이런 거였던거죠.

슈슈 : 아무래도 OO 에서는 확진자가 딱 1 명만 나왔고.

종결 : 그 동네에 확진자가 누군데, 어? 이렇게 된..

터울 : 지역에서 특히 그게 되게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경우도.. 서울과 지역이 되게 이견 대책본부 안에서도 뭔가 성찰할 부분이고 운동 자체도 그럴텐데, 지역에서 공무원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아웃팅을 피할 수가 없었죠. 이번에 자가격리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퇴사하기도 하고. 공무원인데. 시험보고 들어갔는데도 못 건넌거죠.

근데 너무 화가 난다, 코로나 19 임시약으로 AIDS 약을 쓰는건 그냥 병과 전혀 상관없이 임시방편으로 쓰는 건데 기사를 그렇게 썼다는 거 자체가.

타리 : OO 대 병원에 감염인이 있다는거야. 확진자 중에 감염인이 있는데, 그게 논란이 된거야. 그래서 어떻게 아냐 당연히 모르지. 그 때 저희 대책본부에서도 보건소 관계자가 익명 관리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항의한 적이 있었어요.

슈슈 : 되게 말 한마디한마디가 어떻게 오가느냐에 따라서 웃긴거죠. AIDS 도 병이 안걸린 사람이 병에 걸려서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거였고.

종결 : 그게 사실, 확진자 중에 게이들이 있으면 그 중에 AIDS 감염인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오히려 더 그렇게 노출시키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을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타리 : 혹시 진단 검사를 OO 에서 받으셨나요?

슈슈 : 코로나 19 요? 네.

타리 : 그 때 혹시 서울에서는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검사받으러 왔다고 그러면 HIV/AIDS 테스트를 같이 했었어요 초기에. 혹시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종결 : 기저질환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한다던지.

슈슈 : 역학조사관이 여쭙보셨어요.

종결 : 확진되기 전에 아니면 이후였어요?

슈슈 : 보건소에 갔을 때 처음 뭘 여쭙보셨다면, 어떻게 오셨냐고 해서 제가 ”확진자와 이동동선이 겹친다”고 해서 보건소로 검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체온을 재고 검사를 준비하시면서 “기저질환이 있냐”, 그때 여쭙보셨고 그때 제가 이런 질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검사하고, 병원에 가서 또 같은 이야기를 해서 똑같이 말씀드리고.

타리 : 그런데 기저질환을 물었는데, 어떻게 질병을 얘기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기저질환인 줄 알고 계셨나요.

슈슈 : 솔직히 ‘기저질환’이라는 정확한 단어의 뜻은 이해하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이 병을 가지고 있을 때에,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수혈을 해야되거나 피가 오가는 상황이 있을 때 이런 병이 있다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에..

종결 : 방문하셨던 감염내과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슈슈 : 네. 그리고 보건소도 공익을 위한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내 신원은 보장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소주 : 보건소에서 HIV/AIDS 를 특정해서 질문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슈슈 : 그런건 없었어요.

터울 : 보통 ‘기저질환’이라 하면 폐렴이나 당뇨나 그런거 아닌가?..

타리 : 그렇죠. 근데 목록에 (HIV/AIDS 가)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태원 관련 감염자들은 다 묻지 않고 이것만 딱 물어가지고 제가 항의하고.

웅 : 그래서 이제 치료와 격리의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고 들었는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그게 차별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차별과 상관없는 다른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병동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제한이 많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고. 정보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의 경험은 저희가 계속 상담을 통해서만 받았어가지고, 현장에서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슈슈 : 일단은 방에 CCTV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침대 바로 앞에 보이는 그런 CCTV 였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조심스러웠었죠. 자는 도중에 옷을 올린다거나 그런거 자체도 좀 무의식적으로 내리게 되고.. 그리고 옷을 들고 갈 수는 있었는데, 속옷같은 것은 제가 직접 빨아서 입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환자복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다 지원을 해주시고.

거기서 제가 운동을 좀 했었어요. 근데 CCTV 가 안보이는 곳에서 하고 싶어서 씻기 전에 화장실에서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똑똑똑똑!” 하면서 “환자분 계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놀라서 “네?” 이러니까, “너무 밖에서 안보이셔가지고 안에 계시나 보러왔다”라고.. 그래서 그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벨 눌러서 “저 이 시간대에 이렇게 운동하니까 그때는 괜찮다고, 정 필요하다면 제가 운동할 때마다 운동한다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좀 어쨌든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속옷을 막 널어둘 곳이 없어서 화장실에 널어뒀는데, 하루에 두세번 정도 직원분이 청소를 하러 오세요. 그 때 문을 열면 제 팬티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신경이 쓰이고..

종결 : 병실 안에 화장실이 같이 있는 구조였군요.

슈슈 : 네.

종결 : 화장실이 되게 크진 않은데, 거기까지 카메라는 확실히 없고.

슈슈 : 그리고 일단 이 일은 일련의 사건 중 하나인데, 이것도 제가 입원한지 2 시간이 좀 안되어서 일어났어요. 그 때 저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는 연락이 처음으로 저한테 왔었어요. 그 소문을 접한 사람들은 그 때 당시에 가장 빠르게 접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직원의 아는 언니인데, '너가 알려졌다'라고 전화가 와서, 저는 굳이 소문을 퍼트린게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고 호출벨을 눌러서 “제가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외부에서 얘기 안 새어나가게 관리 좀 잘 해달라”라고 그런 적이 두세번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타리 : 그런걸 요청을 하셨던거예요?

슈슈 : 네. 제가 직접 안에서 좀 얘기 안 새어나가게 해달라고. 좋게 말씀드린다고. 알겠다고는 하는데 병원 사람들은 되게 자기들의 애정이 끈끈한건지 ‘절대로 병원 사람일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닐거라고 생각을 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거잖아요. 그래서 병원한테 되게 실망한 적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게, 제일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여러가지 사건이 있다가, 이 일은 퇴원할 때 있었던 사건인데, 보통 음압병동에 있다가 퇴원하는 사람들은 한번씩 샤워를 싹 하고 외부인이 가져다주는 옷을 입고, 퇴원을 진행하거든요. 저는 씻고 알몸으로 나왔는데 여성 간호사분이랑 눈이 딱 마주친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정말 안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그러면 안되지만 다시 입원하실 어떤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병원에서도라도 환자에 대한 신원보호나 어떤 준비 행동 같은 것은 좀 철저히 매뉴얼을 지키면서 잘해주셨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타리 : 음압병동이라는게 보통 병실과 어떻게 다른지 대책본부가 몰라서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종결 : 크거나 뭐.. 장치?

슈슈 : 크기는 진짜 다 제각각이구요.

터울 : 기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슈슈 : 근데 기계가 천장에 있고, 이게 벽면에 음압이 어느 정도 수치인지만 표시를 해주고요. 그래서 저는 음압병동이라는 사실 자체를 정말 크게 와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병동이란 똑같은데, 창문을 못 열고 화장실 문 열고 지내면 안되고 나가면 안되는.

타리 : 1 인실 크기의?

슈슈 : 아마 제가 나갈 때 사진을 찍어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남은게 있으면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타리 : 어 근데 CCTV 가 너무 충격적이다.

소주 : 프라이버시가 엄청 침해되는 거네요.

타리 : 음압병동이라서 그런건지 한번 알아봐야될 것 같아요.

터울 : 응급실에도 CCTV 못달게 하면서.

타리 : 그러니까.

종결 : 그럼 주로 만났던, 격리 기간 동안에 봤던 사람들은 거의 다 간호사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 이런건가요?

슈슈 : 간호사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교수님.

종결 : 원래 계속 그 전에 감염내과에서 뵈 교수님이셨어요 아니면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치료하시는 교수님도 따로 계셨던.

슈슈 : 그 교수님도 계셨고 다른 교수님도 계셨었어요.

웅 : 병실에는 몇 분이나 계셨어요?

슈슈 : 저 혼자.

종결 : 근데 그 병원 안에 또 다른 확진자가 있었나요?

슈슈 : 네 있었어요.

종결 : 그 분들은 알고 있었던 분들은 아니고요.

슈슈 : 네.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은 어떤 확진자 한 분이 아기를 낳으신 어머니이셨는데 아기도 함께 감염이 되어서, 아기를 돌봐야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리 :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네요.

종결 : 감시하게?

타리 : 아.. 운영 규정. 국립목포병원 운영 규정을 보면, ‘음압격리병동에 입원중인 신종감염병 환우들의 관찰치료 및 환우 건강상태파악 등에 활용’ 하기 위해서 CCTV 를 설치할 수 있다.

소주 : 말은 또 그럴듯하게 얘기를 만들어놨네.

슈슈 : 되게 자주 확인하시더라고요.

터울 : 이번에는 제가 자가격리 이야기를 할까요? 되게 개그같은 이야기여서.

웅 : 네 해주세요.

터울 : 킹 클럽을 갔다온 날을 기준으로 하니까 저는 5 일만 자가격리를 한거예요. 그게 뒤늦게 결정되어서 제가 불안했던 거고. 자가격리를 하면서 친구들이 보내준 술을 먹고 그러고 있는데,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그날 오전에 구청에서 직접 사람이 왔어요. 전화를 해서 자기들이 “문앞에 뭘 놔뒀으니까 그걸 가져가시면 된다.” 그래서 1 층에 내려갔더니 저기 멀리에 계시는 구청 직원이 보고 있는거예요. 가져갔다고 하고 연락을 끊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봤더니,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격리를 통보한다는 서류가 한 장 있고, 마스크, 손세정제 이렇게 있고, 되게 재미있는게 의료폐기물 비닐봉투가 있었어요.

5 일 동안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여기에다 넣고 따로 수거를 해갈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황색, 병원에서 쓰는 봉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뭘 버려야 할지가 애매한거야. 왜냐하면 그 때 저는 택배도 받았고, 종이도 있고, 재활용쓰레기도 있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거기에 넣으라고 하는데 고민이 되잖아요. 자가격리가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용산구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버리면 되느냐. 박스는 빼도 되느냐 이런걸 물어보고 싶었던거죠. 근데 10 몇 통을 전화를 걸었는데도 안 받는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때 이야기할 때는 따로 수거 절차가 있고, 전화를 따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담아서 버리고, 재활용쓰레기도 따로 버리고 그랬던거죠. 그래서 그 봉지는 지금 집에 기념으로 갖고 있어요.

종결 : 가지러 오지도 않고?

터울 : 가지러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받고. 그래가지고 뭐.

타리 : 구청이 전화를 안받은거예요? 보건소가 전화를 안받은거예요.

터울 : 둘 다 전화를 한번씩은 했어요.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처음에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제가 킹클럽에 가고 힘에도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 두 쪽에서 5 월 7 일 이후로 한 여덟아홉번씩은 전화를 해서, 열여덟 통을 받은거예요. “검사 받으셨나요?”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네 받았어요” 그러고. 그런 전화가 열여덟 통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문의를 할 때에는 아무도 받지 않은거죠. 이게 되게 너무 개그같은. 대한민국의 행정력의 황당함.. 여러가지로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자가격리를 그래서 그런 해프닝처럼 기억이 돼요.

타리 : 우리도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해도 씹씹. 계속 전화를 안받아요.

웅 : 슈슈님은 대책본부에 상담을 하셨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항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알고 대책본부까지 연락을 하시게 되었는지를 듣고 싶어요.

슈슈 : 제가 할 수 있었던건 그냥 아예 대응을 안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오늘 만나는 저와 같이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았던 지인이 친구사이를 알려줬었어요. 여기서 상담하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정말 뭐라도 붙잡고 싶은 생각에 전화를 했는데, 친구사이에서 대책본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연결이 돼서,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타리 : 그 분은 친구사이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슈슈 : 아마 이반시티이지 않을까..

웅 : 친구들끼리는 인권 이야기 안하나 봐요.

터울 : 저도 안해요.

(일동 웃음)

종걸&타리 : 알은 혹시 그전에 들어보셨어요? 소주님이 일하시는 감염인 커뮤니티 알.

슈슈 : 그곳은 좀 더 예전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종결 : 그래도 알고 계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웅 : 근데 5월 연휴가 끝나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인권운동 안에서도 이 일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져서 성소수자 상담도 필요한 것 같고, 지자체 대응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게 그냥 단체가 개별로 대응할 것이 아닐 것 같다 해서 여기저기의 인권단체들이 모여서 대책본부를 꾸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친구사이를 소개받으면서 이쪽으로 연락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는 것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대해서도 그 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슈슈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로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반시티라는 그런 큰 매개체나 저희가 사용하는 어플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도 대부분이 남자친구들 만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저도 늘상 그런 용도로만 써왔는데 커뮤니티 안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연락하면서 크게 마음으로 와닿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잘 도와주시고, 제가 너무 어버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를 덧붙여서 제게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게하신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을 많이 주셔가지고. 좀 많이 알게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용기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있고..

종결 : 혹시 서울퀴어퍼레이드나 작년에 처음 킹클럽 가셨다고 하면 퀴어문화축제나 퍼레이드 같은 것도 그전에 들어보신 적은 없으셨어요?

슈슈 : 보기는 봤어요.

종결 : 아 참여해보신 적은 없지만?

슈슈 : 네. 그냥 이렇게 있다고만.

소주 : 요즘에 유일하게 연락하는 분들이 그 때 같이 코로나 19 양성이 되었던 분들. 그 분들하고만 연락을 하세요?

슈슈 : 그 분들.. 그렇죠.

종결 : 그 전에 클럽에서 원래 자주 봤었던 분들 말고 새롭게 코로나 19 감염을 통해서 알게된 새로운 분들도 있어요?

슈슈 : 네 있어요.

종결 :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하셨었고?

슈슈 : 그거는 제가 다음주 월요일에 다같이 보기로 해가지고요.

소주 : 어디로 가요?

슈슈 : 펜션이요.

소주 : 펜션 예약이 쉬었어요?

슈슈 : 저희는 좀 수월하게 한 편이에요.

웅 : 몇 분이서 가요?

슈슈 : 저희 여섯명이요.

터울 : 사진 많이 찍어놓으시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기록으로 사용될 것 같아요.

종결 : 터울님께선 같이 자가격리한 사람들끼리 연락하고 그런건 없어요?

터울 :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가격리 자체가 개그 경험이에요 사실은. 그 전 단계가 힘들었다고 말씀드렸던거고.. 자가격리는 걱정했던 것 보다는 할만 했던거고..

소주 : 자가격리 기간동안 터울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글들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터울님도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책본부에..

터울 : 커뮤니티의 운동을 아무것도 모르는 커뮤니티의 퀴어들에게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대해 각인된 어떤 이미지 중에 하나가 ‘저게 내 일인지 잘 모르겠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퀴어문화축제에 가도 레즈비언이 더 많은 것 같고 사실은.. 운동은 낯설고, 그런 장소에 가도 잘못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혼만 나고. 잘 모르겠고, 그냥 클럽가서 노는게 더 재미있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저는 이번에 대책본부의 활동이나 연대판을 보고 성소수자 운동이 그동안 이런 식으로 활동해왔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명백한 게이 이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민변, 민주노총 등 한국의 내로라 하는 단체들이 전부 연대 성명을 냈고, 어쨌든 1 주일도 안되는 시간인 4 일만에 또다른 성소수자 인권 연대체가 꾸려져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 왜 퀴어 운동과 게이 커뮤니티가 연대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권 운동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이슈머니나 이런 후원도 친구사이로 들어오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하고, 계좌며 집행내역을 공개를 한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거든요 친구사이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저는 이 코로나 19 사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태원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체 게이 집단 중에 1%고, 이반시티를 하는 사람들이 10%, 그리고 나머지 거대한 디웹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금도. 근데 이반시티나 종태원 정도만 해도 친구사이를 알고 대책본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밑의 사람들이 사실 아마 더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이태원 사태 때 훨씬 더.

그리고 그들은 사실 대책본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게 본부 탓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부가 어떻게든 할 수 없었던 광범위한 이 부분이 예상되고. 아직도 그런 것들이 계속 소문으로 들려와요. 누가 자살시도를 했더라든지, 아까도 말했지만 건너건너의 어떤 형이 공무원에 붙었는데 전세자금 대출

1 억을 받아놓고도 그냥 떼려치고 나왔다는거예요. 그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게 싸워 보려면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고 그걸 이슈화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본인이 그걸 그렇게 안 한건 왜 그런걸까. 여전히 이게 뭔가 인권운동 존재의 의의를 알렸더라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된다는 커뮤니티의 현실이라는게 있구나 하는 뼈아픈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인권운동의 탓이라는게 아니라, 이게 커뮤니티의 현실이고 그럴 때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우리가 흔히 가시화되는 프라이드를 갖기게 손쉬운 사람들을 표준으로 삼으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커뮤니티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 사실은 더 많이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은 사실 역순위에 있었던거고, 그것에 대해 단순히 너네들이 프라이드가 없어서, 너네가 은둔이어서 그런거다하고 얘기가 끝나면 안되는, 화두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웅 : 지금 커뮤니티 안에서도 업소들이 계속 오픈을 못하고 있고, 힘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운동 안에서는 우리의 역할은 뭐가 되어야 할까. 사실 어떤 효과는 느꼈지만, 커뮤니티의 퀴어들에게 다 닿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계도 여실히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과제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았고. 코로나 19 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운동의 방향 설정이나 활동의 방식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운동하는 고민은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수다회 이전에 한두번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전에 찜방을 다녀온 친구를 인터뷰했었는데, 이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사태가 끝나가는 지금도 종로를 못가겠다. 젊은 친구들이라면 가겠지만, 나는 못가겠다. 예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번개를 했지만, 이제 좀 안정적인 관계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개개인마다 되게 이게 트라우마처럼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변화를 느끼는 게 있는지,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커뮤니티에서의 본인의 태도가 달라졌거나 이렇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그런 얘기를 좀 듣고싶어요,

슈슈 : 일단 제일 많이 바뀐 것은 저는 성격이 방어적이게 바뀌었어요 사람이. 약간 어떻게 보면 안좋은 수가 있는데, 저만의 공간이 너무 확실시되어 있다고 생각을 정리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제 상식 밖에서 벗어나면 좀 쳐내게 되는 그런 방어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게 된게 일단 1 순위이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장난으로 “너 코로나 코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왠지 좀 썩 좋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걸리기 전에는 “코로나 조심해야돼” 그러면서 해왔는데, 밖에 나오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보니까 좀 남의 얘기가 아니니까.. 조금 더 신경 쓰이면서 “그런 이야기는 누가 들을 수 있으니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게 얘기하는 것도 있구요.

그리고 커뮤니티도 저는 커뮤니티 활동도 아예 안하거든요. 기껏해야 남자 새로 만나는 용도의 어플을 사용하지만 연락이 올 때도 사진을 교환하고 만나는게 대다수인데, 사진을 주기가 좀 켈끄러워진다고 해야되나?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이 좀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종로나 이태원 같이 서울에 와서 노는게 편하지, 제 지역에서 노는게 썩 그리 내키지는 않더라고요.

타리 : 혹시 이사 생각을 해보셨나요.

슈슈 : 원래 하려고 부모님이랑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옮기는 것에 대해선 일자리 문제를 빼면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시간 탓인지 좀 무뎠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만나는 사람이 생기고 원래 살던데 둘이 같이 살게 되었어요.

웅 : 퇴원하고 만난거예요?

슈슈 : 네. 저는 이게 처음 만난 인연이어서. 한번도 연애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어서.

터울 : 정말 코로나 시대의 사랑이네.

타리 : 그래도 다들 그렇게 변하는 건가. 안정적인 사람이나 보호자가 필요하거나.

터울 :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6년 사겼던 애인이랑 작년 말에 헤어졌거든요. 지금도 못 잊고 있고. 그런데, 킹클럽에 갔다와서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을 때, 개랑 같이 살았던 집에 제가 그냥 계속 살고 있거든요. 방 두개를 저 혼자 쓰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가 살게 된게 너무 다행이다'. 왜냐하면 여러가지로 민폐인거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그렇게 되지 않은거고, 그런 감정을 느껴야한다는 것이 굉장히 별로였고. 그런데 주위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확진자의 룸메이트였던, 둘 다 게이인데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다행히 그분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라도 가능했었으니까 별일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정 문제가 아니라

머리뚝고 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성 하나하나를 사실 끊어놓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사태가.

저는 3 월달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모이지 말라’는게 얼마나 간편하면서도 모욕적인지 소수자 커뮤니티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종태원에 처음부터 이자리가 명당이다 해서 같이 모여서 노는게 아니잖아요. 이성애 사회가 너무 팍팍하니까 여기에라도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하고. 그러니까 어떤 내몰린 상황인건데, 우리가 좋아서 우리끼리 만난게 아닌데 갑자기 우리에게 전적으로 우리 탓이라고 그런거예요. 뭔가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다 세팅해놓고 질병 때문에 만나지 말라는게,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꾸역꾸역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꾸역꾸역 우리가 프라이드를 여전히 믿고 그런게 있는건데, 제가 그런걸 쓸 때, 제가 행복해서 쓰는 것이 아닌거예요. 안간힘을 쓰고 버텼던거죠 일단. 이를테면 내가 존재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굉장히 예사스럽고 자연스러운 행동에 훨씬 한뼉히 많은거죠. 제가 그걸 버티기 위해. 더 시선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왜 자가격리를 하지 않느냐”, “왜 나와서 이렇게 방역의 물을 흐트리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커뮤니티 안팎의 시선까지 받아 안으면서 종로를 돌아다녀야 하는거예요. 어깨에 훨씬 뭐가 많이 얹힌채로. 그런거 자체가 여기에서 내가 호흠처럼 해왔던 활동들을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던거고. 내가 조금 더 이를 악물고 활동해야 했던 것인데, 따지고 보면 왜 그래야하는가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채로 쭉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게 부담스러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태원을 못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해되고.

소주 : 좀 다른 이야기인데, 입원했을 때 담배 못 피게 하지 않았어요?

슈슈 : 그냥 필 수가 없었어요. 별 생각 안하고 참았는데, 정말 못 참겠어서 한번은 여쭙봤던 적이 있어요. 혹시 술담배 되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안되죠..”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외부에서 음식을 들여올 수는 있어요. 가족분들이 배달음식을 포장해서 전달해주시면 그거를 한번 확인해서 주는 식. 뭐 들어오면 안되는 물건이 있는지..

타리 : 어쨌든 치료가 된 건데, 몸의 변화가 있다고 하나요? 어떤 약간의 손상이나..

슈슈 :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아팠던 적은 없었어요. 온도체크, 혈압, 산소농도체크도 매일 정상이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거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나오고 나서 원래 주기적으로 받았던 피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게 약 2 주 전쯤이었어요. 면역력이 엄청 좋아졌다더라고요.

소주 : 술담배를 안해서?..

슈슈 : 나오고 나서 술은 한 두 짹은 먹은 것 같은데.

종걸 : 치료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슈슈 : 치료는 그냥 하루에 한알 씩 약을 자기 전에 먹는 것. 왜냐하면 정확한 치료법도 없으니까.. 자기 전에 약 먹고 최대한 밖으로 안 다니는 것이고. 한번인가 두번 정도 X-ray 검사를 했었고요. 피검사도 했었어요.

타리 : 이상소견이 따로 있었어요?

슈슈 : 없었어요. 그리고 비강까지 찌르는거 검사하고. 그렇게만 검사했던 것 같아요.

타리 : 매일 먹었던 약이 혹시 어떤 약인지.

슈슈 : 보여드릴까요?

웅 : 아직도 먹어야 돼요?

슈슈 : 그게 원래, 똑같은 약을 지금도 먹고 있거든요. 저는 원래 면역력 증강 목적으로 그 약을 먹고 있었던거기 때문에.. 그 약이 원래 AIDS 치료제인데 원래 그 용도로만 쓰이지 않고 다른 용도로도 같이 쓰이는 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약이 적합하니까 그 약을 주고, 저는 나와서도 같은 약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소주 : 약 이름이 뭐예요?

슈슈 : 트리멕.

타리 : 어쨌든 매일 한 알씩 약을 먹던거였고 음압병동에서도 똑같이 하루에 한알씩 먹었다고요?

슈슈 : 네.

타리 : 더 궁금한게 어쨌든 이번에 HIV/AIDS 감염인으로서 병원에서 차별을 경험하신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대표적인 차별인데 병원에서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지 못한.. 이전에도 이런 차별적인 경험이 있었나요?

슈슈 : 그냥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혈압검사를 해요. 채혈실을 가면, 저만 혼자 이상하게 ‘+’ 표시가 떠요. 그게 걱정이 되고,

종걸 :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슈슈 : 네네. 그리고 그 전에는 병원에서 수납을 할 때에 전산에 문제가 생겼나봐요. 그러다가 옆의 간호사가 도와줬는데, 대학병원 특성 상 사람이 많이 다닐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HIV”라고 크게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물론 남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 알잖아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그게 뭔지 알고 이야기를 하는거고. 그런데도 그걸 사람들 다 들리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시작해서 그 자리에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입 조심하라고. 다 들리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거. 그랬더니 본인도 몰랐다고 그러면서 사과하시더라고요. 근데 간호쪽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한가봐요. 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무너지신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본인이 아픈게 아닌거잖아요, 내가 아픈거지.

타리 : 이번 경험이 예전부터 무감한 병원의 어떤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해오신 것의 연장선으로 느끼셨는지 아니면 HIV 감염인으로 사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영향을 줬을지..

슈슈 : 솔직히 연관이라고 생각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부터 그런 소문이 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일 크고, 그 외에는 딱히 연관이라고 할만한 그런 그런 생각은 안들었던 것 같아요.

웅 : 초반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대충 하기는 했는데, 말씀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궁금하신거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주 : 궁금한게 있는데, 그 지인분들이랑 놀러도 가고 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못알아 듣는 친구들끼리만의 은어가 생긴게 있어요?

슈슈 : 저희요? 저희 만나면은 “코하~!” 그래요. ‘코로나 하이’ 그래서 저희 단톡방도 이름이, 코로나 19 병명이 영어로 COVID-19잖아요. 코비드 들어와라 그러고.

그리고 좀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약간의 해프닝이지만, 재밌는 일을 하나 더 이야기해드리자면, 제가 원래는 좀 병원에서 조용히 퇴원하고 싶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원래 “12 시 땡하면 나가게 해주세요”했는데, 본의아니게 다음날 11 시가 되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알몸 노출 사건이 있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1 층까지 쪽 내려갔는데 보건소에서 저를 데리러 왔다는거예요. 근데 이걸 병원이랑 얘기가 미리 안되어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연락을 한 시간 전쯤에나 받았었거든요. 알겠다고 하고 갔는데, 병원 앞에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는 정문 앞에서 앰불런스가 불을 켜놓은 채로 제가 오자마자 보건소 사람들이 “슈슈님~~!!” 이렇게 부르는거예요. 저는 머리도 안 마른채였는데, 그래서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서 가방을 엄청 큰 것을 들고 다다다닥 뛰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소주 : 근데 앰불런스가 왜 온거예요?

슈슈 : 집에 데려다주려고. 병원 측에서는 택시를 타라고 했었는데, 보건소에서는 원래 행동을 하는 건지 정말 당일에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타리 : 집까지는 뭘 타고 갔어요?

슈슈 : 앰불런스요.

타리 : 아니 근데 그럼 집까지 앰불런스가 또 간거잖아요. 그게 정말 부담스러운건데 왜 모르지?

슈슈 : 앰불런스에서 내리고 나니까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를 뵈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종걸 : 물론 급하게 앰불런스 사이렌을 울리고 그런건 아니었겠죠?

슈슈 : 뺨뺨까지는 아니었어요. 아직도 그게 안 잊혀지네요. 정말 제가 반가우셨었나봐요.

웅 : 그렇게 퇴원하고 나면 완전히 끝나는거예요?

슈슈 : 그렇게 퇴원하고 나서, 저는 항체검사를 했죠. 항체검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했고.

종걸 : 병원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슈슈 :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래는 퇴원한 날에 하고가는거였는데, 병원에서 뭐가 급했었던 건지 “2 주 뒤에 다시 오시는데, 그 때 항체검사 하는거 아마 싸인 하시고 별 일 없이 그냥 귀가 하실 거예요.” 라고 정도로 대강 얘기를 듣고. 그러고 말았던 것 같아요.

타리 : 그런데 항체검사는 의무가 아니라, 연구목적으로 기증을 하는 거잖아요. 동의서같은게 있어요?

슈슈 : 동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피검사를 하긴 했는데 그게 은연 중에 항체검사가 된건지.. 아직 ‘항체검사’라고 얘기를 해서 검사를 한 적은 없어요.

터울 : 저도 슈슈님께 궁금한게 있어요. 바이러스가 미검출이 될 때까지 음압병동에서 못나오는 거잖아요. 한달 넘게 입원해 계셨고 그러면 그 기간동안 계속 바이러스 검출이 됐던 셈인데, 근데 그 검사 방법이 코에 찔러넣는 방법과 똑같았던거죠?

슈슈 : 네. 비강 안쪽으로 찔러넣는거랑 구강 안쪽에서 채취하는거랑.

터울 : 그거를 받아보면 기분이 되게 더러워요. 아프기도 아프고. 그 검사를 몇번 정도로 언제 주기로 받으셨는지가 궁금해요.

슈슈 :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주말 상관없이 일주일에 두세번이었고, 병원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주말을 빼고 두세번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마다 두세번이었으니까 저는 최소 스무번 정도 받은거죠. 받아보니까 받을만 하더라고요. 피뿜는 것도 뱉을만하고.

종결 : 이제 직장도 새로 구하셔야 하는 상황인거잖아요.

슈슈 : 네. 이력서는 여기저기 많이 넣었어요. 원래 하던 직종으로도 넣기도 했고, 그런데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넣었는데 일단은 예상은 했었지만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상담원이나 다른 직종으로까지 이력서를 넣었었는데, 일단은 많이 탈락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생각한게 돈만 준다면 공장 같은데라도 들어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결 : 지역에 있는..

슈슈 : 네..

종결 :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가 가능하거나 퇴사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단톡방에도 있어요?

슈슈 : 있어요. 같이 있었던 뉴스에 떠가지고 그럼 걸 좀 경험하신 분이 계신데, 그 분도 회사에서 퇴사하신 후로 아직까지 직장을 못 구하시고, 다른 분들은 아마 직장이 원래 다 없으셨어서 평소처럼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결 : 그런 힘든 일들도 서로 이야기를 하겠네요.

슈슈 : 근데 지금은 괜찮은게, ‘격리입원 지원금’이라고 해서 입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지원금이 나오더라고요. 좀 뽕뽕하게 나왔어요.

타리 : 입원 기간을 날마다 계산해서 나오는거예요?

슈슈 : 네.

타리 : 다행이네요.

웅 : 얼마나 줘요?

슈슈 : 저는 가장 높은 액수를 받은게, 그게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거든요.

터울 : 제 주변에도 확진되었다가 건강해져서 나온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이 없었던 양 행동을 하거든요. 아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는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거예요.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확진 경험자분들 말고, 그냥 일반 게이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가 되게 불쾌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뭔가 확진되어본 적이 없는 게이들과 본인의 확진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혹시 나눠보거나 얘기를 해본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는지.

슈슈 :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지나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종결 : 지금 있는 단톡방 구성원들끼리의 사이가 좀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겠네요.

슈슈 : 그렇죠. 서로 연락도 많이 하고.

웅 : 요즘에는 뭐하세요? 저는 좀 궁금한 것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가격리 전후로, 아니면 퇴원 전후로 일상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슈슈 : 일단은 술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 또 술을 좋아하거든요. 음압병동 안에서 못했던 것을 밖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자도 많이 만나고. 술도 많이 먹고.

웅 : 연애하느라 바쁘신건 아닌지.

터울 : 저도 정신차려야 되니까 자가격리 기간동안 술을 안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날 자가격리가 끝나는 날을 포함해서 그 이후로 10 일 연속으로 술을 먹었었어요.

다니주누 : 슈슈님은 그러면 확진되고 나서 가족들한테 알려졌다고 하셨잖아요. 퇴원하고 나서는 가족들이랑 어떻게 지내시는지.

슈슈 : 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요. 만날 때 마스크도 안쓰고. 그 정도로 되게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과 다르게 있다면 저희가 약간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가족들이 다들. 그래서 저도 따로 사는거고 부모님께서도 개개인의 생활을 중요시하시는데.

조금 다시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번에 술을 너무 먹고 다 힘든 그런.. 다 비관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택시를 타고 한강에 갔어요. 그대로 술에 취해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죽어야겠다’하는 마음으로 한강 다리 밑으로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제 누나한테 “나 너무 힘들니까 나 죽고싶으니까 나도 찾지 말고 아무도 얘기 안했으면 좋겠다. 내가 죽는것도 잘못된 것 같지만 나는 이제 다 끝보기 싫다.”그러고. 딱 가방도 내려놓고, 신발이랑 양말 같은 것도 다 벗어 놓았고 핸드폰도 다 꺼냈었어요. 그런데 해양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위치추적한 후에 결국구조되어서 경찰서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때 병원의 태도보다 경찰의 태도가 더 마음에 안들었던게, 저는 이미 코로나 19 에서 다 회복되어서 활동을 해도 된다고 해서 나온 사람인데, 제가 경찰서에서 어떤 행동만 하려고 하면 막 소리를 지르시고..

종결 : 조사 과정에서?

슈슈 : 네.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대답하라고 하고.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꼬리 잡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타리 : 범죄자 취급을..

슈슈 : 자살 시도하고 나서 경찰에서 저를 데리고가서, 연락하고.. 그런 코로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너 때문에 여기 담을 수 있으니까 똑바로 행동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저는 당장에 죽음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몸도 떨렸었고 숨도 가빴었거든요. 그런데도 다들 저를 딱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저는 할 수 있는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침에 새벽에 도와달라고 문자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데리러 오셨어요. 서울까지 데리러 오시고, 그냥 저를 데리고 나가시는데 뒤를 보는데 저는 경찰서의 그 사람들이 너무 밍더라고요. 그냥 “괜찮냐” 그런 식으로 달래주고 좀 혼자 있게 냅뒀으면 되는데, 저 보는 앞에서 코로나 이야기를 자꾸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앞에서는 그런 얘기 안하시면 좋겠다고. 차라리 저를 밖으로 내보낸 다음 그 얘기를 하시라고” 어쨌든 보건소에 전화를 하시는거니까. 그런데 “알겠다”라고 해놓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거예요. 수화기도 막 광광 놓으시고.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경찰은 멋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뀐 것도 있고요. 제일 인권을 보장해줘야 될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구석에 몰고 그러니까..

웅 : 거기가 어디 경찰서죠?

슈슈 : 한강? 용산 경찰서 그 쪽인걸로 알고 있어요.

종걸 : 그 때 전화통화 하신 분이 신고를 하셔서 경찰이 출동을 한거죠.

슈슈 : 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많이 그 마음이 안 가셨던..

터울 :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연구자이자 활동가여서 강의할 때마다 게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하는데. 코로나 19 관련해서 어떻게 다르냐고 했을 때, 이성애자와 게이 커뮤니티가 완전히 달라요. 이성애자 앞에서는 최대한 많이 이야기해요 그것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이렇게 기사가 쏟아졌고, 인권 단체가 어떻게 대응했고를 최대한 많이 떠들려고 하고, 그래서 그 계란 투척 사진을 꼭 보여주거든요. 강의 마지막에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으니까. 게이 커뮤니티에 게이 운동이 생기고 난 다음 굉장히 무시무시할 정도의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나중에 오랫동안 기록되고 오랫동안 씹먹힐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교수님한테도 그랬어요. 본인이 그 킹클럽 뉴스가 뜬 다음에 나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대요. 아니나다를까 거기에 있었다고 하니까 “있었어??”라는 반응이.. 저는 논문 프로포절 발표하고 난 다음 날에도 교수님에게 “교수님 저 오늘 너무 기뻐려가지고 킹클럽에 가야겠어요.”라고 얘기했는데 교수님께서 “거긴 버닝썬 같은 곳이니”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들었던 모두가 황당해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성애자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계북이나 게이 커뮤니티에선 확실히 그 얘기를 안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트라우마를 연상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심스러우니까. 논쟁을 하고 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물론 있긴한데, 거기에 대한 백업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들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안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다들 몰라서 잊고 있는게 아니라 아니까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고. 사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일이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하고 있어요. 이런 뭐랄까 당장 평온한 일상을 계속 사는 것처럼 서로서로 연결됨을 놓지 않고 있는 것도 임파워먼트의 일종이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온한 일상 자체가 또다른 의미에서 정치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비상상태 같은 거죠. 이를 테면, 어떤 자살을 하신 분이 있을 때, 그 분과 가까운 사람들일 수록 계북에 포스팅이 안올라오잖아요. 그 무서운 침묵. 누가 짤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 것처럼, 이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 코로나 19 가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긍정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되게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선택적 침묵같은게 있는 것 같고, 저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이성애자와 게이 커뮤니티 사이에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웅 : 저희가 두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네요. 질문이 있으시면 더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던 자리는 처음이어서, 앞으로도 필요하면 다른 테이블이라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소감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슈슈 : 일단 처음에는 되게 다들 활동하시는 인권 활동가분들이실 걸 알고 있었는데, 전부 다 그러신 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종결 : 오늘 오신 분들이. 슈슈님 같은 사람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셨군요.

슈슈 : 한명쯤은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내 얘기가 널리 퍼져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오늘 다 공감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이런 자리가 있지만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보통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좀 힘들고 그러면 자기 얘기를 하면서 다독여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예요.

종결 : 저희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데, 혹시라도 모임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만약 요청하실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고. 마음이 어땠는지 솔직히 가서 말씀을 하시고. 같이 제안하실 부분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좋겠다고 그 분들에게도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웅 :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분들이.

슈슈 : 일단은 안 가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도 있었는데, 막상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흐지부지하셨달까. 만약에 제 주변에 너무 힘들어하시면 당장 할 것 같아요.

타리 : 진짜 얘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 동안 경찰서나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너무 잘 대처하셨고.. 저희가 계속 전화를 받고 이메일을 받고 했는데 직접 만나뵈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대책본부가 5 월 말까지 활발하게 매일매일 만나면서 돌아가다가 지금은 정리하는 국면이긴 한데, 직접

경험하신 분들을 되게 만나고 싶었던 것 같고.. 저희에게도 되게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진 : 저도 대책본부 하면서 실제로 사례가 들어오는 걸로만, 어떤 사건으로서만 일을 겪었지 실제로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셔서 제가 느끼고 가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터울 :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에 대해 2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것이 처음이고, 되게 드문 경험인 것 같아요. 두시간 동안 코로나 19 에 대해서 떠들 기회가 있는 게이가 많지 않을거고. 다들 어려워 할 것이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업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이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 해 말을 끝으로 닫겠다는 업소들이 꽤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게 운동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업소 하나가 없어지면 그게 커뮤니티의 굉장한 손실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계실거고 그게 또 한국 코로나 외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어서. 여전히 대책본부가 필요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본부 차원이 아니라 친구사이 입장에서든 끊임없이 고민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게이커뮤니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늘 불안하고 뭔가 계속 새고 있는 것 같고. 어깨에 보이지 않는 짐들이 계속 얹히는 것 같고. 그런 알 수 없는 불안감들을 최근에 맞닥뜨린 것 같아요. 여전히 끝나지 않는 상황들의 피로감, 그런 무서움, 우려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의미있게 해소하고 외화할 수 있는게 뭘지 고민을 해보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향후의 활동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웅 :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이 자리 동그랗게 앉아서 조금 민망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 잘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잘 남겨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코로나 19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경험 인터뷰 1

- 일시: 20200620
- 인터뷰이: 30 대, 서울거주, 게이남성, 블랙수면방 방문자
- 진행 및 녹취: 웅

질: 시작할게요. 먼저 30 대, 서울살죠? (네) 정체성은 게이남성인가요?(네)

5 월 연휴, 당시 애기가 주가 될텐데 전후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좋을거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하면 되고, 가볍게 인터뷰하는거니 긴장하지 마시고. 일단 코로나 19 에 대해서 이태원 사건 있기 전에 어떻게 봐왔는지?

답: 코로나 19 현재진행상황이라 해야하나? 이태원 사건 직전까지 확진자 제로에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분위기가 다들 모여서 놀러가고 제주도는 꽉차있고 다들 사실상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여서 저도 똑같이 앞으로 끝이구나, 놀아보자, 몸을 좀 풀어보자.

질: 그 전에는 자제를 했던 거예요?

답: 그쵸. 코로나 터진 다음부터는 친구도 안만났어요. 2 월, 부터는 친구들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쪽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들 안만났어요. (커뮤니티 활동을 거의 안한거?) 네, 아예 안했지. (한숨. 와 대단하다, 직장 때문에) 다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학원강사거나 직종이 여러 가지잖아 다양하잖아. 그런데 이친구들이 걸리면 끝장나니까. 누구에게 피해줄 수 없으니까 카톡 이외에는 거의 아예 방콕했지

질: 당시 동선 공개됐잖아요. 그때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도 주겠지만 저게 나라면 완전히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아우팅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지?

답: 이 사건 이전에? 그 문제에 대한 의식은 확실히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동선이 공개되는데 이게 정말 예방적 차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해서 공개했다기보다는 과할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을 까발리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했고 이게 K-방역이다 뭐다 하는데 이게 민주사회 타이틀을 걸고 지금 방역이

이뤄지는게 사실인가. 의구심이 많이 들었죠. 이게 민주주의적이라기보단 전체주의라고 하면 넘 센가? 그렇게 보였거든요. 전 사회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억압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선도 다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문제의식은 있었는데 이게 딱히 지금 우리 사건처럼 동선이 까발려져서 이정도의 사람들이 일정도로 크게 일날 문제였나 싶었지. 그래서 별 생각은 없었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정도. 어, 이게 맞나? 이게 인권선진국이라고 하는곳이 바보라서 저렇게 하는건 아닐텐데, 이런생각은 했죠. 우리가 후진국은 아닌가. 물론 코로나가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자유라는게 과거 선배들의 목숨을 잃어가면서 쟁취했는데 이것도 가볍게 여길건 아니잖아요. 어렵פות 생각만 했던 건데 이태원 사건으로 크게 다가왔던 거죠.

질: 그러니까 이전 코로나에 대해 방역대응에 문제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휴 직전 한자리 수 확진자가 나왔잖아, 그래서 연휴가 됐어. 그때 얘기좀 해줘요. (웃음)

답: 일단...번개나 사람만나는걸 많이 좋아하진 않아서, 작년에 만난 사람이 마지막이었고, 별로 생각없이 친구들이랑 삼삼오오 수다떠는게 좋으니까. 그렇게 있다가 강제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쪽 사람들을 만나기가 그랬잖아요. 친구들도 못만나는데 무슨 잭디를 키며, 사람을 만나겠어요. 참는거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연휴 딱 오고나서는 그때는 사실 아, 이제 끝났구나, 확진자 계속 안나오고 이제 끝났으니 놀자. 하고 이제, 놀았죠. 그게 5월 4일인가. 딱 5일 쉬기 전에 일 마치고 블랙을 갔지. (바로?) 응. (퇴근하고?) 퇴근하...고 오랜만에 번개를 잡을까 하다가, 잡을까 하다가 빨리 갔다오자(웃음)

질: 그럼 블랙같은 찜방을 자주 가진 않았던 건가요?

답: 이게 블랙은 2년 된거 같은데

질: 가면, 주로 박타러 가는거긴 한데, 갈 때..질문 너무 이상한데, 번개랑 마음가짐이 좀 다르려나? 어떻게 생각해요?

답: 번개랑 엄청 다르지는 않은거 같은데, 엄청 다르지는 않고. (그럼 그냥 땡기는거 하는 거예요?) 응 그렇죠.

질: 그래서 연휴에 갔던 거고.

답: 근데 전에도 좀 쉬는 날이 있지 않았나? (그치, 노동절도 있었고) 그때까지 참고 있다가 제로라고 하니까.
5 월 5 일 어린이날이라고 갔는데 터졌..(웃음)

질: 코로나 터지면서 독수공방을 하다가! 이태원을 간 건 아니었어요?

답: 응. 이태원은 안갔어요.

질: 그게 그 하루. 5 월 5 일? (5 월 4 일.) 사람 많았어요?

답: 엄청 많지는 않았는데, 엄청 많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옛날 2 년전 건물 갔는데 문이 잠겼더라고.
없어졌나 해서 집에 가려다가 검색하니까 이사를 갔대. 검색을 안했어야 했는데 (웃음)

질: 그랬었구나. 역시 IT 선진국. 그럼 갈 때는 긴장은 없었어요?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는 긴장같은 거.

답: 그때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종식이었으니까.

질: 그럼 거기서 이름 적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네 아예.) 없었어? 젤이나 손세정제 같은 것도 없었어?
(그런건 있던 거 같은데) 그렇구나.

이제 (찜방에서 섹스를) 하고 왔어요. 와서도 찜찜한 기분은 없었겠네.

답: 응 전혀.

질: 그리고 이태원 뉴스가 터졌잖아요.

답: 목요일 저녁쯤 소문이 돌다가 금요일에 터졌지.(소문은 어떻게 돌아?) 이태원 클럽에 붙여놓은 사진(문구가)이 파다하게 퍼져가지고 언론에 뜨기 전에 이태원 난리났다.. (사진이 뭐야?) 클럽에 코로나 19 방역을 했다 뭐 이런걸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게 다 터졌지 뉴스 나오기 전에. 그래서 와 큰일났다, 이려고 있었죠.

질: 그리고 뉴스로 본거잖아요. 그때 얘기좀 해줘요.

답: 일단 클럽에 안갔으니까. 어떡하지, 애네들 동선공개 되면 다 아웃팅인데. 이걸 그냥 이태원이라고 지명만 하면 될걸 아예 이쪽을 콕 집어서 신나게 언론에서 떠들었잖아 동네방네. 이건 완전 방역 못하게 하려고 하는거잖아. 이슈몰이 하겠다는거고. 깜짝 놀랐죠.

질: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들었던거나 봤던 거 중에 기억나는거 있어요?

답: 일단 친구들은 애들 어떡하냐, 큰일났다 직장다니는 애들은 끝장나겠네. 아는 커플들은 그날 여행을 갔어요. 이태원갈지 여행갈지 하다가. 그런데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연휴에 놀러다닐 계획 세우다가 다 진짜 한끗차이로 비켜간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멘붕돼서 이거 갔으면 진짜 인생 끝나는거다, 다시 삶이 다 무너지는 거 같다 불안에 떨고.

질: 여기서 참여하는 친목모임은 또래들인거예요?

답: 또래들이고 어린애들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질: 지역은 다 서울? (서울도 있고, 지역에 사는 친구들도 있고) 뉴스터지는거 보면서 뉴스 문제점도 있었는데, 그게 위기로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답: 약간 불안한게 없진 않았는데, 설마 확진자가 4 일에 이태원에서 블랙에 올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면서도 약간 불안한게 있지. 점점. 이거 빨리 검사 받아야 하나?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렇게 하다가

금요일인가, 저녁에 아마 블랙 관련해서 떴어 (맞아) 시간대가 얼마가 겹쳐. 그럼 100 프로다 ..난리가 난거죠

이제는 끝났구나. 더구나 동선이 공개되면 언론에서는 이쪽 찜방 가지고 신나가지고 직장다니는 친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며칠 일주일 내내 클럽얘기 다빠지고 찜방얘기만 했대요(들었대). 더러운 새끼들 이려고. 근데 너무 웃긴거는 맨날 룸싸롱 가고 성매매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개네들도 어이없고 이 얘기 듣는것도 짜증나고. 끼있는 친구들은 의심을 받는 상태잖아요. (직장) 안에서 일부러 앞에서 대놓고 발언을 엄청 세게했대요. 저런 새끼들 뭐 이렇다더라 뭘 한다더라 개네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 뭐 이상한 혐오발언들 하는거지.

질: 그런 얘기들을 듣는다고 방에서 나뉘요?

답: 응. 갔는데 누가 임직원이 얘기해서 불안하고 불편하다.

질: 평소에도 방에서 일상 이야기들을 많이 나뉘요? (응)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찜방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답: 제가 20 대때는 번개도 안했잖거든요. 번개도 안하다가 아씨. 내가 이러다가(웃음).. 그래서 번개를 하기 시작했지,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지. 근데 번개를 안하고 이럴때는 한번 만나는 사람에게 집착도 하고. 번개는 가볍다기보다 지나가는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사람 사귄때도 있고 안사귀는 기간도 있겠구나, 하다가 찜방을 갔죠. 갔는데 이전에는 거길 왜가 굳이? 번개하면 되는거 아니야? 이랬는데 가보니까.. (웃음)

질: 갈만 했나보네

답: 잘생기고 몸좋은 애들이 거기 다있더라고 나 깜짝놀랐어. (좋은데 갔구나.)(웃음)

질: 그럼 처음 갔던게 혼자갔던거예요? 호기심에?

답: 응. 근데 그때 한번 가보고 거길 자주가면 완전 일상이 스톱될거 같아요. 잘생긴 애들 너무 많고 하니까. 자주는 못갔지. 안가고.

질: 그래. 근데 주변에 이태원 갔다온 사람은 없었어요?

답: 응. 다 한끗차이로 없었어요 다.

질: 그냥 들은 얘기들이 있었고.

답: 친구들 중에도 다들. 직장인이어서 다들..끝났다, 이태원 가야지 종로에서 술먹고 이랬다가. 몇몇 핵심 멤버 커풀이 있는데 걔들이 여행도 가고 이려고.

질: 근데 애길 들으니까 웬지 그런 느낌도 든다. 사람들이 이태원에 갔어도, 갔단 애길 못할거 같아...그래서 이제 드디어 며칠 지나지 않아 찜방이 터졌어요. 난 기억에 나는건 국민일보 백상현이 기사 첫문장에 터질게 터졌다, 뭐 이런 식으로 단독보도를 하는데, 그때 어땠는지 얘기를 좀 들려줘요.

답: 터질게 터졌다...솔직히 그때 기사를 보거나 이런걸 하나도 안했어요. 그냥 밥도 안먹고 (왜왜) 그땐 멍하기 시작하니까. 멍하기 시작하니까..별거 아닐수 있지만 내가 회사다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질: 어떻게 제일 두렵거나,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답: 찜방을 갔잖아요. 동선이 완전히 공개가 되면 내가 간 장소가 특정될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재가 찜방 갔대,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사회생활이. 그게 제일 컷죠.

질: 이게 확진될 때 동선이 다 공개되는게 있고, 확진 안돼도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해봤을 거 같은데

답: 내가 확진이 안돼도 자가격리는 해야겠다 생각은 했거든요. 각오는 했지 아웃팅. 아웃팅 각오는 했는데, 내 동선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랐지.

질: 그때 (인생) 다 끝났다고 했었잖아요. 당시 그렇게 소통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몇명 있어) 네 이야기를 했던? (응) 그사람들은 뭐래요?

답: 일단은 결과 나오기 전까지 단정짓지 말아라. 나는 이미 단정짓고 모든게 다 끝났다. 안녕 세상아. 이랬으니까. 근데 중반부터는 (방역당국도) 찜방을 신경을 쓴건지 내가 전화를 해봤거덩. 질병관리본부에 (일본에?) 네. 찜방 터진거 봤다, 기사 봤고 이쪽 특성상 나 바로 검사받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물었는데 거기서 진정하시고 내일 아침 되면 이태원 관련해서 왔다고 해도 되니까 검사 받고 자가격리 하시라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안내해주더라고요.

질: 일본 홈페이지에 나온 번호?

답: 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질병관리본부였나 보건소였나..(그랬구나) 가서 그날 아침 일찍부터 가서 검사했는데 사람 되게 많았어요. 선별진료소. 특히 외국인이 많았어. 검사받고.

질: 검진은 어땠어요?

답: 평범하게. 기다리고. 취조까지 하지는 않고, 이태원 관련해서 왔다 한마디 하면 바로 그냥 안 물어보고 증상 있냐 정도 묻고, 없으면 무증상 처리하고 바로 검사했죠.

질: 익명검사로?

답: 익명검사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익명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난 바로갔으니까 사건 터지자마자. 터지고 내가 (검사) 기다리면서 내 동선 다 적고 몇시몇분 누구 만나고 리스트해서 확진사실 나오면 내려고 준비를 했죠. (어디에?) 보건소든 질병관리본부든. 확진이 됐으면 내가 접촉했던 사람들을 알려야겠다.

질: 직장을 다니잖아요, 직장에는 어떻게 알리려고 했어?

답: 일단은...만약 내가 확진이 되면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도 걸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안 나와야 되잖아 자가격리 해야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연락했어요. 이태원 가서 검사했다고 얘기했다, 아웃팅 각오하고 얘기한거야. (간접적인 커밍아웃이네) 직접적으로 했어요. 대놓고 얘기했어.

질: 그때는 무슨 정신머리였어요? (웃음)

답: 그땐 내가 100 프로 확진될거라 생각해서 더 이상 전파되면 안된다 이생각밖에 안했어요. 죽이되든 밥이되든 해야지 어떻게 해.

질: 확진이 될거라 생각했던건 장소적인 특성 때문에? (응) 그리고 이태원을 다녀왔다고 얘길 했잖아요. 그때 직장에서의 반응은 어땠어요?

답: 걱정하지 말고, 다 처리해주겠다. 결과 나올때까지 힘들어하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전체 다 재택근무를 했죠. 이전에도 재택근무는 했으니까.

질: 그렇구나...어땠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메세지를) 보낼때는 각오를 하고 보냈잖아, 커밍아웃까지 했으니까. 그런 대답을 받고 나서 기분은 어땠는지.

답: 그냥...좋은 직장 다니는구나. 다른사람들이었으면 사실 끝나는거잖아요. 나중에 경력직으로 갈 수 있겠어 어찌겠어. 완전 사장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상황이 정리가 되고 이제 음성입니다, 오기 전까지는 뭐뭐 아무 것도 못해요. 밥도 안들어가고, 하여튼 그런데...다른 사람들이었으면 이거랑 비교도 안될 정도였을..사실 말이 회사지만 작은데 있기도 하고 특성이 있으니까...

질: 직장에서 받아주니 다행이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고 검진을 보낸거예요? (응) 그래서 음성이 나왔잖아요. 그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답: 그때부터 밥을 먹었죠. (웃음) 배불리 먹었어. 48 시간정도 안먹었거든. 근데 배가 하나도 안고픈거야. 그렇게 보는데 (한숨) 배가 (고프더라고)

질: 검진 이후에 48 시간 지나고 나왔던 거?

답: 검진 전날부터 밥을 못먹었지(그치) 토요일인가? 토요일 저녁부터 못먹고 일요일에 검사하고 월요일에 받았으니까.

질: 좀 홀가분했나요?

답: 그치, 그리고 나중엔 이반시티나 이런데 블랙갔다는 애들 글을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다 음성받았다고 하더라고. 아마 애가 바이러스 양성되기 전이었나봐요. 그래서 갔어도 확진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 같아요.

질: 이반시티도 검사결과 나오고 찾아봤던 건가요?

답: 나오기 전에도 계속 갔었죠.

질: 밥 안 먹을 때도? (응) 이반시티 같은 데는 어떤 걸 보고 싶어서 찾았던 거야?

답: 지금 나 같은 상황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으니까. 근데 다들 그때는 글이 안 올라왔죠. 비난하는 글만 올라왔었지. 그러다 몇몇이 이제 다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힘내고 용기를 가져야할 거 같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흐름이 바뀌니까.

질: 그랬었죠. 그즈음부터 대책본부도 활동 시작하고. 그래서 자가격리를 시작했어요. 2 주 했죠?

답: 그래. 자가격리 2 주 했어요.

질: 어땠어요? 뭐했어?

답: 그냥 집에 계속 있었죠 뭐. 3일 지나니까 힘들더라고. 3일만 지나면..그때 오만 미드와 한드를 보면서 여인천하 난정이에 빙의도 하고 아내의 유혹도 보고 기갈이란 기갈씨는 다 보고. (웃음) 예습복습 해야겠구나.

질: 친구들이랑 격리기간동안 연락 나눴어요?

답: 친구들 중에도 이걸 얘기할 친구가 있고 아닌 친구가 있어요. 전 세 개로 구분해요. 짬방다녀온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태원갔다는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무 것도 얘기할 수 없는 사람. 세 개로 나뉘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하고 이태원이라고 얘기해요. 짬방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관계를)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돼.

질: 나름의 관리를 하며 (웃음) 자가격리가 끝나고 직장에 복귀를 했죠? (응) 직장은 어땠어?

답: 직장 근무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리고 그 사람 중에는 여성이 많았어요. 지금 여성이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이 넘고. 오히려 되게 아무렇지 않게 묻지도 않고 아무도. 이전과 다름 없이 농담던지기 시작하고, 커피먹자 그러고. 바로 일을 가져와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자연스럽게 열었죠 나는.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3일 정도 주눅이 들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질: 그때 커밍아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나누게 있었어요?

답: 그러니까 한명한테 얘길 했고, 상황이 이렇고 저렇다,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떻게 얘길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정리를 하고, 그랬던거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사람이 미리 얘길 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좋겠다 이랬음 좋겠다. 그게 없었다면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물어봤을텐데 그런게 없었으니까.

질: 그래도 긴밀하게 소통했던 한 사람이 역할을 잘했네.

답: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이 내가 자가격리하는동안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어떤 문자?) 야, 치킨시켜줄까? (웃음) 되게 가볍게. 원래 평소 하던 것처럼. ‘ㅋㅋㅋ치킨시켜줄까?’ 뭐 이런거.

질: 분위기가 좋은 직장이네. 사람들이 신경을 써줬나보다 부담 안가게. 그 이후에, 자가격리 끝나고 회사다니면서 달라진 게 있나요?

답: 지금은 이제 이전이랑 같은데, 초반에는 약간 그런게 있었어요. 왜있잖아 헤드웍보면 과할정도로 당당하잖아요. 과할정도로. 예전에 얘기했듯이 그게 정말 당당한게 아니라 당당해야 살아남으니까 당당해지는 거잖아요. 좀 과할정도로 오버하면서 당당한 척을 해야했죠.

질: 의식적 기갈.

답: 그래 의식적 기갈(웃음)

질: 시간이 지나면서 좀 괜찮았나요?

답: 더 당당하게 먼저 말 더걸고 약간 첫째날은 눈치를 봤죠. (한숨)

질: 눈총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답: 의식적 기갈로 눌렀죠.

질: 없진 않았나보네.

답: 그런데 티날 정도는 아니었고, 회사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질: 자가격리 전후에 커뮤니티 생활은 어땠어요? 친교나

답: 친구들이랑 모임 때 종태원은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질: 그건 친구들이랑 합의를 한거예요?

답: 응. 한두명이 종로에서 보자, 그러면 다 거부. 거부하고 못가. 거기 가면 난 못가.

질: 그게 커뮤니티 전반적인 정서인가?

답: 응! (지금도 그래?) 대학생이나 되면 동선이 까발려져도 모르겠는데 직장인들은 동선에 종태원 나오면 끝나. 끝나니깐 거기 못가는거죠. (그게 좀 달라진 거네) 확달라졌지. 맨날 모이던 지점이 완전 바뀌었으니까.

질: 요샌 어디서 모이는데?

답: 사람 별로 없는데로 가요. 서울인데 시골같은데. (웃음)

질: 번개같은 건 했어요? 이후에?

답: 사람? 한번도 안만났어. 잭디는 켜봤는데.

질: 그게 이전의 너가 가졌던 패턴과 비교를 하면 어떤거 같아요?

답: 사람만날 때... 일단 번개는 못하겠고, 만나더라도 길게 만날 수 있거나 그건 보는 거죠.

질: 길게 만난다면...

답: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예 익명의 사람을 만나서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만나면 나중에 내가 확진이 됐을 때 내가 개한테 확진이 됐는지 몰라. 그럼 내 핸드폰으로 동선이 다

공개됐을텐데 누구랑 만났어요? 물으면 할말이 없잖아. 누구네 집을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그게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못만나는 거지. (그게 이전이랑 많이 달라졌다는 거지?) 많이 달라졌지.

질: 많이 달라졌네 진짜.

답: 완전 전반적으로 노는 것도 달라지고 엄청 신경쓰고 많이 바뀌었죠.

질: 그게 다른 사람도 비슷한 거 같아요?

답: 직장있는 애들은 빠박..직장있는 애들 중에 이 직장을 절대 잃으면 안되는 애들 있잖아요. 소위 정규직, 30 대, 기반 잡아가는 애들. 선택사항이죠. 30 대 정규직들은. 만약 계약직이면 다른데 가면 되니까. 그리고 직군같은 경우.. 직군도 우리나라는 다르잖아. 이상한 이 노동구조 때문에. 내가 안맞으면 관두고 다른데 가면 되지, 이런데 이게 슬프다고 해야하나. 아님 애들은 여기서 만약 나가면 평판이 조퇴가 되는 곳이잖아요. 가봐야 그바닥이 그바닥이니까. 끝나는 거지. 모든 일이. 자기 삶의 경력이 끝나는 거니까.

질: 그게 이런 영향도 큰거 같다. 방역하면서 동선을 공개하거나 언론에서 때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영향 받을 거 같아요.

답: 영향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사람들이 매일 혐오발언 쏟아내, 자기발에 걸려서 나오는거지. 복귀는커녕. 짐도 못챙기고 나오는 거잖아요.

질: 왜 그, 요즘 클럽들이 장사는 안하는데, 큐알코드 찍는다 이런걸 발표했잖아요. 봤을 때 커뮤니티도 달라질 거 같긴 한데, 그런거에 대해 해줄말 없나요?

답: 큐알코드를 찍는 데 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 같다. 없을거야. 없지. 근데 이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이쪽 술집이나 바라고 하는게 그렇게 공개되지 않은데는 찍고 가겠죠. 근데 술집은 안찍잖아요.

질: 그게 찍는데가 클럽같은데도 킹클럽같은데 그..큐알코드를 찍어야 하고 다른데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서 안찍어도 되는 거죠. 음...종태원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답: 종로는...사람들 계속 다니고 있는거 같아요. 젊은 친구들 다니는거 같은데, 업종의 차이인거 같아. 클럽은 못갈거 같아요. 클럽은 못갈 거고. 당분간 못갈 거고. 술집은 근데 갈 거 같아요.

질: 왜 찜방들도 영업을 재개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찜방의 미래는 어떨거 같아요?(웃음)

답: 안없어질 거 같은데? (갈거 같아요?) 안가, 못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앞으로 계속?) 응. 못가.

질: 관계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졌네요.

답: 근데 막...뭐 그런거지, 그러니까 연애하기 귀찮은데, 연애관? 그게 좀 바뀐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바뀐게 외부에서 치고 들어와서 바뀐거라. 그래.

질: 지켜봐야겠네.(웃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으니...이태원 확진자가 나오고 사건이 커지면서 대책본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걸 직간접적으로 봤을 거 같은데, 볼 때 이들의 활동은 어떤거 같아요?

답: 출범을 하고나서 확실히 대응이, 일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이것만큼은 절대 공개 안되면 좋겠다 하는게 느껴졌어요. 동선 공개할때도 앞으로 꼭 공개하는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개하거나 하는게 보였죠.

질: 방역기관의 태도가 달라졌다~

답: 응. 태도가 달라진게 확 느껴졌고, (음..) 인권단체 필요하구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아 내부에도?) 응. 아 이래서 필요하구나, 전에는 별 생각 없어보였는데,

질: 그 전에는 인권단체를 얘기나눌 일이 있었어요?

답: 별로 다들, 없지.

질: 얘기를 나누면서 아까 인권단체 필요하다는 얘기, 나도 시티에서 본거 같은데 다른 얘기를 나누거나 한건 있나요? 인권단체나 대책본부나

답: 딱히 없어요. (웃음)

질: 그래. 그런 얘기 뭐하러하겠어.

답: 그거에 대해 뭘 많이 이야길 하겠어. 이 사태를 바라보는 눈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하거든요. 피해자 중심적이고 K-방역에 문제의식을 느꼈고. 전에도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이태원 사건 터지면서 눈이 확 돌아갔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일본이 최고 권력기관 되는거 아니냐. 당장 문제제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가 심해지겠다 인권침해 계속 발생하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억압되는가. 그건 민주주의인가?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 없겠지만..최소한 논의과정이라는게 민주주의에서 중요한데 이게 빠져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흘러가는데 대해서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난 약간 우물안 개구리잖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온도차가 있는 거 같아요. 밖에 나가면 완전 다르죠. 이 집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게 당연한 거거든. 그렇게 되니까.

질: 이것도 인권운동 안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거, 본격 논쟁이 된건 아닌데, 이렇게 방역하는게 잘하는거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거 같고. 그럼 앞으로 코로나 19 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답: 내년 내후년까지 죽 가지 이걸 어쩔 수 없는거 같아요. 0 명 가까이 갔다가 다시 확진자 나오는거 보면. 이걸 감염률이라고 해야하나? 그게 너무 강력하니까. 이걸 이 사회가 계속 갈거 같고. 코로나 전으로 회귀 불가능할거 같고. 이쪽 커뮤니티도 그러겠지 단축되던지 진짜 난년들만 나와놓던지.

질: 난년이 아닌가요?

답: 나요? (웃음)

질: 운동 안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해요. 커뮤니티가 거의, 많이 죽은 상태고(죽었지 강) 그래서 이것 어떻게..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맘편하게 나왔던 공간인데 그런거 자체가 타격을 직방으로 받으니까 뭐가 필요할까. 고민이 필요한 거 같은데.

답: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정부에서 하는것도 마찬가지로. 돈풀었어. 몇월 몇일까지 써. 쓰려면 나가서 움직여야 돼. 근데 또 반대에서는 똑같은 정분데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전혀 다른 얘길 하잖아요. 하난 경제 살려야되고, 하난 방역은 해야겠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근데 우리가 좀 더 열악할 수 있죠. 이사람들은. 요즘 잘되는데 가면 줄서있고 예전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건 겪고 좀 더 도덕적으로나 촘촘하게 죄어오잖아요. 사실 이거야말로 차별..차별,,(말잇못)

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하면 종태원을 갈 수 있을거 같아요?

답: 변하면? 종태원? 코로나가 끝나야지. 그거 빼고 있나.

질: 갈 생각이 전혀 없네요 지금은.

답: 그럼. 못가죠.

질: 집에서는 그 상황을 하나도 모르는거죠? 얘길 안한거죠?

답: 네.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같이 사는 애들이랑 혼자사는 애들 차이. 혼자사니까 나아. 같이 살면 뒤집어지잖아요. 난 그러고보면 상황이 엄청 좋은 거 같아요. 모든 면에서.

질: 다행이다 그래도.

답: 운이 좋은거지. 물론 안갔으면...(웃음)

질: 뭐 어떻게 해~ 뭇 처럼의 연후네. 그런걸 자책해서 뭘하겠어요.

(인터뷰이가 커피를 엮음)

답: 인터뷰 하면서 약간 그런게, 뭐랄까..이게 찜방을 갔다는걸, 친구들한테 얘기는 하거든요. 사실 나도 갔어.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런거 있잖아요. 물론 인터뷰는 무기명으로 한데 조금이라도 유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릴 수 있어)

질: 제가 녹취를 풀어서 보내줄게요. 그걸 확인 받고 오케이 하면 공유할게요.

답: 아님 둘로 나눌 수 있잖아. A,B 씨로 해서 직장과 찜방을 바꿔서 하고. (웃음)

질: 그 우려가 뭘 줄 알겠어.

답: 아는 분들이 읽을 확률이 매우 높다. 거기에 찜방얘기가 나오면 더..왜냐면 내가 직장에 커밍아웃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질: 원래 그렇게 조심스러웠어요? 아니면 이번 때문에..

답: 안조심스러워~ 누가 옆에서 말실수를 해. 그럼 그냥 그래라 얘기하고 다녔거든. 어디 가서 일하고. 어차피 다른사람이니까 얘기하는게 거리낌이 없는데, 이걸 뭘 씨.

질: 이게 또 변화시킨 건가요?

답: 찜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반이 이해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질: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려나?

답: 그렇죠..

질: 이건 녹취 자체를 확인하고, 2 차 가공물이 나올때도 확인을 하는걸로 할게요. 연구윤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거라서. 그런건 최대한 걱정 안하게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성파일은 녹취 풀고 지우고.

그럼 대략의 질문은 다 했어요. 아마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수다회든 뭐든 진행을 할 거 같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전에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듯 나한테 했고. 이번엔 나름의 공식성을 갖고 진행하고. 비공개긴 하지만. 아무튼, 궁금한건 이렇게 활동의 차원에서 제한적이거나 공식성을 갖고 너의 이야기를 남긴 소회가 어떤지?

답: 하다보니...음 이거를...약간 나눠서 봐야할거 같아요. 찜방이라는 특성을 보면 여기에도 불법이나 이런건 들어갈 여지가 없는거 같고, 도덕성의 측면에서 놓고 볼 때...일단은 이쪽 몇몇 혐오발언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보다 일반인 시선에서 더 악의적인 텍스트가 나갔잖아요. 물론 거기 중에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는데...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지. 찜방을 바라보는. 이게 노출이 되는거에 대한 불안이 엄청 큰거지. 모든 인간관계는 끝.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비도덕적인 사람인가? 당신들의 삶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것까지 생각하진 않고 찜방을 보는거에 대해 위축이 큰 거 같아. 그래서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이태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질: 만약에 이건 그냥 만약의 경운데, 블랙이 아니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서 검진을 받고 자가격리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같진 않았을까요?

답: 좀 덜 절망적이었을 거 같아요. 동선이 공개돼도 애는 게이구나 인거지 거기다 다른 판단이 들어가는건 아니니까. 동선이 완전 다르지 둘은. 그런데 이게 완전 삶을 송두리째 뺏힐 정도로 잘못된 건가? 모든게 공개가 되고, 그럼 내 모든 행동은 공개돼도 아무 상관 없는 행동만 해야되나? 근데 내가 친구들한테는 이런 얘기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좀 그런거 같아. 일반사람들한테는 전혀 다르게 비쳐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질: 그런것도 있는거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맥락이 되게 불리한 상황에서 본인이 원치 않는데 얘기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거 같아요.

답: 인터뷰여도 찜방이 아니라면 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난 지금 다니는데 얘기하고 실명까지 얘기하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블랙이 되면서 모든게 다 꼬인 거죠. 얘기해봐야 몇명한테 말고는 찜방갔다고 얘기 못하는 거니까. 자가격리 했다는 얘길 한사람들은 있거든요. 텔레그램으로. 그때도 술먹었다, 이태원에서. 그정도지. (웃음) 이렇게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네

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맞아.

답: 불안한 상황에서 두명한테 톡이라도 안보내면 미쳤을걸요? 사람이. 근데 진짜 찜방에 갔던 직장인들이 있어요. 이사람들은 어디있을까.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 있었을까. 애는 그냥 직장에서 나갈 수도 있어요.

질: 숨었을 거 같아.

답: 되게 상황 때문에 그런거지 LGBT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인권침해 현장이잖아요. 전세계에도 그렇지 않을까. 물론 사람을 처벌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대규모의 조리돌림...

질: 질병으로 낙인이 있던건 HIV/AIDS 가 있긴 한데..심각하구나.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으면, 당부도 좋고.

답: 그냥 난 이런 것도 인터뷰집 할 때 이태원 갔다온 a 를 취재했다. 그리고 다른 세션으로 넣는다. LGBT 친화적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막 소리치듯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권력이 무서운게 제가 지금 임원을 하고 있거든요. 나한테 밉보이면 불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상황이 좋아서 그런거야. 여기가 아니었으면...사장도 인권의식도 그렇고 페미니즘도 무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터졌을때도 그럴텐데 나랑 말싸움이 나면 똥까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내가 운이 몇 개가 겹쳐서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 생각이 드는거죠. 인터뷰집도 두 개로 나오면 좋을거 같아요.

질: 아. 여기서 나온 특정 가능한 정보들은 최대한 삭제할 계획이에요. 그 작업을 거치고 한번 더 확인시켜 드리고 물어볼게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래도 어렵다면 심지어 않는걸로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또 할말이 있으신지?

답: 뭐가 있을까? 하다보면 나올 수도 있을거 같은데

질: 그래도 술술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알고보니 회사의 실권자고 (웃음)

답: 아오 너무 하기 싫어. (끝)

3) 코로나 19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경험 인터뷰 2

- 일시: 2020. 8. 7. 14 시
- 장소: 친구사이 사정전
- 인터뷰이: 30 대 게이 남성, 직장인, 음성, 자가격리 조치
- 인터뷰 진행 및 녹취: 종결
- 진행 시간: 1 시간 5 분

코로나 19 관련 기존 생각

질: 코로나 19 에 대한 인식이 이태원 이전과 이후로 봤을 때 달라진 점이 있나요?

답: 처음엔 이태원 터지기 전에는 솔직히 그렇게 막 와닿지 않았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냥 조용이 넘어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터지고 나서는 확실히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정작 그 당사자가 내가 되어 버리니까.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됐고. 아 이게 좀 큰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했어요.

질: 3 월 달 종로에 구로 콜센터 직원 중에 한 분이 종로에 게이 업소에 왔다는 소식도 들으셨어요?

답: 네. 기사로 들었어요. 예 그 것 만으로도 확 와닿지는 않았던

질: 게이 커뮤니티의 공간이었던 종로. 이태원 등에 편하게 나오셨던. 게이 정체성을 가진 ?

답: 그렇죠. 종로는 가끔 친구들 보러 왔어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질: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뉴스 기사가 나왔을 때 소식 접하고 어땠나요?

답: 처음 알게 된 것은 보건소 전화 받고. 그거 받고 알게 된 것 같고. 기사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나왔어요. OO 보건소로 부터 전화 받은 것은 5/6 (수) 이네요.

질: 검진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던 건가요?

답: 처음 전화 왔을 때는 증상이있으면 받으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처음 전화 받았을 때는 별 걱정 없었던. 이렇게 크게 터질지도 몰랐고.

질: 그러면 검진을 언제 받았어요?

답: 처음에 OO 보건소에서 왔고. 그 이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조건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5/9(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무조건 받으라고. 자가격리도 될 수 있다고 얘기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전화랑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제가 약간 따지듯이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OO 보건소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자가격리하냐고. 처음에는 약간 거부를 했었는데. 그 이후 전화가 좀 많이 왔어요. 세 통화 정도. 제가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이걸 피하면 안될 것 같아서, 어차피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토요일 오후쯤에 검사를 받았어요.

질: 본인에게 자가격리 요청 연락을 한 곳은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을까요?

답: 아 그거는 제가 입장할 때 연락처 적잖아요. 거기다가 제대로 적었거든요. 이름이랑 연락처랑. 그거 보고 연락 온 것 같아요.

질: 혹시 카드결제도 하셨어요?

답: 카드 결제도 했어요. 5 월 1 일 금요일밤 2 일 토요일 새벽. 이 날일 거예요. 확진자 방문한 날. OO 클럽 만 갔었어요. 일행은 세명 정도. 그 일행한테도 다 연락이 갔더라고요.

질: 본인이 실제로 고민했던 것, 두려웠던 것은 어떤 거예요?

답: 가장 먼저는 회사한테 이야기해야하는 데. 자가격리 사유를. 마침 기사가 터져서 이슈화되서. 이거 말하면 아웃팅 당할 것 같다는 위험 부담이 가장 컸죠. 회사에서 알게 될까봐.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은 안들고.

검진 과정

질: 그러면 인제 5/9 토요일날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은 거죠?

답: 그 때 처음에 검사 받을 때는 받고 나서. 일단 증상 같은 것은 없었어서 병이 걱정되진 않았어요. 걸렸다고 쳐도 집에 있으면 되니까 우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걱정됐던 것은 그거죠. 자가격리 될지 안될지가 확정이 안났으니깐. 제발 걸리지 않기를 1 순위로 바라기도 했고, 자가격리가 안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질: 역학 조사 시 보건소에서 이상한 것은 없었는지?

답: 네 보건소에서는 처음에 올 때 물어보더라고요. 이태원에 다녀왔어요? 라고. 처음엔 신경쓰이긴 했는데. 주위에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바로 뒷 사람도 이태원 때문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재도 다녀왔나 보다 생각하고. 아는 사람은 아니었고.

질: 음성이 나왔고요. 그 이후 자가격리 조치에 대해서도 △△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답: 자가격리 통보는 다음날 일요일 오전쯤에 왔던 것 같고. △△ 보건소에서. 그냥 문자로 와가지고. 음성 판정 나왔지만 자가격리는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질: 왜 내가 자가격리 해야하는지 물어 보셨나요?

답: 전화를 해서 엄청 따졌던 것 같아요. 음성인데 왜 자가지치냐. OO 보건소에도 전화하고 △△보건소에도 하고. 심난해가지고 지인들한테 연락하고.

질: 본인이 왜 자가지치 조치 받은지 이해가 됐었나요?

답: 그 당시에는 사실 이해가 안됐어요. 음성이면 되는 것 아닌가. 잠재적인 위험 때문에 그런 것은 알겠는데

질: 우리가 방역당국 통해 파악하기로는 자가지치 조치는 밀접접촉자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밀접접촉자의 기준이 이 상황에서는 이전과 좀 달랐던 거죠. 이태원 클럽이 환기가 안되는 밀폐시설이기였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상황이 확인이 되면 밀접접촉자로 확인한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 방문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이 카드결재인 것이고. 그것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냐 했을 때 서울시나 방역대책본부도 그것으로 우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것이 사실 합리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답: 한편 의아했던 것이. 이틀 연속 그곳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확진자가. 저는 이틀연속 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다른 날 간 사람들은 자가지치가 안되더라고요.

질: 처음에는 5/2 그 시간이었다가 그 이후로 자가지치가 조금 더 확대 되기도 했던 것
4 월 30 일로 확장되기도 했던 것. 거의 10 일이 지난 다음에 뒤늦게 자가지치 조치 당한 경우도 있어서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많았죠.

회사와의 연락

질: 자가지치기간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답: 회사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할지. 자가지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일요일 날 바로 회사에 전화해서 자가지치 해야한다고 했어요. 확진자와 방문한 장소 동선이 겹쳤다고 회사에 이야기 했어요. 그 전화를

하고 나서 회사에서 △△보건소에 전화를 했나봐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더니 ‘내가 알기로는 너는 이태원 간 것으로 연락을 받았는 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말문이 막힌 거죠. 아 큰일났다. 어물쩍 어물쩍 하는 데 결국에 시인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알겠다 하고. 회사에서 더 이상 전화는 안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수십 통의 전화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질: 그 이야기 한 다음에 △△ 보건소에 왜 알려줬는지 물었어요?

답: 처음 그 이태원 이야기를 회사가 알고 있는 게 어이가 없었던 거죠. 제가 확진자면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진자도 아니고. 보건소에 물어봤죠. 왜 내 정보를 회사에 알렸냐 했더니 그 당시 통화하던 여성 분인데 오히려 자기는 그냥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거다. 잘못이 없다고 약간 뻔뻔스럽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관련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 여자분이 그냥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태도가 당당해서. 끊기는 했는데 그러고나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 왜 △△보건소에 전화해서 전화하지 말라고 요청하게끔 전화를 했냐고?’. 그럼 또 △△보건소에서 회사에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피해자는 저 인 것 같은데. 왜 자기 내가 성질인지.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지금도 이해가 잘 안되요. 좀 그렇더라고요.

질: 네 그렇네요. 정말 누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에게 상담 전화를 줬던 것 같아요.

답: 5 월 11 일 정도인듯 해요.

자가격리 생활

질: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활은 어땠나요?

답: 보건소에서 직원이 식사를 가져다 주긴 했는데. 양이 얼마 안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모자라고. 그래서 거의 시켜먹긴 했죠. 많이 시켜먹고. 그것도 첫 날 이틀 날은 많이 힘들었는데 좀 지나니깐 무덤덤 해지던. 어차피 큰 일 났으니깐 터진 것 터진 거니깐. 철면피 깔겠구나 싶은.

질: 불편하거나 억울한 과정들은 없었는지

답: 격리되고 있었을 때는 딱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질: 쓰레기 봉투 등도 가져다주고, 격리 기간 동안에 생활했던 폐기물을 가져간다고 하던데. 근데 막상 가져가지 않았다고.

답: 저도 그랬어요. 매뉴얼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좀 보여주기식인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 직원은 직접 본 적은 없고, 물건도 문앞에 놓고 가고.

질: 일행도 자가격리 했던?

답: 셋다 자가격리 했던. 한 명은 자가격리 했고, 한 명은 중간에 해제되서 돌아다니기도. 그래서 좀 이해가 안되었어요.

질: 지자체 마다 그 기준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답: 구마다 다르고, 본부쪽도 수시로 얘기가 바뀌니깐. 통일성도 없고.

질: 그 사이에 주로 연락하던 분들은 있어요? 답답함은 어떻게 해결을?

답: 같이 간 친구들이랑 가장 이야기 많이 했던. 격리는 어떠냐 하면서, 이러면서 서로.

질: 누구에게 이야기 했어요. 이 상황들

답: 그 같이 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친한 친구들 한 두명하고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지인이 알려준 거예요 친구사이나 인권단체 같은 거. 너무 고민되면 연락해보라고.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된거죠.

질: 가족들에게는 ?

답: 가족하고도 이야기 못한. 같이 살지도 않고.

회사 출근 이후 상황

질: 자가 격리 마치고 회사 출근 후 상황이 어렵지 않았나요?

답: 회사에 알려졌으니 얼굴 들고 못 다니겠다. 퇴직해야겠다. 뭐 먹고 살지? 앞이 캄캄했었죠. 퇴직 할려고 해도 어차피 얼굴은 봐야하니 퇴직하려면. 그래서 복귀는 하고 상황을 좀 봐보자. 아 이게 정말 아우팅으로서 막 사람들 욕하고 눈치보고 하면 못다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상황을 보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니깐 이제 뒤에서 욕할 수 는 있겠지만 대놓고 뭐라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배려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지?

답: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행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둘러서 얘기도 했고.

질: 근무지 적응은 어떤지?

답: 이제 한달 정도 됐나. 아직 좀 조용히 있어요. 소문이 갈 수도 있는 거라. 암전히 조용히 있으려고. 쥐 죽은 듯이 있어요.

질: 그 이후로 종로나 이태원 나가거나. 사람 만나거나.

답: 지인들 만나면 그 이후 종로나 이태원 빼고, 다른 곳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종로도 그렇고. 다른 데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잠잠해진 것도 같고. 그리고 그런 것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다중이용업소나. 안가게 되는. 여기는 그런 곳은 아니니 부담은 좀 없고.

질: 연휴 기간 때. 다른 동료 분들도 다른 곳에 가시기도 했을 텐데.

답: 주위에서 좋게 얘기해 준 것이 하필 너가 가서 운이 없었다고. 고마웠던 게 우리 팀 사람이었는데 미안해 할 것 없다고. 미안해 하지 말고 제가 운이 없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징계 이후의 생활

질: 지금 새로운 직장에 적응해야 하는 데. 본인에게는 이 코로나 19 로 겪은 상황이 어떤 기억이에요?

답: 코로나요? 올해 좀 운이 없구나. 재미로 보는 사주, 온라인으로 보는 것 중에 올해 삼재가 있더라고요. 더 나빠질 것은 없지 않겠냐. 개인적으로도 상황이 좀 안좋았거든요. 얘기하자면 오랫동안 사권 애인이랑 헤어진 것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많이 안좋을 때 였고. 헤어진 직후 였고. 많이 힘들 때 였는 데.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질: 힘을 어떻게 찾았어요?

답: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고. 친구들이 위로도 많이 해주고.

질: 주변 관계들이 도움이 된 것?

답: 이런 상담도 단체에서도 해주니깐.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캄캄했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니깐 어떤 방향도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질: 커뮤니티라고 표현하는 데. 커뮤니티로 연결돼 있는 거 맞나 싶기도 했는데. 클럽 방문에 대해 커뮤니티 내에서도 비난과 조롱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그이후 적극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 힘을 주기도 하셨고. 그나마 커뮤니티가 이전 보다 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기도 했고. 우리에게 만남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지역이나 은둔이나. 상담으로 연락 주셨거던도 너무 다행이었고.

답: 이런 활동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냥 단순히 인권운동만 하는 것인 줄. 상담은 잘 몰랐거든요. 지인한테 들었던. 당해보니 필요성을 느끼게되더라고요. 의지할 데가 없거나 친구가 없거나 은둔생활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질: 같이 방문했던 지인들과 같이 자주 모이게 되는 지.

답: 계속 연락은 하는 데. 그 때 그 이야기를 이제는 잘 안하게 되는. 잊게되는 것 같고

질: 커뮤니티에 뭐가 있으면 좋을지.힘든 상황에. 국가나 기관이나 무엇인 바뀌어야 할지

답: 이런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지않아요. 일반적인 케이스랑 비교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정부도 갈팡질팡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런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게 이해 되기도 하는 데. 이태원 상황은 정부 입장에서는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은 하는 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좀 희생양이 된 것 같고.

질: 국민일보 보도 등이 방역을 어렵게 만들고. 방역 과정에서 불필요한 질문들. 역학조사 시에 등등. 개인동선 노출. 기저질환 등. 확진자에게는 과도한 개인 정보 노출등

답: 나오기 꺼려지긴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금 이 걸 ‘백서’를 작성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나와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 보호가 되거나 도움이

될수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해자가 되어보니깐. 익명보장도 된다고 하니깐.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 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직접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끝)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활동백서

발행일	2020. 12. 2.
발행	코로나 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집필	기진, 나영정/타리 , 웅, 다니주누, 소주, 종걸, 창구, 한희
편집	한희